



정답과 해설

중등국어



1. 소통하고 공감하는 삶

(1)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관점



내공 쌓기 ①

11쪽 01 ④ 02 ④ 03 ①

01 이 소설의 발단 부분에서는 '나'가 '미옥'에게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받는 사건이 "미옥'에게서 답장을 받은 날 → '미옥'에게 편지를 보낸 날"과 같이 시간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③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로, 작품 속의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자신의 심리 및 사건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② '봄 방학을 한 날'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⑤ 제시된 부분에는 '아버지'와 '나', '나'와 친구들의 대화가 제시되어 있으며, '나'의 서술을 통해서도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내용 기르기

시간의 흐름이 '과거 → 현재 → 미래'와 같이 흘러가는 구성을 '순행적 구성'이라고 해. '역순행적 구성'은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과는 달리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가는 구성, 혹은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구성'을 말해. 이 소설은 '미옥'에게 답장을 받은 '봄 방학을 한 날'을 회상하며 이야기가 시작되고, '미옥'에게 편지를 쓴 날로 다시 거슬러 갔다가 답장을 받은 날로 돌아오고 있어.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는 '순행적 구성'이 아니라,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02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하고 있으며, 주인공인 '나'가 꾸밈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소설에서 보거나 말하는 이를 서술자라고 하는데, 이 글의 서술자는 '나'이다.

② '나'는 이성 친구인 '미옥'을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조언을 얻어 '미옥'에게 편지를 보낸다.

③ '아라'가 '나'를 부를 때 '나'의 이름이 '한희창'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나'는 '미옥'과 결혼하고 싶는데 이제 겨우 열여섯 살이라는 게 분하다고 하였으므로, '나'가 열여섯 살임을 알 수 있다.

⑤ '나'는 편지를 보내기 위해 면 소재지 우체국으로 자전거를 타고 갔다고 하였다.

03 '나'는 편지를 부치기 위해 우체국으로 가면서 '미옥'이 사는 동네에서 자전거 페달을 느리게 굴린다. 이와 같은 '나'의 행동은 '미옥'을 보고 싶은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공 쌓기 ②

13쪽 01 ⑤ 02 ② 03 ⑤ 04 살맛

01 '나'는 설레는 마음을 더 오래 유지하며 조용한 공간에서 소중한 편지를 뜯어보고 싶었기 때문에 '미옥'에게 받은 편지를 바로 뜯어보지 않은 것이다.

02 '나'는 '미옥'에게서 답장을 받아 설레고 기분이 좋았으나, 과수원에서 '아저씨'를 처음 보고는 '아저씨'가 우리 과수원에서 불일을 보았다고 생각하여 기분이 나빠진다. 그러다 '아저씨'가 '나'에게 북한식 사투리로 말을 걸자 간첩으로 오해하여 겁이 난다.

03 '나'는 가지치기나, 꽃이나 열매 숨여주기 같은 것을 할 때 발밑에서 뭔가 물컹거림 밟히더라도 하는 날이면 진짜 죽을 맛이 라고 하며, 그것이 무엇인 줄 뻔히 알면서도 항상 으악 비명을 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이 기분이 나빠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가 발밑에 밟히면 놀라서 비명을 지르게 된다는 대화 내용은 이 글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엄마'는 사람들이 불일을 보고 싶을 때 우리 과수원에서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주 신경질 난다고 하였다.

②, ④ '아버지'는 사람들이 과수원에서 불일을 보는 행동에 대해 사람들에게는 우리 과수원이 좋은 일 하는 것이고, 우리 과수원에는 사람들이 좋은 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③ '나'는 식지 않은 인분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나고 흑시라도 그것을 밟게 된 날에는 더 기분이 나쁘다며 '엄마'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04 서술형 '나'는 '미옥'의 편지를 받고 느낀 설레는 기분을 어른들이 흔히 말하는 '살맛'이라고 표현한다.



내공 쌓기 ③

15쪽 01 ② 02 ⑤ 03 ⑤

01 '아저씨'는 '아버지'에게 "아아, 일가가 좋긴 좋구만이. 참 보는데도 고저 피가 확 땡기는 거이."라고 하였으므로, '아버지'와 '아저씨'는 일가인 것은 맞지만 처음 보는 사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인물이 어린 시절을 함께한 사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아저씨'는 '엄마'가 자기에게 '연변'에서 오신 그분이라고 묻자, "저는 저어 라오닝성 다롄서 왔지요."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다.

③ '아저씨'와 '나'는 구면으로, '나'는 과수원에서 본 '아저씨'를 북한 사람으로 오해하여 왈칵 겁이 나 집으로 뛰어 들어온다.

④ '아저씨'의 말에 얼굴이 벌게진 '엄마'에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반가움을 표현하는 모습에서 '아저씨'가 시원시원하고 넉살이 좋은 성격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⑤ '엄마'는 '아저씨'를 보고도 놀라지 않고 '아저씨'의 인사를 받으며, 연변에서 오신 그분이라고 묻고 있는데, 이로 보아 '아저씨'는 '나'의 집에 미리 연락을 하고 찾아 왔음을 알 수 있다.

02 ‘나’는 처음 만나는 사이인 ‘아저씨’와 ‘아버지’가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는 것을 보고, ‘바야흐로 혈육 상봉의 감격적인 순간인가? 나가서 사진이라도 찍어 줘야 하나?’라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03 ‘나’가 ‘미옥’의 편지를 읽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일가라며 자신의 집에 찾아온 ‘아저씨’에게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옷 어르신 ‘아저씨’께 공손한 태도를 보이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자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내용 기르기

각 구절의 의미를 파악할 때에는 글의 전체 맥락에서 작품 속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해. 앞뒤 문장이나 전후의 사건과 관련지어 각 구절을 살펴본다면 인물의 말과 서술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정보를 발견할 수 있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야.

내용 쌓기 ④

17쪽 01 ⑤ 02 옆드려 절 받아먹기 03 ③

01 ‘엄마’는 ‘아저씨’를 대접하기 위해 교자상을 펴고 있으나, 얼굴에 수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아저씨’의 방문이 별로 달갑지 않으며, 그가 오래 머무를까 봐 걱정되는 마음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엄마’와 달리 ‘아저씨’를 반갑게 맞이하고, ‘나’에게 ‘아저씨’께 예의를 갖추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가 ‘아저씨’는 말하자면 한국에 돈을 벌러 온 조선족 이주 노동자라고 하였다.

② ‘아저씨’는 “이거이 고향의 정이라는 거겠지?”, “자아, 동생, 이거 우리 오들이 력사적인 형제 상봉의 날이 아니웨까. 한잔 쪽 들이키자우요.” 등과 같이 혈육 상봉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③, ④ ‘나’는 ‘아저씨’를 대접하기 위해 상을 펴는 ‘엄마’의 얼굴에 수심이 깔린 것을 보고, 떨떠름한 기분이라고 하였다.

02 서술형 ‘아저씨’는 ‘나’가 고개만 꾸벅 숙여 인사를 하자 ‘나’에게 정식으로 인사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런 ‘아저씨’의 요구에 ‘나’가 큰절을 하자, “옆드려 절 받아먹기가 바로 요런 것이로구 만그래, 이? 허허허.”라며 예의범절을 지키지 못한 ‘나’를 꼬집고 있다.

03 ‘엄마’는 ‘아저씨’의 방문을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고 있다. 또한 ‘엄마’가 잠깐 “과일이라도.” 하면서 일어나려고 한 것은 핑계를 대서라도 ‘아저씨’와의 대화 자리를 피하고 싶어서이다. 따라서 정성껏 마련해 놓은 과일을 대접하지 못해 아쉽다는 ‘엄마’의 속마음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아버지’는 우사에서 소가 밥 달라고 매애거리자 안절부절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저씨’를 맞아 반갑기는 하지만, 그의 이야기가 길어지자 곤란해하는 것이다.

④, ⑤ ‘나’는 적당한 때를 봐서 슬쩍 일어서야지, 하고서 ‘아저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체하면서 속으로는 계속 ‘미옥’이 보낸 편지만 생각하고 있었다.

내용 쌓기 ⑤

19쪽 01 ① 02 ① 03 몰상식 04 ③

01 ‘아저씨’는 ‘나’의 집에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일을 하고 있을 뿐, ‘나’에게 일을 시키지는 않는다. ‘아저씨’가 이렇게 스스로 일을 찾아 하는 이유는 ‘나’의 집에 좀 더 머물기 위해서이다.

오답 풀이 ② “아무리 일가래도 엄연히 손님으로 와 농구선 날마다 술을 달래지 않나. 옷을 빨아 달래지 않나.”라는 ‘엄마’의 말에서 ‘아저씨’가 ‘엄마’에게 부탁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⑤ ‘아저씨’는 우사에 가서 갖가지 일을 하며, 마치 우리 집 일꾼으로 들어온 사람처럼 굴며 놀러왔어 살 기색을 보였다고 하였다.

④ ‘아저씨’는 밥때가 되면, 마당을 들어서며 “제수씨 밥 안 줘네까? 뱃가죽이 아주 등가죽에 가 붙었습네다.”라고 소리쳤다고 하였다.

02 ‘나’는 ‘아저씨’가 ‘나’의 집에 오래 머무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고, 그가 빨리 떠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아저씨’ 때문에 ‘미옥’을 보러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② 과수원에서 “하야, 그놈들, 궁뎅이도 차암.”이라는 ‘아저씨’의 말을 듣고, ‘나’가 생각한 내용이다.

③, ④ ‘나’는 우리 식구만 있을 때처럼 말이나 행동이 자연스럽거나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아저씨’가 ‘나’의 집에 머무는 것이 답답하다고 하였다.

⑤ ‘나’는 ‘아저씨’가 내 말, 내 행동 하나하나에 ‘조선 사람의 예의범절’을 따지는 손님이니, 신경이 보통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03 서술형 ‘엄마’는 “아무리 일가래도 엄연히 손님으로 와 농구선 날마다 술을 달래지 않나. 옷을 빨아 달래지 않나.”라고 말하며, ‘아저씨’의 행동을 ‘몰상식’하다고 평가한다. 이는 ‘아저씨’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엄마’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04 ‘나’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아저씨 언제 가요?”라며, ‘아저씨’가 빨리 떠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을 때, ‘아버지’는 손님에 대한 예의범절을 중시해야 한다며 ‘나’를 꾸짖는다. 따라서 ‘나’는 ‘아버지’가 ‘아저씨’를 잘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님에 관한 말은 아예 꺼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다.

내용 쌓기 ⑥

21쪽 01 ⑤ 02 ① 03 ④ 04 ‘나’는 ‘미옥’에게 답장을 받았기 때문에 기분이 최고였으나, ‘엄마’에게 이를 빼앗겨 기분이 최악으로 바뀌었다.

01 ‘엄마’는 ‘나’가 편지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서 ‘미옥’이 보낸 편지를 압수했다고 하였지만 이는 핑계로, 사실은 ‘나’가 이성 문제에 신경을 써서 공부를 소홀히 할까 봐 걱정하였기 때문에 편지를 압수한 것이다. ‘나’는 이러한 ‘엄마’의 속내를 알고, 솔직하지 않은 ‘엄마’의 태도에 더 분노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엄마’는 ‘아버지’에게 ‘나’의 편지를 뺏은 이유를 이야기하며 “지금 재 나이가 몇 살이야?”라고 말한다. 이는 ‘나’가 연애를 하기에는 어린 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② '엄마'는 처음에는 "자기한테 온 편지를 제대로 간수하지도 못하는 애한테 내가 왜 주냐?"라며 편지를 빼앗은 이유를 숨겼지만, 곧 "너 공부에 지장 있으니까 그렇다. 왜."라며 속내를 실토한다.

③ '엄마'는 이제 겨우 열여섯 살짜리한테 무슨 놈의 연애편지냐며, 스무 살만 되면 그때부터는 연애편지가 아니라, 누구하고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간섭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는 '나'가 현재는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의 간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나'는 '엄마'가 편지를 압수한 이유를 자신이 공부는 안 하고 여자애한테 신경 쓸까 봐 겁나서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뒤에 이성 문제에 휩쓸리다 보면 성적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건 순식간이라는 '엄마'의 말을 통해 '나'가 한 추측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02 '아버지'는 '엄마'에게 "여보, 뭐해. 술 내오잖고."라고 말하며 집에 들어왔지만, 이 때문에 '아버지'가 화가 나 있는 상태는 아니므로 이를 갈등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② '엄마'와 '아버지'의 부부 싸움은 '엄마'가 '미옥'에게 받은 '나'의 편지를 뺏은 일로부터 시작된다.

③ '엄마'는 '나'의 이성 교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아버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④ '아버지'가 '엄마'에게 '갈취'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엄마'가 이 말을 되물으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⑤ '아버지'는 '엄마'가 편지를 뺏은 행동을 비난하며, '엄마'에게 '야만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03 '나'는 '엄마'에게 악을 쓰면 더 어린애 취급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여, 처음에는 저음으로 자신의 요구를 전했다. 그러다 상황이 악화되자 흥분하여 악을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신의 행동이 어린애 같았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아픔을 느낀 것이다.

내공 기르기

'엄마'에게 악을 쓰고 나니, '나'는 '내 발등을 내가 짚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고 했다. 여기에서 '내 발등을 내가 짚'었다는 것은 자신이 한 행동이 오히려 자신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을 때 자주 쓰는 표현이다. 번성기를 거쳐 어른스러운 저음의 목소리를 갖게 된 '나'는 이 목소리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진중하게 전달하고, '엄마'의 동의를 어느 정도 기대했을 거야. 그런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악을 쓰는 바람에 아직은 어린애 같은 모습을 '엄마'에게 들리고 만 게지. 이런 인물의 상황을 헤아려 본다면 '내 발등을 내가 짚는 것 같은 아픔'이란 표현에는 '나'가 악을 쓰며 어린애처럼 행동한 자신의 모습에 대한 후회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을 거야.

04 서술형 '나'가 며칠 사이에 기분이 최고에서 최악으로 곤두박질친 것은 '미옥'에게 답장을 받았다가, 이를 '엄마'에게 빼앗겼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	확인
'나'의 기분이 최고인 이유가 '미옥'에게 답장을 받아서임을 밝혀 썼다.	☐
'나'의 기분이 최악인 이유가 '엄마'에게 편지를 뺏겨서임을 밝혀 썼다.	☐
<조건>에 제시된 문장의 형식으로 썼다.	☐

내공 쌓기 7

23쪽 01 ④ 02 ⑤ 03 ①

01 '나'는 자신 때문에 부모님이 싸우자 내적 갈등을 겪다가, 상황을 회피하려고 자기 방에 들어가 버린다.

오답 풀이 ① '나'는 부모님이 싸우든지 말든지,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만 싶었다고 하며, 무엇보다 부모님이 싸우는 상황이 무서웠다고 말하고 있다.

② '나'는 부모님이 싸우는 상황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생각에 잠기며 고독감을 느낀다.

③ '나'는 '내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것이 틀림없으니 내게도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했다.'라며 자신에게도 싸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⑤ '나'는 '그런데 '갈취했다'는 말이 뭐가 어쨌다고 그 말에 그렇게 엄마는 분개하는 것일까.'라고 하며 '엄마'가 화를 내는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다고 여기고 있다.

02 '나'는 부모님의 싸움을 계기로 아이와 어른의 경계에 있는 자기 존재를 확인하면서 고독감을 느낀다. 이처럼 '나'가 자신의 존재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모습을 통해 이 작품의 성장 소설로서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성장 소설의 특징

- 유년에서 성인의 세계로 입문하는 인물이 겪는 내면적 갈등과 정신적 성장을 주된 내용으로 함.
- 지적, 도덕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는 어린아이 혹은 소년이 기성세대 혹은 세계 사이에서 겪는 갈등 상황이 드러남.
- 자아의 미숙함, 자신의 고유한 존재 가치와 세계의 의미 등을 깨닫는 것으로 끝을 맺음.

03 '나'는 '엄마'가 '아버지'와 싸운 후 속상해할 것이며, 자식 앞에서 쉽게 눈물을 보이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자리를 피해 준다. 이를 통해 '나'가 '엄마'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속이 깊은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내공 쌓기 8

25쪽 01 ③ 02 '엄마'와 '아버지'가 싸우면서 '아저씨'에 대한 말을 입 끝에도 올리지 않은 것은 '아저씨'가 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03 ② 04 ③

01 '나는 알고 있었다. 사실 엄마, 아버지가 저렇게 대립할 수 밖에 없는 밑바닥 감정에는 분명 아저씨의 존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을 통해 '나'는 '아저씨'가 집에 오래 머무는 상황을 부모님이 갈등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2 서술형 '나'는 '엄마'와 '아버지'의 싸움이 '아저씨'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엄마'와 '아버지'가 싸우면서 '아저씨'에 대한 말을 입 끝에도 올리지 않은 것은 '아저씨'가 지척에 있는 우사에서 거름을 내는 척하면서 집 안의 상황에 날날이 귀를 기울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아저씨'가 들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답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3 '나'는 '아버지'가 부르는데도 못 들은 척하는데, 이에 대해 '나'는 '엄마'를 지나치게 슬프게 만든 것에 대해 '아버지'가 지금 쯤 고통을 좀 느껴야 하지 않겠느냐는 무언의 압력 같은 것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의 행동에는 '엄마'를 슬프게 만든 '아버지'에 대한 '나'의 반항심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④ '나'는 '아버지'가 내 편을 들어준 것이 고맙고 한편으로는 통쾌하기까지 하였지만, '갈취'라는 말을 고집하는 모습은 사람을 질리게 하기에 충분했다고 하며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③ '나'는 '아버지'가 싸운 후 '엄마'가 혹시 울 수도 있음을 예상하고, 과수원으로 자리를 피해 주나 이는 '나'가 아버지가 부르는데도 못 들은 척 한 것과 무관하다.
 ⑤ '아저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아버지'가 못마땅할 수는 있지만, 이는 '나'가 '아버지'의 말을 모른 체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04 ㉡은 '아저씨'가 처음 '나'의 집을 방문했던 날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렸던 상과 달리, 초라한 상의 모습이다. 이는 '아저씨'를 더 이상 손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내공 쌓기 ㉢				
27쪽	01 ②	02 ①	03 ③	04 '엄마'의 빈자리가 크고 '엄마'가 그리워서, '미옥'과의 관계가 끝나 버린 것이 아쉽고 막막해서

01 '아버지'는 죄인이라고 하는 '아저씨'의 말을 부인하면서도 '아저씨'의 말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말을 잊지 못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엄마'는 이틀날도, 그 이틀날도 돌아오지 않았으며, 이는 전에 없던 일이라고 하였다.
 ③ '아버지', '아저씨', '나'는 '엄마'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남자 셋이서 밥을 해 먹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텔레비전을 보다 잠을 자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④ '나'는 '엄마'가 집을 나가는 강수를 써야만 '아버지'가 '아저씨'를 내보낼 것이라고 계산하여 집을 나간 것이라고 생각했다.
 ⑤ '아저씨'는 '아버지'에게 "나 때문에 제수씨가 집을 나간 게라면 정말 동생한테 미안하오.", "하아, 내가 죄인이오."라고 말하며, '엄마'의 가출이 자신 때문이라고 여기고 미안해하고 있다.

02 '나'는 '엄마'가 집을 나가는 강수를 써야만 '아버지'가 '아버지'의 중국 형님을 이제 그만 내보낼 것이라고 계산했을 것이며, 자신의 편지는 이미 시효가 지난 편지임을 확인하고 돌려준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내공 기르기

㉠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이 작품 속 이야기가 주인공인 '나'의 시점에서 전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봐. 결국 '나'가 판단하는 '엄마'의 소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

03 '미옥'이 보낸 편지에는 '네가 정말 나를 좋아한다면 오늘 학교 끝나고 교회 뒤 느티나무 밑으로 와. 그러면 네 마음을 받아 줄게.'라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그러나 '나'는 '미옥'이 보낸 편지를 늦게 보는 바람에 '미옥'이 편지에서 말한 날짜에 나가지 못하게 되고 '미옥'과의 관계가 저절로 끝나 버리고 만다.

04 서술형 '나'는 '엄마' 없는 집 안이 사람 사는 집 같지가 않다고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 또 이제 누구와의 결혼을 꿈꿀 수 있을지, '미옥'이 없는 빈자리를 채워 줄 여자에는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다.

평가 기준	확인
'나'가 '엄마'의 빈자리를 느껴 눈물을 흘리고 있음을 썼다.	☐
'나'가 '미옥'과의 관계가 끝난 것에 아쉬움을 느껴 눈물을 흘리고 있음을 썼다.	☐



내공 쌓기

10

29쪽

01 ④

02 ③

03 ‘거, 아저씨도 차암.’, “형님도 차암.”, “시숙님도 차암.”

01 '나'는 '엄마'와 '미옥'을 생각하면서 한숨을 쉰다. 그런데 자기와 같은 '아저씨'의 한숨 소리를 듣고, 마루로 나가서 '아저씨'의 가족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러나 '나'는 '아저씨'의 가족과 고향에 대한 이야기만 들을 뿐, 자신의 속깊은 고민이나 마음을 털어놓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나'는 '엄마'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져서 외롭고, '미옥'과의 관계가 끝난 것이 아쉬워 한숨을 쉰다.
 ② '아저씨'는 자신 때문에 '엄마'가 집을 나갔다고 생각하여 '나'의 가족에게 미안하고, 현재 상황이 답답하여 한숨을 쉰다.
 ③, ⑤ '나'는 자신과 같은 한숨 소리를 듣고, 마루로 나가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저씨'에게 그의 가족 이야기, 그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야기 등을 듣게 된다. 이러한 '아저씨'와의 대화는 '나'가 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02 '엄마'는 '아버지'와 싸운 후 집을 나간다. 이에 '아저씨'는 죄책감을 느끼고 '나'의 집을 떠나게 된다. 즉 '엄마'가 집을 나간 사건은 일가인 '아저씨'가 '나'의 집을 떠나는 결과를 불러온 것이다.

03 서술형 '아저씨'는 '나'의 집에 머물면서 '~도 차암.'과 같은 말투를 습관적으로 사용하였다. '나'의 가족들은 '거, 아저씨도 차암.', "형님도 차암.", "시숙님도 차암."과 같이 '아저씨'의 말투를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게 되는데, 이는 '나'의 가족들이 '아저씨'와 함께 지내면서 '아저씨'에게 어느새 익숙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나'가 '아저씨'의 말투를 따라한 말을 찾아 썼다.	☐
'아버지'가 '아저씨'의 말투를 따라한 말을 찾아 썼다.	☐
'엄마'가 '아저씨'의 말투를 따라한 말을 찾아 썼다.	☐

01 이 글은 청소년 서술자인 '나'의 눈을 통해 가족들이 일가인 '아저씨'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그림으로써 일가친척의 의미가 사라져 가는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답 풀이 ①, ⑤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하고 있다. 주인공 '나'는 작품 안의 보거나 말하는 이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며 등장인물이나 사건을 관찰하여 전달하고 있다.

②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아저씨'의 외로움을 이해하게 된다. 즉 이 글은 청소년인 '나'의 집에 일가인 '아저씨'가 찾아와 겪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나'가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③ 작가는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청소년인 '나'가 '아저씨'의 외로움에 공감하며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현대 사회에 만연한 가족 이기주의의 극복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참고 자료】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효과

- 주인공이 직접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
- 주인공이 독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말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독자는 친근감과 신뢰감을 느낌.
- 주인공의 성격이 여러숙하거나 순진할 경우 독자는 주인공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어 재미를 느낌.

02 '아버지'가 '아저씨'를 금세 잊는 모습은 일가친척의 의미가 퇴색한 현대 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03 '오리무중(五里霧中)'은 오 리나 되는 길은 안개 속에 있다는 뜻으로, 무슨 일에 대하여 방향이나 갈피를 잡을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아버지'는 '일가'라며 정성껏 대접했던 '아저씨'를 까맣게 잊은 듯한 모습을 보이며 '나'의 말에 무심하게 대답하고 있으므로, '아버지'의 대답에 더욱 갈피를 잡기 어렵다는 뜻으로 '오리무중'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답 풀이 ① 점입가경(漸入佳境): 가면 갈수록 경치가 더해진다는 뜻으로, 일이 점점 더 재미있는 지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쓰임.

③ 기고만장(氣高萬丈): 일이 뜻대로 되어 나가 썩썩한 기운이 대단하게 뻗침.

④ 진퇴양난(進退兩難):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궁지에 빠짐.

⑤ 후안무치(厚顔無恥): 뻔뻔스러워 부끄러워할 줄을 모름.

04 '나'는 "내가 내 외로움 때문에 울 때는 아직 그가 덜 컸다는 증거고 나와 상관없는 남의 외로움 때문에 울 수 있다면 이미 그가 다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선생님'의 말을 떠올리며, 자신이 '미옥' 때문에 울었던 일 년 전과 달리 '아저씨'의 외로움에 공감하여 울고 있음을 깨닫고 더는 어린애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과 ㉡ 모두 '선생님'에 의해 생생의 의미를 '나'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답 풀이 ①, ②, ③, ⑤ ㉠의 눈물은 '미옥'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게 원통하여 흘린 눈물이다. ㉡의 눈물은 '아저씨'의 외로움이 '나'에게 전해져 오며 흘린 눈물이다. '나'는 일 년 전에 흘린 눈물과 달리, 나와 상관없는 남의 외로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정신적으로 성장했음을 깨닫는다.

01 ④ 02 ④ 03 ① 04 '아저씨'가 '나'에게 북한식 사투리로 말을 걸자 간첩으로 오해하여 겁이 났기 때문이다. 05 ① 06 ⑤ 07 ① 08 ③ 09 ⑤ 10 ㉠: 이 싸움을 말려야 한다는 마음, ㉡: 그냥 도망치고만 싶은 마음 11 ② 12 ⑤ 13 ② 14 ① 15 ④ 16 ② 17 ②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18 절경이, 나상개, 토끼풀, 억새 등 2단계 19 ㉠: '미옥'이 '나'에게 보낸 편지, ㉡: 갈취, ㉢: '아저씨'의 존재('아저씨'가 '나'의 집에 오래 머무는 것) 3단계 20 일가친척의 의미가 점점 사라지는 현대 사회의 모습

01 '나'는 낯선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걸자, 타고 있던 자전거를 오솔길 한가운데다 뺑개쳐 놓고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이로 보아, '나'는 대범한 성격이 아닌 겁이 많고 소심한 성격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답 풀이 ① '나'는 '미옥'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고민을 털어놓는다. 이에 '아버지'는 '편지'를 보내 보라고 조언을 해 준다. 이를 통해 볼 때 '나'와 '아버지'는 격의 없이 지내는 사이임을 알 수 있다.

②, ③ '나'는 '미옥'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다. 보통 이성에게 관심과 호감이 생기는 시기는 사춘기 때이므로, '나'는 사춘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다.

⑤ '나'는 '미옥'에게 답장을 받고 신이 나서 엉덩이를 함뿔 들어 올리고 폐달을 힘차게 굴리거나, 낯선 남자를 간첩으로 오해하여 타고 있던 자전거를 길에 뺑개쳐 놓고 집 안으로 달려가는 등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모습을 보인다.

02 (가), (나)는 '미옥'에게서 답장을 받은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미옥'에게서 답장을 받은 날(봄 방학을 한 날) → '미옥'에게 편지를 보낸 날(지난주 월요일) → '미옥'에게서 답장을 받은 날(봄 방학을 한 날)"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답 풀이 ① (가)와 (나)에서 '나'나 '미옥'의 외양 묘사는 드러나 있지 않으며, '나'의 심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② (가)와 (나)에는 특별한 갈등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③ (가)와 (나)에는 '미옥'을 좋아하는 '나'의 마음과, '미옥'에게 받은 답장을 곧바로 뜯어보지 않는 '나'의 심리가 드러나 있을 뿐, '나'의 생각이 변하는 과정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가)와 (나)에는 '나'의 관점에서 사건이 서술되고 있다.

03 '나'는 '미옥'의 답장을 바로 뜯지 않은 까닭을 설레는 기분을 좀 더 오래 누리고 싶어서이기도 했지만, 밤에 조용히 이불 속에서 뜯어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답 풀이 ② '나'가 책상 서랍 속에 든 '미옥'의 편지를 발견하고 누가 볼세라 얼른 편지를 가방 안에 감추고 있는 것은 맞지만, 답장을 받은 사실을 누군가에게 들킬까 봐 편지를 바로 뜯어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 '나'는 학교를 나와서도 일부러 편지를 뜯어보지 않고 있다.

③ '나'는 전자 우편을 썼더라면 서로의 마음을 금방 알 수는 있어도 이렇게

설레는 기분 같은 건 느낄 수 없었을 거라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나'가 답장의 내용을 이미 짐작하고 있다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④, ⑤ '나'가 '아버지'에게 '미옥'으로부터 답장을 받았던 소식을 먼저 전하고 싶다가나 또는 설레는 기분을 오래 느끼기 위해서 최대한 늦게 편지를 열어 보라는 조언을 들었다는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04 서술형 '나'는 '미옥'에게서 답장을 받아 설레고 기분이 좋았으나 낯선 '아저씨'가 '나'에게 북한식 사투리로 말을 걸자 그를 간접으로 오해하여 겁이 났기 때문에 좋았던 기분이 사라진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나'가 '아저씨'를 간접으로 오해했음을 밝혀 썼다.	☐
'나'가 '아저씨'를 보고 '무서워하다', '겁이 나다'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답을 썼다.	☐

05 밥상이 들어오자 밥상 다리가 부러지겠다는 '아저씨'의 말을 통해 '엄마'가 '아저씨'를 손님으로 정성껏 대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ㄱ). 또 많이 드시라고 권하는 것이나 말을 놓으라고 하는 것에서 '아버지'가 '아저씨'를 형님으로 깎듯이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ㄴ).

오답 풀이 ㄷ. '아저씨'는 '나'의 집에서 받는 정성 어린 대접에 고향의 정을 느끼고 있으나 '아저씨'가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ㄹ. '나'는 "야야, 글라스 하나 가져오라우."라는 '아저씨'의 말에 맥주 유리컵을 가져오는 심부름을 하며, '아저씨'와 '아버지'가 나누는 대화의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

06 '나'와 '엄마'는 '일가'라며 찾아온 '아저씨'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그를 몰상식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일가 친척을 진정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나'와 '엄마'가 '아저씨'를 몰상식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이는 가족의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이 아니라 그 반대의 상황으로 해석해야 한다.

② (라)는 '일가'인 '아저씨'에 대한 '나'와 '엄마'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웃 간의 교류'는 이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③ (라)에는 '아저씨'를 몰상식하다고 표현하는 '엄마'와 그 말에 동조하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 있으므로, 이를 부모와 자식 간의 예의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나'와 '엄마'가 '아저씨'를 몰상식하다고 표현한 것은 '아저씨'가 '엄마'에게 이런저런 요구들을 하기 때문이므로, 이를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주의로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07 '나'는 '아저씨'가 '조선 사람의 예의범절'을 따지는 손님이라 신경이 쓰이고, 우리 식구만 있을 때처럼 말이나 행동이 자연스럽거나 자유롭지 못하여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오답 풀이 ② '나'는 '아저씨'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지, 애잔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다.

③ '나'는 '아저씨'가 내 말, 내 행동 하나하나에 '조선 사람의 예의범절'을 따지는 손님이라 오히려 더 신경을 쓴다고 하였으므로, 버릇없게 굴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④ '아저씨'가 하는 일은 '아버지'가 하는 일로, '아저씨'는 '아버지'의 작업복을 입고서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일꾼으로 들어온 사람처럼 굴고 있다고 하였다.

⑤ '나'가 '아저씨'가 떠나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 식구만 있을 때처럼 말이나 행동이 자연스럽거나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08 이 글의 보거나 말하는 이는 '나'로, '나'의 시선을 통해 사건이 서술되고 있다. 그러므로 '나'의 특성을 파악하면서 읽으면 소설의 분위기나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 전체를 볼 때, '나'의 '아저씨'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는 것은 하나 인물의 성격이 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성격이 변화하지 않는 것은 다른 등장인물 또한 마찬가지이다.

② 이 작품 전체를 볼 때,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작품 전체를 볼 때, '나'와 '엄마'의 갈등, '엄마'와 '아버지'의 갈등은 발생과 해결 과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⑤ 이 작품의 보거나 말하는 이는 주인공인 '나'이다. 이 작품에서 '나'는 대체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으며 자신의 심리를 꾸밈없이 드러내고 있다.

09 '나'는 악을 쓰면 더 어린애 취급을 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조용히 편지를 돌려달라고 하나, '엄마'가 편지를 압수한 이유를 솔직히 밝히지 않자 악을 쓰고 만다. '나'가 악을 써 놓고 나서 내 발등을 내가 찌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낀 것은 자신이 어린애처럼 행동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나'는 편지를 잘 간수하지 못해 압수한 것이라는 '엄마'의 말에 "그건, 저 손님 때문이었잖아!"라고 악을 쓰고 만다.

② '나'는 '내가 간수를 못해서 압수해 간 게 아니라, 내가 공부는 안 하고 여자에한테 신경 쓸까 봐 겁나서 그랬다고 엄마가 솔직히 말했으면 나는 끝내 악을 쓰는 우를 범하진 않았으리라.'라고 하였으므로 '엄마'가 밝힌 편지를 압수한 이유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나'는 목소리가 변하고 나서 좋은 점은 바로 이럴 때라며, 악을 쓰면 더 어린애 취급을 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공포의 저음'으로 조용히 편지를 돌려 달라고 한다.

④ '나'는 '엄마'가 '나'의 편지를 가져간 일을 계기로 '엄마'와 갈등하고 있다.

10 서술형 (나)에서 '나'는 '아버지'와 '엄마'의 싸움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것이 틀림없으니 이 싸움을 말려야 한다는 마음과 그 순간 그냥 도망쳐서 사라져 버리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㉔의 답을 '나'가 부모님의 싸움을 말려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내용으로 썼다.	☐
㉔의 답을 '나'가 도망치고 싶어 했다는 내용으로 썼다.	☐

11 '나'는 '엄마'와 '아버지'가 '아저씨'에 대한 말은 입 끝에도 올리지 않은 이유를 '아저씨'가 바로 지적에 있는 우사에서 거름을 내는 척하면서 집 안의 상황에 낯날이 귀를 기울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엄마'와 '아버지'는 '아저씨'가 떠나지 않고 오래 머물고 있는

것을 이유로 싸우고 있다.

③ '아저씨'가 우사에서 거름을 내는 등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를 '나'의 가족들이 고마워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아저씨'가 자신의 일로 '엄마'와 '아버지'가 싸운다는 것을 알게 하지 않기 위해 부모님은 '아저씨'에 대한 말을 올리지 않는 것이지, '아저씨'가 일하는 데 방해가 될까 봐 그런 것은 아니다.

⑤ '엄마'와 '아버지'는 '나'의 연애편지 문제로 '나'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고 자식 앞에서 크게 싸우고 있으며, '아저씨'에 대한 말을 올리지 않는 것 또한 '나'를 배려해서라고 보기 어렵다.

12 '아저씨'가 단둥에서 '외삼촌'과 기적적으로 만난 것은 맞지만, 한국에서 곤란을 겪다 만난 것은 아니다. '아저씨'가 '외삼촌'과 상봉하던 시기는 한국에 오기 전으로, 복선이 아주 곤란을 겪고 있을 때라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아저씨'의 '외삼촌'은 '막내 이모'가 먹을 것이 없어 죽자, 누이에게 여기서 더는 못 살겠다며 강 건너로 가겠다고 떠났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아저씨'의 '외삼촌'이 가난을 피해 고향을 떠났음을 알 수 있다.

② '아저씨'는 수십 차례 보낸 편지 중에 한 편지가 드디어 '외삼촌'에게 닿아 그를 단둥에서 만났다고 하였다.

③ '아저씨'의 '외할아버지'는 동북 지방 최고의 포수로, 산에서 내려올 때는 포획한 사냥물을 한 짐씩 메고 와서는 온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고 하였다.

④ '아저씨'의 '막내 이모'는 먹을 게 없어 바람벽 흠을 파먹다 죽었다고 하였다.

13 '나'는 일 년 전에는 '미옥'을 생각하며 굶은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똑같이 '미옥'을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는다며 이를 이상하게 여긴다. 이처럼 '나'는 '미옥'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과거와 달라진 것을 인식하고 있다.

14 '나'는 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미옥'과 '아저씨'를 들고 있다. 또한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물론 부부 싸움으로 인한 어머니의 가출 전일 것이다.'라고 고백하며 '엄마'가 가출한 일을 곱씹고 있다.

15 (나)~(마)에서는 등장인물의 모습을 통해 현대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고는 있지만, 이들을 희화화하지 않았다. 또한 독자에게 웃음을 주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나'가 '민지'라는 어린아이를 통해 깨달은 바를 전하고 있다.

② (가)는 '나'가 강원도 산골 제자의 집에서 만난 다섯 살배기 '민지'와의 경험담을 중심으로 사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나)~(마)는 '미옥'이 '나'에게 보낸 편지, '아저씨'가 우리 집에 오래 머무는 상황 등으로 인한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⑤ (가)의 '민지'는 잡초에 대한 '나'의 물음에 '꽃이야'라고 꾸밈없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나)~(마)의 '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순수한 청소년으로, 사건을 자신의 시각에서 바라보며 감정을 꾸밈없이 드러내고 있다.

16 '나'는 '잡초'를 '꽃'이라고 표현하는 '민지'의 순수한 마음을 지켜 주고 싶고, 속세에 때가 묻은 자신의 생각이 부끄러워서 차마 '그건 잡초야'라고 말하지 못한 것이다.

17 (라)에서 '나'는 모든 것은 '엄마'의 소원대로 되어 가는 셈이라며, '엄마'는 집을 나가는 강수를 써야만 '아버지'가 '아저씨'를 이제 그만 내보낼 것이라고 계산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또한 '미옥'에게서 온 편지를 이미 읽어 보고, '미옥'이 말한 '오늘'이 지났음을 확인하고 돌려준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오답 풀이 나. '엄마'가 '나'의 연애편지를 빼앗아 자식의 일에 간섭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라)에서 '나'는 '엄마'의 부당한 간섭을 '엄마'가 편지를 돌려준 이유로 언급하지 않았다.

ㄷ, ㄹ. '나'는 '엄마'가 '아저씨'를 내보내기 위해 '아버지'에게 강수를 둔 것이라고 '엄마'가 집을 나간 행위를 해석하고 있으므로, '엄마'가 '아저씨'에게 도움을 계속 받기를 원한다거나, '엄마'가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나갔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내용 기르기

'나'는 사건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며, '엄마'가 집을 나간 까닭을 추측하고 있어. 이 내용을 찾아봐.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18** (가)의 '나'는 속세의 때가 묻은 어른으로, '질경이, 나싱개, 토끼풀, 억새' 등을 '풀, 잡초'라고 여기며 사소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민지'는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하고 맑은 마음을 가진 아이로, '질경이, 나싱개, 토끼풀, 억새' 등을 '꽃'이라고 여기며 소중한 것으로 생각한다.

평가 기준	확인
제시된 지문에서 '질경이, 나싱개, 토끼풀, 억새'라는 표현을 찾아 썼다.	☐

2단계 **19** 두 인물이 겪는 갈등의 표면적 원인은 '미옥'이 보낸 편지를 '엄마'가 빼앗고 '아버지'가 '갈취'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나, '나'는 그 근본적 원인을 '아저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다)의 '엄마, 아버지가 저렇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밑바닥 감정에는 분명 아저씨의 존재가 작용하고 있다.'는 '나'의 서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㉓의 내용을 "미옥"이 "나"에게 보낸 편지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썼다.	☐
㉔의 내용을 "갈취"라고 썼다.	☐
㉕의 내용을 "아저씨의 존재" 또는 "아저씨가 '나'의 집에 오래 머무는 것"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썼다.	☐

3단계 **20** 이 소설에서는 '일가'인 '아저씨'를 불편해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아저씨'는 자신으로 인해 '나'의 가족들이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 쫓기듯 '나'의 집을 떠나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통해 작가는 일가친척의 의미가 퇴색한 현대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고자 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일가친척'의 의미가 점점 사라지는(퇴색한) 현대 사회에 대한 모습이라는 의미가 드러나도록 썼다.	☐
<조건>에 제시된 형식으로 썼다.	☐
70%절로 썼다.	☐

(2) 공감하며 듣기


내공 쌓기 ①

41쪽 01 ④ 02 ⑤ 03 ② 04 이해

01 '동생'은 '형'에게 '체육 선생님'이 자신에게 축구부에 들어올 것을 권유한 이야기를 꺼내며, 자신이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데 축구부에 들어가도 잘할 수 있을지를 묻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동생'은 '형'에게 축구부에 가입할지 말지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축구를 잘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에 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② '동생'은 자신이 운동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였으며, 운동을 잘 못한다고 표현하지는 않았다.

③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다는 '동생'의 생각은 대화 상황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⑤ '동생'은 '체육 선생님'이 축구부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는 내용만 이야기했을 뿐, 그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지는 않다.

02 '형'이 '동생'과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형'이 고민을 털어놓는 '동생'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동생'을 비난하는 듯한 태도로 말했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 줄 때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의 말을 듣고만 있으면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형'과 '동생'의 대화 상황에서도 '동생'은 '형'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고 '형'에게 조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형'은 '동생'이 고민이 있다고 하는데도 고개도 들지 않고 탄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형'에게 대화할 때에는 상대와 눈을 맞춰야 한 다거나 상대가 말을 걸면 하던 일은 잠시 멈춰야 한다고 조언할 수 있다.

③ '형'은 '동생'이 왜 고민하는지, '동생'의 심정이 어떠할지를 전혀 헤아리 지 않고 '동생'을 비난하는 듯한 태도로 자신의 생각만 말하고 있다. 그러므 로 '형'에게 상대의 심정이 어떠할지 헤아려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할 수 있다.

④ '형'은 '동생'을 무시하며 비난하는 듯한 태도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 로 '형'에게 상대를 비난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조언할 수 있다.

03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에는 상대의 말을 집중하여 듣고, 상대의 감정이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자신이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표현을 해 주어야 한다.

04 서술형 공감적 듣기는 상대의 생각이나 감정을 헤아려 이 야기함으로써 상대와 협력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의사소통 방식이다.


내공 쌓기 ②

43쪽 01 ③ 02 ④ 03 ④

01 '황희 정승'은 제사를 지낼지 말지를 묻는 두 사람의 속내 를 헤아려 첫 번째 사람에게는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답하고, 두 번째 사람에게는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고 답한다.

오답 풀이 ① '우유부단'이란 '어물어물 망설이거만 하고 결단성이 없음'을 이르는 말로, 이 일화에 나타나는 '황희 정승'의 모습을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②, ⑤ '황희 정승'은 두 사람의 경제력의 차이나 기분이 아니라 제사를 지 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것이나 아니냐를 고려하여 다르게 답을 한 것이다.

④ '황희 정승'이 모든 일에는 정해진 답이 없다는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기 위해서 두 사람에게 다른 답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2 이 대화에서 '민재'는 '윤하'에게 시험을 못 본 상황과 그로 인해 속상한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다. 그러나 '윤하'는 시험을 못 봐서 속상한 '민재'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제 를 돌리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윤하'는 시험을 못 봐서 속상한 '민재'에게 위로의 말 을 건네기는커녕 '민재' 때문에 자신까지 우울해진다고 말하며 떡볶이나 먹 으러 가자고 하고 있다. 따라서 '윤하'는 '민재'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민재'를 면박하며 화제를 돌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민재'는 자신의 슬픈 마음을 친구에게 털어놓았지만 위로받지 못하고 있 는 상황이므로, '윤하'와 대화를 나눈 후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03 공감적 듣기는 상대의 말을 분석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 니라, 상대의 생각이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듣기이다. 이러한 공감적 듣기는 상대가 편하게 이야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협력적 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해 준다.

오답 풀이 ㄱ. 공감적 듣기는 말하는 이가 대화를 이어가는 데에 도움이 줄 수 있지만, 상대가 대화 주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ㄷ. 상대가 채지 있게 말하는 것은 공감적 듣기의 효과와는 관련이 없다. 이 는 말하는 이가 가진 언어 능력이나 습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내공 쌓기 ③

45쪽 01 ⑤ 02 ④ 03 ⑤

01 '선생님'은 '민정'의 문제를 분석하거나 직접적으로 해결 방 법을 제시해 주지 않고 '민정'의 말을 들어 줌으로써 '민정'이 스 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민정'은 '선생님'과 대화 후 '도현'이 자신이 싫어서가 아 니라 '도현'의 내성적인 성격과 음모수를 건넸을 때의 상황 때문에 반응이 없었을 수 있음을 깨닫는다. 이를 바탕으로 돌만 있을 때 '도현'에게 다시 말 을 걸어 봐야겠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② '민정'은 '선생님'에게 '도현'과 친해지고 싶어 '도현'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지만 '도현'이 반응이 없어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고 있다.

④ '선생님'은 '민정'을 격려하고 '민정'의 말에 맞장구를 치는 등의 공감적 듣기 방법을 사용하여 '민정'이 계속 말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02 ④의 "그러니까 네 말은 나 때문에 속상하단 거구나."는 말하는 이의 말을 요약정리하고 반영한 말로, 적극적 들어 주기 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② 계속 대화를 이끌어 가도록 하는 말로, 소극적 들어 주기에 해당하는 말이다.

③ 맞장구를 치는 말로, 소극적 들어 주기에 해당하는 말이다.

⑤ 상대방에게 관심을 드러내어 말하는 이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자기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극적 들어 주기에 해당하는 말이다.

03 '윤하'는 노래 대회에 나갔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 속상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윤하'에게는 속상한 마음을 공감해 주고 위로하는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축집게 상수 예상 문제

본문 46~49쪽

- 01 ② 02 ④ 03 ③ 04 공감적 듣기 05 ⑤
06 ⑤ 07 ② 08 ③ 09 ⑤ 10 ④ 11 ④
12 ④ 13 ⑤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14 고개도 들지 않고 땀짓을 했다. / 상황이나 감정(기분)

2단계 15 •㉠과 ㉡이 해당하는 공감적 듣기의 방법: 소극적 들어 주기, •그 효과: 상대방에게 관심을 드러내어 말하는 이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자기 생각과 느낌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한다. **3단계** 16 그러니까 네 말은 노래 대회에 나가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 속상했던 말이구나. 등

01 (나)에서 '황희 정승'을 찾아온 첫 번째 사람은 제삿날인데 아내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며 그래도 제사를 지내야겠지 않느냐고 묻고 있고, 두 번째 사람은 제삿날인데 개가 새끼를 낳았다고 하며 그러니 제사를 지내면 안 되지 않느냐고 묻고 있다. 이와 같이 비슷한 고민 상담을 하는 듯 보이지만 둘의 말 속에 담긴 마음이 다른 것을 알아차린 '황희 정승'은 각자에게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즉, '황희 정승'은 상대의 처지와 심정을 헤아려 반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동생'은 '형'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 달라며, 자기가 축구부에 들어가도 잘할 수 있을지 '형'의 생각을 묻고 있다.

③ '황희 정승'은 두 사람의 처지와 생각을 고려하여 말하고 있으므로, 둘은 '황희 정승'과의 대화 내용에 모두 만족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④ '황희 정승의 부인'은 '황희 정승'이 두 사람의 비슷한 질문에 정반대의 대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황희 정승'에게 그 이유를 묻고 있다.

⑤ '남학생'의 말에는 자신이 겪은 일을 '여학생'과 공유하고 그 일로 인해 힘들었던 마음을 위로받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02 '동생'은 축구부 가입 문제로 '형'에게 조언을 구했으나 '형'이 '동생'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말했기 때문에 '형'과의 대화를 그만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형'은 축구부 애들이 실력이 대단하다거나 곧 시험인 점을 근거로 들며 '동생'에게 축구부에 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② '동생'은 '형'에게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조언을 구한 것이다.

③ '동생'은 자신이 원하는 답을 '형'이 해 주지 않아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난한 듯한 태도로 말했기 때문에 화를 낸 것이다.

⑤ '형'의 조언은 어떤 점에서는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때문에 '동생'이 화를 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

03 (가)에서 '형'은 '동생'에게 공감적 듣기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나)의 '황희 정승'은 두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비슷한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의 '형'에게 '동생'의 마음을 헤아려 대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형'이 '동생'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고 있지는 않다.

② '형'은 축구부 애들이 실력이 대단하다거나 곧 시험인 점을 근거로 들며 '동생'에게 축구부에 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의견을 상세히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형'이 축구부 가입원들의 실력이 대단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동생'에게 헛바람 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시험이 코앞이니 공부나 하라고 하는 것은 '동생'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형'이 '동생'의 장단점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아서 '동생'이 화가 났다고 보는 것은 '동생'을 비난하는 태도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동생'이 화를 내며 대화를 끝낸 것이다.

04 서술형 '여학생'은 '남학생'의 말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 태도로 대답을 하고 있어 '남학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 공감적 듣기란 상대의 생각이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듣기이다. 이러한 공감적 듣기는 상대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여 협력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해 준다. 따라서 '여학생'에게 필요한 태도는 공감적 듣기이다.

05 (가)의 '선생님'과 (나)의 '윤하'는 상대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를 분석하여 오류를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06 '민정'이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선생님'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7 '민정'은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도현'이 차분하고 조용하며,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임을 상기한다. 그리고 둘만 있을 때 다시 말을 걸어 봐야겠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러므로 이 대화 후에는 '민정'이 '도현'과 둘만 있을 때 '도현'에게 말을 걸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민정'은 '선생님'과 대화를 나눈 후 고민을 해결하고 있으므로 굳이 친구에게 다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필요가 없다.

③ '민정'은 '선생님'과 대화를 나눈 후 '도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있으므로 '도현'을 계속해서 오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민정'은 자신의 고민을 잘 들어 준 '선생님'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될 것이다.

⑤ '선생님'은 공감적 듣기 태도로 '민정'의 고민을 들어 주고 있으며, 이에 '민정'은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대화에서 '민정'이 무례한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으므로 '선생님'이 '민정'의 태도에 실망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8 '윤하'는 공감적 듣기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민재'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의 심정이나 상황을 헤아려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재'가 '윤하'의 관점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민재'는 '윤하'가 공감적 듣기를 함으로써 대화를 편하게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②, ④ '민재'는 자신의 말을 성심성의껏 들어 주는 '윤하'에게 친밀감을 느꼈을 것이며, 이는 둘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⑤ '민재'는 시험을 못 봐서 속상한 마음을 '윤하'의 공감적 듣기를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09 '윤하'는 시험을 못 봐 속상해하는 '민재'의 마음에 공감하며 '민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려 하고 있다. ⑤에서도 속상해하는 '민희'의 마음에 공감하는 태도와, '민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10 ㉠의 “그런데 민정아, 혹시 도현이가 어떤 성격인지 생각해 봤니?”는 적극적 들어 주기의 방법에 해당하는 말로, 상대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이다.

내용 기르기

〈보기〉에 제시된 조건을 주의 깊게 읽으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먼저, 적극적 들어 주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모두 찾고, 그중에 상대가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하는 ‘질문’ 형태의 말을 고르면 돼.

11 ‘선생님’은 ‘민정’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며 ‘민정’에게 말을 걸고 있다. 이는 소극적 들어 주기의 방법으로, 상대에게 관심을 드러내어 말하는 이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자기 생각과 느낌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준다.

12 〈보기〉의 ‘말하는 이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 주면’은 공감적 듣기 태도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상대와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공감적 듣기의 효과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공감적 듣기의 태도를 바탕으로 상대와 원활한 대화를 이끈 사람은 (나)의 ‘선생님’이다.

13 ‘선생님’은 ‘민정’과 ‘도현’이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 아니라, ‘민정’이 스스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14** (가)에서 ‘형’은 ‘동생’이 축구부에 들어가는 문제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고개도 들지 않고 탄짓을 했다. 또한 ‘동생’의 상황이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비난하는 듯한 태도로 이야기하여 ‘동생’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다.

평가 기준	확인
첫 번째 빈칸에 ‘고개도 들지 않고 탄짓을 했다.’의 내용이 드러나도록 썼다.	☐
두 번째 빈칸에 ‘상황, 감정, 기분’이란 단어가 드러나도록 썼다.	☐

2단계 **15** ㉠과 ㉡은 소극적 들어 주기의 방법에 해당한다. ‘선생님’은 이러한 듣기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민정’에게 관심을 드러내고, ‘민정’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자기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평가 기준	확인
㉠과 ㉡이 소극적 들어 주기의 방법에 해당한다는 것을 썼다.	☐
소극적 들어 주기의 방법의 효과를 바르게 썼다.	☐

3단계 **16** (다)의 ‘여학생’은 노래 대회에서 탈락하여 마음이 상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상대의 말을 요약정리하고 반영하는 방법을 활용하라는 〈조건〉에 따라 “그러니까 네 말은 ~구나.” 등과 같은 표현으로, ‘여학생’의 처지와 감정을 반영하여 간단하게 정리해 줄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상대의 말을 요약정리하고 반영하는 내용을 담아 ‘여학생’에게 할 수 있는 말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3) 책 속 인물과 대화하기

축전제 예상 문제

본문 51쪽

01 ② **02** ⑤ **03** 독서 일지 작성하기(쓰기) **04** ④
05 ⑤

01 이전에 읽었던 작품이라도 친구들과 함께 다시 읽으면 처음 읽었을 때는 몰랐던 점을 새롭게 알게 될 수도 있고, 이전과는 다른 감동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전에 읽었던 작품이라도 친구와 함께 읽을 작품으로 다시 선택할 수 있다.

02 책을 읽기 전에는 책의 내용을 아직 모르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읽을 책을 최종 선정했다면 해당 책의 제목, 차례, 삽화 등을 훑어보면서 앞으로 읽을 책의 내용을 예측해 보는 것이 ‘읽기 전 활동’으로 가장 적절하다.

03 **서술형** 독서 일지는 읽은 책의 내용을 일지의 형식으로 정리한 것을 말한다. 독서 일지를 작성하면 자신이 읽은 책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 이후에도 책의 내용을 쉽게 기억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읽을 책의 방향을 정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04 〈보기〉에서 ‘완’이라는 등장인물이 늘 혼자 외롭게 지내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눈물이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책 속 인물의 처지나 감정에 공감하며 읽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05 ㄷ~ㅁ은 등장인물에 관한 질문이지만, ㄱ, ㄴ은 이와 무관한 질문이므로 책 속 인물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에 적절한 주제로 보기 어렵다.

대단원 평가



- 01 ⑤ 02 ③ 03 ① 04 ② 05 나
가 공부는 안 하고 여자애한테 신경 쓸까 봐 겁나서 06 ②
07 ④ 08 '나'는 '엄마'를 지나치게 슬프게 만든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무언의 압력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09 ③ 10 ④ 11 ① 12 ② 13 ③
14 ④ 15 ① 16 ㉠: 꽃, ㉡: 풀, 잡초 17 ⑤
18 ③ 19 ⑤ 20 ③ 21 '황희 정승'은 첫 번째 사람이 "그래도 제사를 지내야겠지요?"라고 물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고 싶은 마음이라고 판단한 것이고, 두 번째 사람은 "개가 새끼를 낳았으니 제사를 지내면 안 되겠지요?"라고 물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 마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22 ③ 23 ⑤ 24 ④ 25 ④ 26 ③

01 '나'는 '아저씨'가 자기 집에 들어오자 비명을 지르고, '아니, 저 이상한 말 쓰는 아저씨가 미리 연락하고 오는 우리 집 손님이었단 말인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아저씨'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은 '엄마'이다.

오답 풀이 ① '나'의 가족들은 '아저씨'의 말이 길어지자, '아버지'는 소의 밥을 주지 못해 안절부절못하고 '엄마'는 과일을 핑계 삼아 일어나려고 하고, '나'도 탄생각을 하며 대화 상황을 피할 기회만 노리고 있다.
② (다)에서 '나'는 '아저씨'는 말하자면 한국에 돈을 벌러 온 '조선족' 이주 노동자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③ '아저씨'는 "아주머니, 안녕하십니까?"와 같이 북한식 사투리를 쓰고 있는데, '나'는 이러한 말투를 듣고 '저 이상한 말 쓰는 아저씨'라고 표현하고 있다.
④ '아저씨'는 '엄마'를 처음 뵈음에도 불구하고, "엔벤이라니요, 어째 한국 사람들은 중국서 왔다면 고저 다아 엔벤서 왔다고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뭐 그렇게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수씨."와 같이 능청스럽게 말을 건네고 있다.

02 (가)에서 '나'가 사실 '미옥'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미옥'을 좋아하는 마음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말은 직접적으로 쓰지 못하고, 편지 끝에 슬쩍 혹시 자신을 보고 싶은 마음은 없는지 물어보는 것으로 마음을 표현했다고 하였다.

03 (다)에서 '나'는 '아저씨'가 집에 찾아와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눈 날을 자신의 관점에서 회상하며, 이를 요약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04 '나'와 '엄마'는 '나'에게 온 '미옥'의 편지를 '엄마'가 빼앗은 일로 갈등하고 있다. '나'가 평소 애 어른에게 버릇없이 굴었다거나, 이를 '엄마'가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나'는 '미옥'에게 받은 편지를 '엄마'가 일방적으로 빼앗은 일을 두고 '엄마'와 갈등하고 있다.
③ '나'에게 '미옥'의 답장이 온 것을 '아버지'는 축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엄마'는 열여섯 살짜리한테 무슨 연애편지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는 '엄마'와 '아버지'가 갈등하는 이유로 작용한다.

④ '나'는 '엄마'와 '아버지'의 대립 상황에는 분명 '아저씨'의 존재가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⑤ '아버지'는 '나'에게 온 '미옥'의 편지를 '엄마'가 빼앗은 것을 알고, "여보, 당신 이제 보니 참 야만인이군그래. 아니, 어떻게 자식한테 온 편지를 갈취해?"라고 말하였다. 이에 '엄마'는 "가, 갈취? 당신 지금 나보고 갈취했다고 했어요?"라며 '아버지'에게 따지고 있다.

05 서술형 (가)에서 '나'는 '엄마'가 솔직하게 '내가 공부는 안 하고 여자애한테 신경 쓸까 봐 겁나서'라고 편지를 압수한 이유를 말했다면 악을 쓸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06 '나'는 '엄마'가 '미옥'의 편지를 빼앗은 것을 알고, 그럴 때 악을 쓰면 더 어린애 취급을 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공포의 저음'으로 편지를 돌려 달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엄마'에게 소리를 버럭 지르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편지를 돌려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나'는 '미옥'의 답장을 '엄마'가 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며, '엄마'가 무슨 의도로 질문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연기해야 한다.

③ '나'는 최대한 저음으로 차분하게 말하고자 했으나, '엄마'에게 화가 나자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지르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격앙되고 흥분된 어조로 연기해야 한다.

④ '아버지'는 '나'에게 연애편지가 온 것을 축하하고 있기 때문에 기분 좋은 표정을 지으면서 말해야 한다.

⑤ '엄마'는 '아버지'가 쓴 '갈취'라는 표현에 말까지 더듬고 있는 상황이므로, 당황스럽고 화가 나는 감정을 담아 연기해야 한다.

07 '아저씨'는 '엄마'가 집을 나간 것이 자기 탓이라고 여기며, 현재 자신의 처지가 답답하고 힘들어서 한숨을 내쉬었다.

오답 풀이 ①, ⑤ '나'와 '아버지'는 '엄마'가 과거에 집을 나갔을 때처럼 자신들이 아는 곳에 갔겠거니 여기고, 엄마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아저씨'와 함께 남아 셋이서 밥을 해 먹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을 잤다고 하였다.

② '나'는 '가만 생각해 보면 엄마, 아버지의 싸움이란 게 늘 그런 식이었다. ~ 그렇게 이따금 팽팽히 고집을 부리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엄마'와 '아버지'는 이전에도 종종 갈등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아저씨'는 "나 때문에 제수씨가 집을 나간 게라면 정말 동생한테 미안하오."라고 말하며, '엄마'의 가출을 자신의 탓으로 생각하였다.

08 서술형 '나'는 '엄마'가 자신에게 온 편지를 가져간 것을 '아버지'가 '갈취'했다고 했을 때는 통쾌함을 느꼈다. 그러나 '아버지'가 계속 '갈취'라는 말을 고집해서 '엄마'를 질리게 만들자, '엄마'를 지나치게 슬프게 만든 것에 대해 '아버지'가 지금쯤 고통을 좀 느껴야 하지 않겠느냐는 무언의 압력을 주기 위해 '아버지'의 말을 못 들은 척한다.

평가 기준	확인
'아버지'가 '엄마'를 슬프게 만든 것에 대해 반항하고 (무언의 압력을 주고) 싶었다는 내용을 썼다.	☐
제시된 문장의 형태로 썼다.	☐

09 <보기>는 보거나 말하는 이를 ‘아버지’로 바꾸어 서술한 것이다. 따라서 미성숙한 서술자인 ‘나’의 입을 통해 사건을 서술할 때보다 이야기의 분위기는 무거워지지만, ‘아버지’의 심리는 좀 더 자세히 드러난다.

10 집에 돌아오던 날, ‘엄마’는 역 개찰구에서 ‘아저씨’를 만난다. 이는 우연에 의한 것으로, ‘엄마’는 ‘아저씨’가 떠날 것을 미리 알고 돌아온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아저씨’는 ‘나’의 집에 더 머물고자 하였으나 ‘엄마’가 집을 나간 사건으로 떠밀리듯 ‘나’의 집을 떠나게 된다.

② ‘나’는 ‘아버지’에게 ‘아저씨’가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고 있으므로, 그가 사전에 알지 못했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나’는 ‘아저씨’가 떠났다는 말을 듣고 ‘엄마’를 돌아보는데, 이는 ‘아저씨’가 떠난 것에 대한 ‘엄마’의 반응을 살피기 위한 것이다.

⑤ ‘엄마’와 ‘아버지’의 근본적인 갈등 원인은 ‘아저씨’가 ‘나’의 집에 오래 머무는 것이므로, ‘아저씨’가 ‘나’의 집을 떠남으로써 ‘엄마’와 ‘아버지’의 갈등이 해결될 것임을 알 수 있다.

11 ‘아저씨’가 “저기 한가운데 무투팡자 한 채 짓고 내 평생 살았으면 좋았구나야.”라고 말한 것은 그의 소망을 드러낸 말이다. 그러므로 ‘무투팡자 한 채’는 그가 꿈꾸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볼 수 있다.

12 (마)에서 ‘나’는 작년 이맘때 ‘미옥’ 때문에 울었지만 지금은 나의 일가, 나의 당숙 때문에 울고 있는 자신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고 하였다. ‘나’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자신이 컸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선생님’은 자신의 외로움이 아니라 남의 외로움 때문에 울 수 있을 때 그가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선생님’이 말한 ‘내 외로움’은 ‘나’가 ‘미옥’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사건과 관련이 있으며, ‘남의 외로움’은 ‘아저씨’가 ‘나’의 집을 쫓기듯이 떠났던 사건과 관련이 있다.

13 (가)~(다)는 어린 서술자인 ‘나’의 관점에서 ‘아저씨’를 중심으로 일어난 가족 간의 갈등을 다루어, 가족 간의 이기주의가 만연한 현대 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는 일가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다. (라)에서는 다섯 살 어린아이인 ‘민지’의 순수한 관점을 통해 독자는 자신의 세속적인 모습을 돌아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다)는 소설 제목에 반어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라)에는 반어적인 표현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② (나)~(다)에 부모님의 갈등을 지켜보며 자기 존재와 정체성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주인공 ‘나’의 모습이 드러나 있으나, 부모님의 싸움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라)에는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지닌 ‘민지’를 보면서 세속적인 때가 묻은 자신을 성찰하는 ‘나’의 모습이 드러날 뿐, 특별한 갈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가)~(다), (라)는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

⑤ (가)~(다)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쓰인 소설로, ‘보거나 말하는 이’는 특정 인물이나 대상에 대한 생각을 자신의 관점에서 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라)의 ‘보거나 말하는 이’ 또한 ‘민지’에 대한 생각을 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14 (가)에는 ‘일가’라며 찾아온 ‘아저씨’가 ‘물상식’하다며, 빨리 떠나 주기를 바라는 ‘엄마’와 ‘나’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러한 태도는 ‘일가’를 진정한 가족으로 대하지 않는, 현대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15 성장 소설은 유년기에서 소년기를 거쳐 성인의 세계로 입문하는 과정에서 한 인물이 겪는 갈등을 통해 정신적 성장과 사회에 대한 각성 등의 과정을 담는 작품을 일컫는다. (나)~(다)에서 ‘나’는 자신이 속한 세계와 자신의 존재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다. ‘나’는 자신의 어린 시절이 원통하고 씁쓸하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어린 시절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린 시절을 안타까워할 만큼 자신이 성숙한 존재로 성장했다고 인식한 것이다.

16 **서술형** 이 시의 ‘나’는 ‘질경이 나싱개 토끼풀 억새……’를 ‘풀, 잡초’라고 여기며 사소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민지’는 같은 대상을 ‘꽃’이라고 여기며 가치를 부여한다. 이 시의 ‘나’는 이러한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지닌 ‘민지’를 통해, 세속적인 때가 묻은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에 ‘꽃’이라고 썼다.	☐
㉡에 ‘풀, 잡초’라고 썼다.	☐

17 ‘형’은 ‘동생’이 고민을 말할 때 고개도 들지 않고 탄짓을 하다가 ‘동생’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를 비난하듯이 말한다. 그러므로 둘의 대화는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①~④는 공감적 듣기가 잘 이루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이다.

18 ‘황희 정승’이 두 사람의 질문에 다르게 대답한 것은 그들의 질문 속에서 상대가 원하는 바를 파악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래도 제사를 지내야겠지요?”라고 묻은 첫 번째 사람은 제사를 지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제사를 지내면 안 되겠지요?”라고 묻은 두 번째 사람은 제사를 지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여 다르게 대답한 것이다.

19 ‘아버지’는 ‘나’의 사정이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자신의 관점에서 ‘나’를 판단하고 훈계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나’의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아버지’는 ‘나’의 말을 듣자마자 ‘나’의 상황이나 감정을 들여다볼 생각도 안하고 버릇없다고 혼을 내고 있다.

③ ‘아버지’는 ‘나’가 말을 꺼내자마자 ‘나’의 생각을 꾸짖으며 화를 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에게 편하게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④ 공감적 듣기는 상대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봄으로써 협력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해 준다. ‘아버지’는 ‘나’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나’를 판단하고 있다. 이에 ‘나’는 ‘아버지’에게 손님에 관한 말은 아예 꺼내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20 (가)의 ‘윤하’는 시험을 못 봐 속상하다는 ‘민재’의 상황이나 감정에 공감하지 않는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감적 듣기

태도를 보여 주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에 반해 (나)의 '황희 정승'은 제사를 지내는 문제를 묻는 두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각각 다른 대답을 하고 있다. 또 (다)의 '선생님'은 우울한 표정의 '민정'에게 공감적 대화를 시도함으로써 '민정'의 마음을 위로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러므로 (나)의 '황희 정승', (다)의 '선생님'은 공감적 듣기 태도를 보여 준 사람으로 분류해야 한다.

21 서술형 '황희 정승'은 조언을 구하러 온 두 사람에게 왜 다른 대답을 하느냐고 묻는 '부인'에게 사람에게 법보다 각자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그러라고 했을 뿐이라고 하였다. '황희 정승'은 두 사람의 질문에서 각자가 원하는 바를 헤아리고 이에 맞게 대답을 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그래도 제사를 지내야겠지요?"라는 말을 근거로 첫 번째 사람이 제사를 지내고 싶은 마음이라고 판단한 것임을 밝혀 썼다.	☐
"개가 새끼를 낳았으니 제사를 지내면 안 되겠지요?"라는 말을 근거로 두 번째 사람이 제사를 지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라고 판단한 것임을 밝혀 썼다.	☐

22 '민정'은 '선생님'이 "민정이가 도현이에게 좋은 감정이 있나 보다."라고 했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네. 어젯밤에는 잠도 설쳤어요."라며 '선생님'에게 '도현'을 좋아하는 감정을 드러낸다.

오답 풀이 ① '선생님'은 우울한 표정의 '민정'을 보고 얼굴이 안 좋아 보인 다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묻고 있다.

② '민정'은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냐고 묻는 '선생님'에게 아무 일도 없다고 말했다가 선생님의 계속된 관심에 "실은……."이라고 하며 '도현'과의 일을 털어놓고 있다.

④, ⑤ '민정'은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이 '도현'을 오해했을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도현'의 성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 '민정'은 다음에 둘 만 있을 때 다시 말을 걸어 봐야겠다는 결론을 내리며 미소를 띤다.

23 말하는 이의 말을 요약정리하고 반영하여 상대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듣기 방법은 적극적 들어 주기이다.

24 공감적 듣기란 상대의 말을 분석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생각이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듣기를 말한다.

25 등장인물에 공감하며 책을 읽으면 그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지, 감정은 어떻게 생각하면서 책을 읽게 된다. 그러므로 인물의 상황이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독자는 감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26 독서 일지는 책을 효과적으로 읽고 기억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므로, 한 번에 몰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날그날 읽은 부분에 대해 작성하여야 한다.

2. 놀라운 한글, 바른 말글살이



(1) 한글의 창제 원리



내공 쌓기 ①

65쪽

01 ⑤

02 ③

03 ①

01 '세종 대왕'은 모든 백성이 삼강오륜과 같은 유교의 기본적인 도리가 적힌 책을 읽고, 이를 배우기를 바라며 한글을 창제하였다. 즉 한글 창제 이전에 책을 읽지 못하는 백성은 유교의 기본적인 도리를 제대로 배울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책을 읽지 못하는 백성은 유교의 기본적인 도리를 암기해야 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이 글에서 양반이 아니고서는 글자 수가 수만 자에 이르는 어려운 한자를 배울 기회가 없었다고 하였다. 특히 가난한 일반 백성은 온종일 일하느라 한자를 배울 시간조차 낼 수 없어 백성 대부분이 글을 읽지 못했고, 그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적도 많다고 하였다.

③, ④ 한글 창제 이전에는 우리말을 표기하는 글자가 없어서 중국의 글자인 한자를 빌려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말과 중국어는 말소리와 문장 구조가 달라서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었고 문자로 우리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어려웠다.

02 신하 중 일부는 '세종 대왕'의 한글 창제에 반대하였는데, 그 이유는 백성이 글을 알고 지식을 쌓게 되면, 그들을 통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세종 대왕'은 이러한 우려를 무릅쓰고 한글을 창제한 것이므로 한글을 백성을 통치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창제하였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세종 대왕'은 백성 대부분이 글을 읽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평생 책을 한 권도 읽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하였다.

② '세종 대왕'은 우리말과 중국어가 말소리와 문장 구조가 달라서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④ '세종 대왕'은 모든 백성이 책을 읽으면서 삼강오륜과 같은 유교의 기본적인 도리를 배우고 지혜로워지길 바랐다. 즉 '세종 대왕'은 백성이 나라를 이루는 바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글자를 깨우치고 지혜로워져야 나라도 튼튼해질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⑤ '세종 대왕'은 글자 수가 수만 자에 이르러 배우기 어려운 한자와 달리 누구나 쉽게 배우고 편히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고자 하였다.

03 자주정신은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일어서려는 마음을 의미한다. 한글을 만들기 전에는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해 중국의 글자인 한자를 빌려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세종 대왕'은 ㉠과 같이 중국의 말과 우리말의 차이를 인식하고, 우리만의 문자를 만들 필요성을 느껴 한글을 창제한다. 그러므로 ㉠에는 한글의 창제 정신 중, 자주정신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내공 쌓기 2

67쪽

01 ④

02 ①

03 ④

04 상형의 원리

01 한글 자음의 기본자는 소리를 내는 기관의 움직임이나 모양을 본뜬 것이다. 이 중 ‘ㅅ’은 이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오답 풀이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①), ‘ㄴ’은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②), ‘ㄹ’은 입의 모양(③), ‘ㅇ’은 목구멍의 모양(⑤)을 본뜬 것이다.

02 ㉠은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으로 이를 본뜬 자음 기본자는 ‘ㄴ’이다. ㉡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으로 이를 본뜬 자음 기본자는 ‘ㄱ’이다. ‘ㄴ’과 ‘ㄱ’이 모두 사용된 단어는 ‘눈곱’이다.

03 한글의 모음 기본자는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든 것으로 ‘ㆍ’는 하늘의 둥근 모양을, ‘ㅡ’는 땅의 평평한 모양을, ‘ㅣ’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뜬 것이다(ㄴ). 또 ‘ㆍ’는 혀가 오그라들고 깊게 나는 소리를, ‘ㅡ’는 혀가 조금 오그라들고 깊지도 얕지도 않게 나는 소리를, ‘ㅣ’는 혀가 오그라들지 않고 얕게 나는 소리를 표현하고 있다(ㄹ).

오답 풀이 ㄱ. 한글은 말소리를 기호로 나타낸 표음 문자로, 하나하나의 글자가 일정한 뜻을 나타내는 표의 문자라 할 수 없다.

ㄴ. 한글은 다른 글자를 모방하지 않고 새롭게 처음으로 만들어 낸 독창성을 지닌 글자이다.

04 서술형 이 글을 통해 한글의 자음 기본자는 소리를 내는 기관의 움직임이나 모양을 본뜬 것이고, 모음 기본자는 하늘과 땅, 사람의 모양을 본뜬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자음과 모음의 기본자는 모두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내공 쌓기 3

69쪽

01 ③

02 ④

03 ③

04 ㉠: 자음자 둘을

위아래로 잇대어 쓰는 방법, ㉡: 자음자 둘 이상을 옆

으로 나란히 쓰는 방법 05 ③

01 ‘ㅋ’은 기본자 ‘ㄱ’에 획을 더해 만든 글자이고, ‘ㅈ, ㅊ’은 기본자 ‘ㅈ’에 획을 더해 만든 글자이며, ‘ㅎ’은 기본자 ‘ㅇ’에 획을 더해 만든 글자이다. 그러나 ‘ㅅ’은 기본자이므로 가획자에 해당하는 글자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가획자는 기본자에 획을 더해서 만드는 가획의 원리에 따라 만든 글자를 말한다.

② 이체자를 제외한 자음 가획자는 획을 하나씩 더할 때마다 소리가 더 세지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글자 모양과 소리가 관련이 있다는 특성을 드러낸다.

④ 기본자 ‘ㄹ’에 획을 더하여 만든 가획자가 ‘ㄴ, ㄷ’이다. 획을 하나씩 더할 때마다 소리가 더 세지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기본자인 ‘ㄹ’보다 가획자 ‘ㄴ, ㄷ’의 소리가 더 세다.

⑤ 기본자 ‘ㄴ’과 이에 획을 더하여 만든 가획자 ‘ㄷ, ㄹ’은 모두 혀가 윗잇몸에 붙는 소리이다. 그러므로 모양도 비슷하다.

02 이체자 ‘ㅇ, ㄹ, ㅅ’은 기본자 ‘ㅇ, ㄴ, ㅅ’에 각각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이다. 그러나 가획의 의미, 즉 가획 이전의 기본자와 비교하여 소리가 세진다는 특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글자이다.

오답 풀이 ① ‘ㅇ, ㄹ, ㅅ’이 ‘ㅇ, ㄴ, ㅅ’에 각각 획을 더하여 만든 이체자에 해당한다. ‘ㅎ’은 ‘ㅇ’에 획을 더하여 만든 가획자이다.

②, ③ 이체자도 획을 더하는 가획의 과정을 거쳐 만든 글자이다.

⑤ 한글은 가획, 상형, 합성, 그 밖의 방법을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두 동일한 원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또한 이체자는 가획의 과정을 거쳐 만들었지만, 가획자와 달리 소리의 세기는 세지지 않기 때문에 예외를 보여 주는 글자이다.

03 모음 재출자는 기본자를 한 번만 합성하여 만든 초출자에 ‘ㆍ’를 다시 합성하여 만든 글자로 ‘ㅗ, ㅛ, ㅜ, ㅠ’가 있다.

04 서술형 이 글을 통해 ㉠은 ‘ㅁ, ㅂ, ㅅ, ㅈ’에 ‘ㅇ’을 위아래로 잇대어 쓰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글자이며, ㉡는 자음자 두 글자, 또는 세 글자를 옆으로 나란히 붙여 쓰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글자임을 알 수 있다.

05 가획자는 획을 하나씩 더할 때마다 소리가 더 세지는 특성이 있다. ‘ㅋ’은 ‘ㄱ’에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로, ‘ㄱ’보다 거센 느낌을 준다.

오답 풀이 ① 모음의 차이로 단어가 달라지는 것을 드러낸 것으로, 가획의 원리와는 관련이 없다.

② 두음법칙이 적용된 단어와 그렇지 않은 단어를 나타낸 것으로, 가획의 원리와는 관련이 없다.

④, ⑤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으로 인한 느낌의 차이를 드러낸 것으로, 가획의 원리와는 관련이 없다.



내공 쌓기 4

71쪽

01 ④

02 ③

03 나는 집에 바로 갔다. / 단어

나 문장의 뜻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문장을 읽기가

편하다. 등 04 ④

01 한글은 독창성이 뛰어나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글자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글자로, 다양한 측면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한글이 세계의 여러 언어를 번역하기에 가장 적합한 문자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학생 1’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한글을 사용하고 글을 못 읽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하였으므로, 한글이 우리나라 국민의 문맹률이 적은 데 기여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② ‘학생 2’는 한글은 24개의 자모만으로 일만 개 이상이나 되는 글자를 만들 수 있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글자라고 하였다.

③ ‘학생 2’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훌륭한 문자라는 평이 자자하다고 하였다.

⑤ ‘세종 대왕’은 중국 문자에 기대어 살았던 우리가, 우리만의 고유한 문자로 언어생활을 하면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니 참으로 대견하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한글은 우리만의 고유한 문자임을 알 수 있다.

02 한글은 음소 단위가 아니라, 자음자와 모음자를 합쳐서 음절 단위로 모아쓰는 방식으로, 자음과 모음이 한 덩어리로 소리나는 말소리의 특성을 담은 것이다.

오답 풀이 ① 한글은 다른 문자와 다르게 '강'이라는 단어를 'ㄱㅏㅇ'이라고 풀어쓰지 않고 '강'처럼 모아쓴 것이라 하였다.

②, ④, ⑤ '세종 대왕'은 사람의 말소리를 자음과 모음으로 나눌 수 있으며 말을 할 때는 이들이 한 덩어리로 소리 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을 문자에 담기 위해 한글을 음절 단위로 모아쓴 것이라고 하였다.

내공 기르기

초성, 중성, 종성을 늘어놓지 않고 자모를 모아쓰면, 음소를 분석하지 않아도 음절 단위로 의미를 빠르게 인식할 수 있지.

03 서술형 제시된 문장은 풀어쓰기 방식으로 쓴 것이다. 이를 모아쓰기로 바꾸면 '나는 집에 바로 갔다.'이다. 이를 통해 소리를 내는 단위인 음절로 모아쓰면 읽는 것이 더 편하고, 그 의미를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모아쓰기 방식으로 '나는 집에 바로 갔다.'라는 문장을 썼다.	☐
문장을 읽기 쉽거나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편하다는 등의 장점을 알맞게 썼다.	☐

04 한글의 자음자 14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이고, 모음자 10개는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이다. '·'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있었으나 지금은 쓰이지 않는다.

종합예상 문제

본문 72~75쪽

- 01 ④ 02 ④ 03 백성이 글자를 깨우치고 지혜로워져야 나라도 튼튼해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04 ① 05 ⑤
06 ⑤ 07 ⑤ 08 소리가 더 세지는 09 ③ 10 ③
11 ⑤ 12 ㉠: 음소, ㉡: 음절 13 ② 14 ②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15 ㉠: 가획의 원리, ㉡: 상형의 원리, ㉢: 상형의 원리, ㉣: 합성의 방법 **2단계 16** 가획자는 기본자에 획을 더해서 만든 글자를 의미하는데, 획을 더하면 소리가 더 세지는 특성이 있다. **3단계 17** 한글 모음은 한 글자가 하나의 소리로 발음되는 반면, 로마자의 모음은 한 글자가 다양한 소리로 발음된다. 이처럼 한글은 문자와 소리가 일치하여 기계 번역이나 음성 인식 등에 유리하다.

01 이 글에는 한글 창제 이전의 문자 생활과 '세종 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가 드러나 있다. 그러나 한글 창제 이후의 문자 생활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② (가)에서 한 나라의 군주인 '세종 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에서 신하 중 일부는 중국의 반발을 염려하고, 백성을 통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글 창제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⑤ (가)에서 양반이 아니고서야 어려운 한자를 배울 기회가 없었고, 특히 가난한 일반 백성은 온종일 일하느라 한자를 배울 시간조차 낼 수 없었다고 하였다.

02 글자를 알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많았던 것은 일반 백성이다. 당시에는 우리 고유의 문자가 없어 수만 자에 이르는 중국의 한자를 사용했는데 일반 백성은 한자를 배울 시간조차 없어 주로 양반이라는 한정된 계층에서만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우리말을 표기하는 고유의 글자가 없어서 중국의 글자인 한자를 빌려 썼다고 하였다.

② (나)에서 글자를 모르니 평생 책을 한 권도 읽지 못한 백성도 많았다고 하였다.

③ (가)에서 한자는 글자 수가 수만 자에 이르는데 양반이 아니고서야 그 어려운 한자를 배울 기회가 없었다고 하였다.

⑤ (가)에서 우리말과 중국어는 말소리와 문장 구조가 달라서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었다고 하였다.

03 서술형 '세종 대왕'은 백성이 글을 알고 지식을 쌓게 되면, 그들을 통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일부 신하의 염려와 달리, 백성이 글자를 깨우치고 지혜로워져야 나라도 튼튼해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한글을 창제했다.

평가 기준	확인
'세종 대왕'이 백성이 글자를 깨우치는 일이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일이라 생각했음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4 우리말과 중국어는 말소리와 문장 구조가 달라서 중국의 글자인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한 것(㉠)은 자주정신을, 백성이 글자를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배우지 못하는 것을 가엾게 여긴 것(㉡)은 애민 정신을,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쓰기 편한 글자를 만들기로 결심한 것(㉢)은 실용 정신을 드러낸다.

05 이체자에 속하는 'ㅇ, ㄹ, ㅅ'은 'ㅇ, ㄴ, ㅅ'에 각각 획을 더하는 가획의 과정을 거쳤지만 가획의 의미, 즉 소리의 세기가 세진다는 특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점에서 따로 이체자로 부르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세종 대왕'은 소리를 내는 발음 기관의 움직임이나 모양을 본떠 자음자의 기본자(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를, 기본자에 획을 더해서 가획자(ㄱ → ㅋ / ㄴ → ㄷ, ㅌ / ㅁ → ㅂ, ㅍ / ㅅ → ㅈ, ㅊ / ㅇ → ㅎ, ㅎ)를 만들었다.

③ 가획자는 획을 하나씩 더할 때마다 소리가 더 세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글자 모양과 소리가 관련이 있다. 아울러 비슷한 발음 기관을 사용하는 같은 계열의 글자는 모양도 비슷하다.

06 ①~④는 상형의 원리를 활용하여 만든 기본자, 해당 기본자에 획을 더해 만든 가획자가 연결되어 있다. ⑤의 ‘ㄹ’은 ‘ㄷ’의 가획자, ‘ㅅ’은 ‘ㅈ’의 가획자로 ⑤는 가획자끼리 연결되어 있다.

07 ‘ㄱ’은 혀가 오그라들고 깊게 나는 소리, ‘ㄴ’은 혀가 조금 오그라들고 깊지도 얕지도 않게 나는 소리, ‘ㄷ’은 혀가 오그라들지 않고 얕게 나는 소리를 표현한 글자이다. 비슷한 발음 기관을 사용하는 같은 계열의 글자는 ‘ㄱ, ㅋ’, ‘ㄴ, ㄷ, ㅌ’과 같은 자음자에 대한 설명이다.

08 서술형 가획자는 기본자에 획을 하나씩 더해서 만든 것이다. 가획자는 획을 하나씩 더할 때마다 소리가 더 세지는 특성이 있다.

평가 기준	확인
가획자의 소리가 더 세지는 특성을 3어절로 썼다.	☐

09 ‘ㅅ’은 초출자 ‘ㅈ’에 ‘ㄹ’을 다시 합성하여 만든 재출자 ‘ㅆ’에 ‘ㄹ’을 더하여 만든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기본자 ‘ㄱ’과 ‘ㄴ’의 합성으로 ‘ㄷ, ㄹ’을 만들었다.
 ② 초출자 ‘ㄱ, ㅋ, ㆁ, ㄷ’에 ‘ㄹ’을 다시 합성하여 재출자 ‘ㅅ, ㅆ, ㅈ, ㅊ’을 만들었다.
 ④, ⑤ ‘ㅅ, ㅆ, ㅈ, ㅊ’과 ‘ㅈ, ㅊ’에 다시 ‘ㄹ’을 더하여 ‘ㅆ, ㅊ, ㅈ, ㅊ, ㅆ, ㅊ’ 등과 같은 글자를 만들었다.

10 자음자 둘 이상을 써서 만든 글자에는 자음자 둘을 위아래로 잇대어 쓰는 방법으로 만든 ‘ㅁ, ㅂ, ㅍ, ㅅ’, 자음자 둘 이상을 옆으로 나란히 쓰는 방법으로 만든 ‘ㅃ, ㅅ, ㅆ, ㅈ, ㅊ’과 ‘ㅄ, ㅅ, ㅆ’과 같은 글자가 해당한다. 이 중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음자에 포함되는 글자는 ‘ㅆ’이다.

11 (다)에서 ‘세종 대왕’은 다른 문자와 다르게 한글을 모아쓰도록 한 것은 말소리의 특성을 문자에 담고 싶었기 때문이라 하였다. 사람의 말소리는 자음과 모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실제로 말할 때에는 이것들이 한 덩어리로 소리가 난다고 하였다.

12 서술형 (다)의 내용으로 보아 한글의 글자는 음소 단위로 만들었지만, 이를 적을 때에는 소리를 내는 단위인 음절 단위로 모아써 씀을 짐작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에 들어갈 말을 ‘음소’라고 썼다.	☐
㉡에 들어갈 말을 ‘음절’이라고 썼다.	☐

13 한글은 자음자와 모음자의 수가 비슷하여 컴퓨터 자판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자음자와 모음자를 적절히 배치할 수 있다. 따라서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 가며 글자를 입력할 수 있으므로 타자 속도가 알파벳보다 훨씬 빠르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타자 속도를 예로 들어 한글은 컴퓨터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처럼 컴퓨터와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하였다.

③ (가)에서 정보화 사회에서는 공개된 정보를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하고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④ (가)에서 한글은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 가며 글자를 입력할 수 있어 타자 속도가 알파벳보다 훨씬 빠르다고 하였다.

⑤ (나)에서 한글은 8개의 기본자를 바탕으로 12개의 조작 단위 안에 자모를 배열하여 입력 속도가 다른 문자보다 훨씬 빠르다고 하였다.

14 이 글은 컴퓨터 타자 속도가 빠른 것과 휴대 전화 자판에서 문자 메시지 입력 속도가 빠른 것, 문자와 소리가 일치하여 기계 번역 및 음성 인식에 있어 유리한 점과 같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한글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있다.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15 ㉠ ‘ㅂ’은 ‘ㅁ’에 획을 더하여 만든 것이다.(가획의 원리) ㉡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만든 것이다.(상형의 원리) ㉢ ‘ㄱ’은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떠 만든 것이다.(상형의 원리) ㉣ ‘ㅈ’은 ‘ㅈ’에 ‘ㄹ’을 합성하여 만든 것이다.(합성의 방법)

평가 기준	확인
㉠이 가획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글자임을 썼다.	☐
㉡이 상형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글자임을 썼다.	☐
㉢이 상형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글자임을 썼다.	☐
㉣이 합성의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글자임을 썼다.	☐

2단계 16 가획자는 원글자에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로, 획을 더하면 소리의 세기가 세진다는 특성이 있다. ‘ㄱ’에 획을 더하여 만든 ‘ㅋ’은 ‘ㄱ’보다 소리가 더 세지므로 ‘덜커덩’과 ‘덜커덩’을 비교했을 때 ‘덜커덩’은 의미상 더 거센 느낌을 준다.

평가 기준	확인
가획자가 기본자에 획을 더해서 만든 글자임을 썼다.	☐
가획자가 획을 더하면 소리의 세기가 세진다는 특성이 있음을 썼다.	☐

3단계 17 한글 모음자의 경우 한 가지 소리만으로 발음되고, 로마자의 모음자는 한 글자가 다양한 소리로 발음된다. 이와 같은 문자와 소리의 일치성은 기계 번역이나 음성 인식 등 한글을 정보화할 때 유리하다.

평가 기준	확인
로마자와 비교하여 문자와 소리가 일치한다는 한글의 특성을 썼다.	☐
기계 번역이나 음성 인식에 유리함을 썼다.	☐

내용 기르기

‘ㅈ’은 ‘가족, 나비, 박수, 자전거’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모두 똑같이 ‘[ㅈ]’로 발음돼. 그런데 ‘a’의 발음은 ‘almond[아몬드]’에서는 ‘[ㅈ]’로, ‘about[어바웃]’에서는 ‘[ㅈ]’로, ‘apple[애플]’에서는 ‘[ㅈ]’로, ‘able[에이블]’에서는 ‘[에이]’로, 각각 그 발음이 달라.

(2) 올바른 발음과 표기



내공 쌓기 ①

79쪽

01 ④

02 ①

03 ③

01 표준 발음법은 발음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 아니라, 표준어를 발음할 때의 표준을 정한 규범이다. 올바른 발음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규범이므로 이 원칙에 따라 발음해야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02 받침이 있는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앞의 받침을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꽃이’는 [꼬치]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② ‘물’은 흘받침 ‘ㄹ’에 ‘을’이라는 조사가 결합되는 경우이므로 ‘ㄹ’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무를]로 발음해야 한다.

③ ‘빛’은 흘받침 ‘ㅌ’에 ‘을’이라는 조사가 결합되는 경우이므로 ‘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비출]로 발음해야 한다.

④ ‘집’은 흘받침 ‘ㅂ’에 ‘은’이라는 조사가 결합되는 경우이므로 ‘ㅂ’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지븐]으로 발음해야 한다.

⑤ ‘웃’은 흘받침 ‘ㅊ’에 ‘이’라는 조사가 결합되는 경우이므로 ‘ㅊ’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오시]로 발음해야 한다.

03 우리말의 받침소리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받침 ‘ㄱ, ㄴ, ㄷ’은 대표음 [ㄱ]으로, ‘ㄹ, ㅁ, ㅂ’은 대표음 [ㄹ]으로 발음한다. 그러므로 ‘곧[곧]’(①), ‘빛[빔]’(②), ‘낮[남]’(④), ‘끝[곤]’(⑤)은 발음되는 받침이 모두 ‘ㄷ’인 데 반해, ‘앞[압]’은 발음되는 받침이 ‘ㅂ’이다.



내공 쌓기 ②

81쪽

01 ④

02 ①

03 ②

04 단어의 첫음절 이

외의 ‘의’는 [ㅣ]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규정과 조사 ‘의’는 [ㅣ]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규정에 의해 [민주주의에 의이]로 발음한 것이다.

01 겹받침 ‘ㅈ’은 첫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훤다’는 [훈따]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⑤ 겹받침 ‘ㄲ’, ‘ㅃ’, ‘ㄴ’은 모두 첫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넋’은 [녁]으로, ‘값’은 [갑]으로 ‘외곶’은 [외곶]로, ‘없다’는 [업따]로 발음해야 한다.

02 겹받침 ‘ㄹ’은 두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발음하므로 ‘닭’은 [닥]으로 발음해야 한다. 겹받침 ‘ㅈ’, ‘ㅊ’은 첫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발음하므로 ‘여덟’은 [여덟]로, ‘앉았다’는 [안잡따]로 발음해야 한다.

03 겹받침 ‘ㄲ’, ‘ㅃ’, ‘ㄴ’, ‘ㄷ’은 모두 첫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발음하지만, ‘ㅈ’은 두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발음한다. 그러므로 ‘삶다’는 [삼따]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뭇’은 [목]으로 발음한다.

③ ‘짤다’는 [짤따]로 발음한다.

④ ‘훤다’는 [훈따]로 발음한다.

⑤ ‘엎다’는 [언따]로 발음한다.

04 서술형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원칙에 의해 ‘민주주의’의 ‘의’를 [ㅣ]로, ‘의의’의 두 번째 음절 ‘의’를 ‘이’로 발음한 것이며, 조사 ‘의’는 [ㅣ]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규정에 의해 ‘민주주의의’의 조사 ‘의’를 ‘에’로 발음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규정을 밝혀 썼다.	☐
조사 ‘의’는 [ㅣ]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규정을 밝혀 썼다.	☐



내공 쌓기 ③

83쪽

01 ③

02 ②

03 ⑤

04 ②

01 한글 맞춤법은 한글로써 우리말을 표기하는 규칙을 정한 규범이다. 표준어를 발음할 때의 표준을 정한 규범은 ‘표준 발음법’이다. ‘한글 맞춤법’과 ‘표준 발음법’은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오답 풀이 ①, ⑤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표기하는 규칙으로,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④ 한글 맞춤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적으면, 개인마다 다르게 표기하여 그 의미에 혼동을 주는 일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한글 맞춤법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02 제시된 문장에서 표기와 소리가 일치하는 것은 ‘나는’, ‘본’, ‘하얀’이며, 일치하지 않는 것은 ‘길울’, ‘견다가’, ‘꽃의’, ‘이름이’, ‘궁금했다’이다.

내공 기르기

‘길울’은 [기룰]로, ‘견다가’는 [견따가]로, ‘꽃의’는 [꼬치/꼬체]로, ‘이름이’는 [이름미]로, ‘궁금했다’는 [궁금헨따]로 발음해. 즉, 이 단어들은 표기와 소리가 일치하지 않아.

03 한글 맞춤법 규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근본 원칙에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준어의 발음 형태대로 적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만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꽃’이라는 단어는 ‘꽃이[꼬치]’ ‘꽃만[꼴만]’과 같이 그 발음 형태가 몇 가지로 나타난다. 이것을 소리대로 적는다면, 그 뜻이 얼른 파악되지 않아 독서의 능률이 크게 떨어진다. 그리하여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또 하나의 원칙이 붙은 것이다.

04 (가)에서 '선후'는 '하루의 영업을 마치다.'의 의미인 '닫다(閉)'의 피동사 '닫혀서'를 써야 하는 상황에서 '부딪쳐서' 상하다, 부상을 입다.'의 의미인 '다쳐서'로 잘못 표기함으로써 '윤하'와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내공 쌓기 4
85쪽 01 ⑤ 02 ② 03 ㉠: 안, ㉡: 앞 04 ④

01 '반드시'는 '꼭, 틀림없이.'의 의미이며, '반듯이'는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않고 바르게.'의 의미이다. ⑤는 문맥상 '꼭, 틀림없이'의 의미가 들어가야 하므로, '반드시'라고 써야 알맞다.

- 오답 풀이** ① 문맥상 '어떤 일이나 과정, 절차 따위가 끝나다.'의 의미가 들어가야 하므로 '마치면'이라고 써야 알맞다.
② 문맥상 '맞는 답을 내놓다.'의 의미가 들어가야 하므로 '맞혔다'라고 써야 알맞다.
③ 문맥상 '꼭, 틀림없이.'의 의미가 들어가야 하므로, '반드시'라고 써야 알맞다.
④ 문맥상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않고 바르게.'의 의미가 들어가야 하므로 '반듯이'라고 써야 알맞다.

02 ㉠에는 문맥상 '불이 옮겨 타기 시작하다.'란 의미의 단어가 들어가야 하므로, '불다'의 사동형인 '불이니'가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03 **서술형** '안'은 부정 또는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 '아니'가 줄어든 말이고, '않'은 '아니하-'가 줄어든 말이다. 그러므로 '안', '않'이 들어갈 자리에 '아니'와 '아니하-'를 넣어 보면 두 표기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에 들어갈 말을 '안'이라고 바르게 썼다.	☐
㉡에 들어갈 말을 '않'이라고 바르게 썼다.	☐

04 줄어든 말이 쓰이는 곳에 원래의 말을 넣어 보면 어떤 표기가 옳은지 알 수 있다. ④의 '되'는 '되어'로 바꿀 수 있으므로, '돼'로 표기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천천히 줘도 되어.'라고 바꾸어 쓸 수 있으므로 이 문장에서 '돼'는 알맞은 표현이다.
② '약속한 시간이 되었으니'라고 바꾸어 쓸 수 있으므로 이 문장에서 '됐으니'는 알맞은 표기이다.
③ '언제 시간이 되면'에서 '되'는 동사 '되다'의 어간이므로 이 문장에서 '되면'은 알맞은 표기이다.
⑤ '나쁜 상상을 하게 되더라'에서 '되'는 동사 '되다'의 어간이므로 이 문장에서 '되더라'는 알맞은 표기이다.

내공 쌓기 5
87쪽 01 ㉠: 막따, ㉡: 말가, ㉢: 말그니 02 ④ 03 ④
04 ㉠: 어떻게, ㉡: 어떡해

01 **서술형** 표준 발음법 <제11항>에 의해 겹받침 'ㄹ'은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하므로 '맑다'는 [막따]로 발음해야 하며, 표준 발음법 <제14항>에 의해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뒤엷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므로 '맑아'는 [말가], '맑으니'는 [말그니]로 발음한다.

평가 기준	확인
㉠에 [막따]라고 바르게 썼다.	☐
㉡에 [말가]라고 바르게 썼다.	☐
㉢에 [말그니]라고 바르게 썼다.	☐

02 자음을 첫소리로 갖는 'ㄴ'은 [ㄴ]로만 발음하므로 '닐리리'는 [닐리리]로 발음한다.

- 오답 풀이** ① 자음을 첫소리로 갖는 'ㄴ'은 [ㄴ]로만 발음하므로 '희망'은 [히망]으로 발음한다.
② 받침 'ㅎ'은 그 뒤에 'ㄷ'이 결합될 경우,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져 [ㅌ]으로 발음하므로 '날다'는 [나타]로 발음한다.
③ 받침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오면 'ㅎ'을 발음하지 않으므로 '날아'는 [나아]로 발음한다.
⑤ 흘받침인 'ㅍ'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할 경우에는 제 음 그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므로 '무릎'은 [무르ㅍ]로 발음한다.

내공 기르기
이중 모음 'ㄴ'의 발음에 관한 문제는 시험에 꼭 출제된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내용을 숙지해 보. 이중 모음 'ㄴ'은 어떤 하나의 발음으로 무조건 발음해야 하는 경우와 두 가지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구분하면 내용을 쉽게 기억할 수 있어. '의사'와 같이 단어의 첫음절의 '의'는 [의]로만 발음해야 하고, '희망'과 같이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만 발음해야 해. 이 외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 '의'는 [이]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외우면 문제를 틀리지 않고 풀 수 있을 거야.

03 ㉠에는 문맥상 '왜 그런지 모르게, 뚜렷한 이유도 없이.'라는 뜻의 단어가 들어가야 하므로 '웬지'로 쓴 것은 바른 표기이다. ㉡에는 문맥상 '어찌된 일.'이라는 뜻의 단어가 들어가야 하므로 '웬일'로 쓴 것은 바른 표기이다.

- 오답 풀이** ㉠: 문맥상 '어찌된 일.'이라는 뜻의 단어가 들어가야 하므로 '웬일'로 써야 바른 표기이다.
㉡: 문맥상 '왜 그런지 모르게, 뚜렷한 이유도 없이.'라는 뜻의 단어가 들어가야 하므로 '웬지'로 써야 바른 표기이다.

04 **서술형** '어떻게'는 '어떤 모양이나 형편으로.'라는 의미의 부사이다. '어떡해'는 '어떻게 해'가 줄어든 말로, '어떻게'는 틀린 표기이다. 문맥상 ㉠에는 '어떻게'를, ㉡에는 '어떡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 01 ④ 02 ③ 03 [남] 04 ⑤ 05 ⑤ 06 ⑤
 07 ③ 08 ③ 09 ③ 10 ① 11 ③ 12 ②
 13 ① 14 ② 15 ④ 16 ⑤ 17 않 오면 → 안
 오면, 안 되 → 안 돼 18 다쳐서 → 닫혀서 19 ② 20 ①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21 ㉠: ㄱ, ㄴ, ㄷ, ㄹ, ㅁ, ㅂ, ㅇ, ㉡: ㄱ, ㉢: ㄷ, ㉣: ㅂ 2단계

22 '꽃'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꽃], [꼬치], [꼴만]과 같이 여러 형태로 적게 되면 단어의 뜻을 파악하기 힘들다. 즉 하나의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3단계 23 표준 발음법 <제14항>에서 겹받침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맑다'는 [막따]로 발음해야 한다. 또한 표준 발음법 <제14항>에서 겹받침이 어미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말아'는 [말가]로 발음해야 한다.

01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를 발음할 때의 표준을 정한 규범이다.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오답 풀이 ① 한글 맞춤법에 대한 설명이다.
 ②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설명이다.
 ③ 표준어 사정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⑤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설명이다.

02 제시된 만화에서 남학생은 '빛을'이란 단어를 [비출]이라고 발음해야 하는데, [비슬]로 잘못 발음하여 여학생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양 있는 언어 생활을 위해 다양하게 발음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오답 풀이 ① 남학생이 발음을 잘못하여 여학생이 남학생이 사용한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올바른 발음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표준 발음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② 남학생과 같이 발음을 잘못하면 상대방에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다.
 ④, ⑤ 남학생은 '희망이나 영광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빛'을 말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비슬]이 아니라, [비출]로 발음해야 한다.

03 서술형 받침 'ㄷ, ㅅ, ㅆ, ㅈ, ㅊ, ㅌ'의 대표음은 'ㄷ'이므로 모두 [남]으로 발음해야 한다.

[참고 자료] 받침소리와 관련한 표준 발음법

<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해설] 음절 말 위치에서 실현되는 자음으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가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훈민정음』에서는 'ㅅ'이 하나 더 있어서 8종성(終聲)이었는데, 그 뒤에 'ㅅ'이 'ㄷ'으로 실현됨으로써 현대 국어에서는 7개가 되었다. 이 7개의 자음으로 음절 말 위치에서 실현되는 구체적인 경우는 제9항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9항> 받침 'ㄱ, ㅋ, ㆁ, ㅅ, ㅆ, ㅈ, ㅊ,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해설] 받침 'ㄴ, ㄹ, ㅁ, ㅇ'은 변화 없이 본음대로 각각 [ㄴ, ㄹ, ㅁ, ㅇ]으로 발음한다. - 국립국어원(<http://www.korean.go.kr>)

04 받침 'ㅇ'은 본음대로 발음해야 하므로 '성하다'는 [성하다]로 발음해야 한다. 또한 'ㅎ'이 제 음가대로 발음되지 않는 것은 받침에 위치했을 때이다.

- 오답 풀이 ① 받침 'ㅌ'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대표음 'ㄷ'으로 발음하므로 '발다'는 [반따]로 발음해야 한다.
 ② 받침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대표음 'ㅂ'으로 발음하므로 '뒸다'는 [덥따]로 발음해야 한다.
 ③ 받침 'ㄹ'은 본음대로 발음해야 하므로 '불다'는 [불:다]로 발음해야 한다.
 ④ 받침 'ㄱ'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대표음 'ㄱ'으로 발음하므로 '뒸다'는 [덥따]로 발음해야 한다.

05 겹받침 'ㄹ'은 첫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발음하므로, '외곶'은 [외골/웨골]로, 겹받침 'ㄹ'은 두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발음하므로 [닥짱]으로 발음한다.

- 오답 풀이 ① 겹받침 'ㅈ'은 두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ㅅ'은 첫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발음한다.
 ② 겹받침 'ㄱ, ㅋ'은 모두 첫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발음한다.
 ③ 겹받침 'ㅈ, ㅊ'은 모두 첫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발음한다.
 ④ 겹받침 'ㄹ, ㄾ'은 모두 두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발음한다.

06 겹받침 'ㅈ'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첫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발음하지만, 예외적으로 '뽕-'은 자음 앞에서 [뽕]으로, '넙-'은 '넙-죽하다, 넙-둥글다'와 같은 경우에 [넙]으로 발음한다.

- 오답 풀이 ① '넙[넙비]', '넙[넙게]'의 '넙'은 모두 [넙]로 발음한다.
 ② '넙대[넙따]', '넙히대[넙피다]'의 '넙'은 모두 [넙]로 발음한다.
 ③ '넙대[넙따]'의 '넙'은 [넙]로, '넙죽하다[넙쭈카다]'의 '넙'은 [넙]으로 발음한다.
 ④ '넙[넙비]'의 '넙'은 [넙]로, '넙둥글다[넙뚱글다]'의 '넙'은 [넙]으로 발음한다.

07 '의사'의 '의'는 단어의 첫음절의 '의'이므로 원칙대로 '의사'는 [의사]로 발음해야 한다.

내공 기르기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무조건 [ㄴ]로만 발음해야 해. 그리고 단어의 첫음절의 '의' 역시 [의]로만 발음해야 해.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나 조사 '의'는 [이]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음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각각 [ㄴ], [히]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는 거야.

08 'ㄴ'은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무늬'는 [무니] 한 가지로만 발음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②, ④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발음해도 허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주의', '상의', '정의'는 각각 [주의/주이], [상의/상이], [정의/정이]로 발음할 수 있다.
 ⑤ 조사 '의'는 [이]로 발음해도 허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사랑의'는 [사랑의/사랑에]로 발음할 수 있다.

09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의의'는 [의의/의이]로 발음할 수 있다. 단어의

첫음절인 ‘의’는 [의]로만 발음해야 하므로, ‘의의’의 첫 번째 ‘의’를 [이]로 발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⑤ ㉠에 들어갈 수 있는 발음은 [민주주의의 의의], [민주주의의 의이], [민주주의에 의의], [민주주의에 의이], [민주주의의 의의], [민주주의의 의이], [민주주의에 의의], [민주주의에 의이]이다.

10 ‘다울’은 어미의 사용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므로, 한글 맞춤법 규정을 살펴보면 답을 얻을 수 있다. 한글 맞춤법 <제53항>에 따르면 ‘-(으)ㄴ게’는 예사소리로 적는다고 되어 있다.

11 제시된 문장에서 ‘나는, 본, 하얀’은 표기와 소리가 일치하지만, ‘길을, 걷다가, 꽃의, 이름이, 금금했다’는 표기와 소리가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걷다가’를 소리 나는 대로 [걷따가]로 적으면 단어의 원형을 알기 어려우므로 그 뜻을 파악하기 힘들어진다.

② 표준 발음법 <제9항>에 받침 ‘ㄱ, ㅋ, ㆁ, ㄷ, ㅌ, ㄴ,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요음 [ㄱ, ㄷ, ㅌ]으로 발음한다고 하였다.

④ ‘꽃의’의 ‘의’는 조사이다. 조사 ‘의’는 [네]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규정에 의해 ‘꽃의’는 [꼬치/꼬체]로 발음할 수 있다.

⑤ 표준 발음법 <제13항>에서는 **출발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고 하였다.

12 ‘걷히다’는 ‘여러 사람에게서 돈이나 물건 따위가 거두어지다.’의 의미인 ‘걷다’의 피동사이다. 따라서 ㉠은 ‘회원이 많아져서 회비가 많이 걷혔다.’와 같이 활용되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오가는 도중에 어디를 지나거나 들르다.’라는 뜻의 ‘거치다’가 쓰였으므로 이는 ‘거치어 → 거쳐’로 활용할 수 있다.

③ ‘거치다’는 [거치다]로 발음하므로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는 단어이고, ‘걷히다’는 표기와 달리 [거치다]로 발음하므로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단어이다.

④ ‘거치다’와 ‘걷히다’는 서로 다른 뜻을 지닌 단어지만, 발음이 [거치다]로 같아 일상에서 사용할 때 헷갈릴 수 있다.

⑤ 모든 말을 소리 나는 대로만 쓰면 ‘거치다’, ‘걷히다’처럼 발음이 같은 경우에는 그 뜻을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한글 맞춤법의 규정에는 ‘어법에 맞도록 함’이라는 조건이 붙은 것이다.

13 ㄱ. ‘달고’는 [달고]로, ㄴ. ‘바구니’는 [바구니]로 발음하므로 표기와 소리가 일치한다.

오답 풀이 ㄷ. ‘발견했다’는 [발견헸다]로, ㄹ. ‘바람이’는 [바라미]로 발음하므로 표기와 소리가 일치하지 않는다.

14 ‘어떻게’는 ‘어떤 모양이나 형편으로.’라는 의미의 부사이다. ‘어떡해’는 ‘어떻게 해가 줄어든 말이며, ‘어떻게’는 바르지 않은 표기이다. 문맥상 ㉠에는 ‘어떻게’가, ㉡에는 ‘어떡해’가 들어야 한다.

15 ‘민재’가 쓴 글에서 ‘않 좋아하는데 → 안 좋아하는데’, ‘엉망이 되 버린 → 엉망이 돼 / 되어 버린’, ‘지워지지 안았다 → 지워지지 않았다’, ‘입고 있으면 똥다며 → 입고 있으면 똥다며’와 같이 고쳐써야 하므로, 어법에 맞지 않게 쓴 단어는 모두 4개이다.

16 ‘돼’는 ‘되어’가 줄어든 말이므로, ‘되어’로 쓸 수 있으면 ‘돼’로 적고, 그렇지 않으면 ‘되’로 적어야 한다.

내공 기르기

‘안’은 부정 또는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 ‘아니’의 준말이므로, ‘아니’로 쓸 수 있어, ‘나한테 그 물건을 안 줬어.’와 같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은 ‘아니하-’가 줄어든 말이므로 ‘나한테 그 물건을 주지 않았어.’와 같이 활용할 수 있어.

17 서술형 ‘않 오면’은 ‘아니 오면’의 뜻이나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아니’의 줄어든 말인 ‘안’을 사용하여 ‘안 오면’으로 고쳐 써야 한다. 또 ‘안 되’는 ‘아니 되어’의 뜻이므로 ‘되어’의 줄어든 말인 ‘돼’를 사용하여 ‘안 돼’로 고쳐 써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않 오면’의 ‘않’을 ‘안’으로 고쳐 썼다.	☐
‘안 되’의 ‘되’를 ‘돼’로 고쳐 썼다.	☐

18 서술형 이 대화에서 선호는 ‘하루의 영업을 마치다.’라는 의미를 지닌 ‘닫히다’를 써야 하는데 ‘부딪치거나 맞거나 하여 신체에 상처가 생긴다. 또는 상처를 입다.’는 의미의 ‘다치다’로 잘못 표기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선호’가 잘못 표기한 단어를 찾아 썼다.	☐
‘선호’가 잘못 표기한 단어를 바르게 고쳐 썼다.	☐

19 문맥상 ㉠에는 ‘어떤 일이나 과정, 절차 따위가 끝나다.’의 의미인 ‘마치다’가, ㉡에는 ‘번철이나 프라이팬 따위에 기름을 바르고 빈대떡 등의 음식을 익혀서 만들다.’의 의미인 ‘부치다’가, ㉢에는 ‘틀림없이, 꼭.’의 의미인 ‘반드시’가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내공 기르기

발음은 같은데 표기와 뜻이 다른 단어들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아. ‘마치다, 맞히다’, ‘반드시, 반듯이’, ‘부치다, 붙이다’는 교과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단어들이니 각각의 의미 차이를 꼭 기억해 뒀.

[참고 자료] 발음이 같아 헷갈리는 단어

• ‘마치다 / 맞히다’의 표기

마치다	어떤 일이나 과정, 절차 따위가 끝나다. 예 학교 <u>마</u> 치고 집에 바로 갔다.
맞히다	① 표적에 맞게 하다. / ② 맞는 답을 내놓다. ③ 침이나 매 따위를 맞게 하다. ④ 눈·비·서리 따위를 맞게 하다. 예 활로 <u>맞</u> 혀서 맞힌다.

• ‘반드시 / 반듯이’의 표기

반드시	꼭, 틀림없이. 예 그는 <u>반</u> 드시 온다.
반듯이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않고 바르게. 예 선을 <u>반</u> 듯이 그어라.

• ‘부치다 / 붙이다’의 표기

부치다	① 힘이 미치지 못하다.
	② 부채 같은 것을 흔들어서 바람을 일으키다.
	Ⓓ 그 일은 힘에 부친다.
붙이다	① 붙게 하다.
	② 서로 맞닿게 하다.
	Ⓓ 포스터를 학교 벽에 붙인다.

20 ‘웬지/웬지’ 중 ‘웬지’가, ‘웬일/웬일’ 중 ‘웬일’이 바른 표기이다. ‘웬지’는 ‘왜인지’가 줄어든 말로, ‘왜’ 그런지 모르게, 뚜렷한 이유도 없이.’의 의미이며, ‘웬일’은 ‘어찌된 일’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①은 ‘웬일’로 표기해야 한다.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21 우리말에서는 받침소리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하며, 이 밖의 받침은 이 7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뀐다. 따라서 받침 ‘ㄱ, ㅋ’은 [ㄱ]으로, ‘ㅅ, ㅆ, ㅈ, ㅊ, ㅌ’은 [ㄷ]으로, ‘ㅍ’은 [ㅂ]으로 발음한다.

2단계 22 한글 맞춤법 규정에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꽃’, ‘꽃이’, ‘꽃만’을 [꽃], [꼬치], [꼇만]과 같이 소리 나는 대로 다양하게 적게 되면 단어의 뜻을 파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원칙을 두는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꽃’, ‘꽃이’, ‘꽃만’의 발음을 밝혀 썼다.	☐
하나의 단어를 여러 형태로 적게 되면 그 뜻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썼다.	☐

【참고 자료】 한글 맞춤법 규정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근본 원칙에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준어의 발음 형태대로 적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만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컨대 ‘꽃[花]’이란 단어는 ‘꽃이[꼬치], 꽃나무[꼇나무], 꽃과[꼇과]’와 같이 그 발음 형태가 몇 가지로 나타난다. 이것을 소리대로 적는다면, 그 뜻이 얼른 파악되지 않고, 따라서 독서의 능률이 크게 저하된다. 그리하여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또 하나의 원칙이 붙은 것이다.

— 국립국어원(<http://www.korean.go.kr>)

3단계 23 ‘맑다’는 겹받침이 자음 앞에서 발음되는 경우이고, ‘맑아’는 겹받침이 어미와 결합되는 경우이다. 표준 발음법 〈제14항〉, 〈제14항〉을 참고로 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맑다’의 발음을 표준 발음법 〈제14항〉을 근거로 들어 바르게 서술하였다.	☐
‘맑아’의 발음을 표준 발음법 〈제14항〉을 근거로 들어 바르게 서술하였다.	☐

대단원 평가



- 01 ① 02 ② 03 ㉠: 자주정신, ㉡: 애민 정신,
㉢: 실용 정신 04 ⑤ 05 ⑤
06 ⑤ 07 ① 08 ② 09 ⑤ 10 ⑤
11 한글은 자음자와 모음자의 수가 비슷하여 컴퓨터 자판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자음자와 모음자를 적절히 배치할 수 있어 타자 속도가 빠르다. 12 ⑤ 13 ⑤ 14 ⑤
15 [부억], [꼇], [집] 16 ⑤ 17 ㉠: [바테], ㉡: [말근], ㉢: [꼬치], ㉣: [보안따] 18 ④ 19 ③
20 ③ 21 ② 22 ⑤ 23 ④ 24 ㉠: 아니, ㉡: 아니하— 25 ③ 26 ‘선호’는 ‘영업이 종료되어 문이 닫혔다.’의 의미인 ‘닫혀서’를 ‘다쳐서’로 잘못 표기하였다. 따라서 ‘윤하’는 이를 ‘신체에 상처가 생겼다.’는 의미로 이해하였다. 27 ⑤

01 (나)에서 일부 신하들은 백성이 지식을 쌓게 되면, 그들을 통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여 한글 창제를 반대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세종 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것은 맞지만 이는 백성을 통치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백성이 지혜로워져야 나라도 튼튼해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② (가)에서 한자는 글자 수가 수만 자에 이르러 이를 모두 익히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하였다.

③ (가)에서 양반이 아니고서야 그 어려운 한자를 배울 기회가 없었다고 하였으므로, 한자를 배워서 쓰는 양반들에 비해 일반 백성이 우리글이 없는 불편함을 크게 느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나)에서 ‘세종 대왕’은 모든 백성이 책을 읽으면서 유교의 기본적인 도리를 배우기를 바라며 한글을 창제하였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 백성은 글자를 몰라 책을 통해 유교의 기본적인 도리를 배우기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에서 한글을 만들기 전에는 중국의 글자인 한자를 빌려 썼는데, 우리말과 중국어는 말소리와 문장 구조가 달라서,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었다고 하였다.

02 (나)에서 중국의 반발을 염려하여 일부 신하들이 한글 창제를 반대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세종 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것이지,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창제한 것이 아니다.

03 서술형 중국의 글자인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한 것(㉠)에는 ‘자주정신’이, 백성이 문자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것(㉡)에는 ‘애민정신’이, 누구나 쉽게 배우고 편하게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고자 한 것(㉢)에는 ‘실용 정신’이 드러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의 답으로 ‘자주정신’을 썼다.	☐
㉡의 답으로 ‘애민 정신’을 썼다.	☐
㉢의 답으로 ‘실용 정신’을 썼다.	☐

04 (다)에서 재출자 ‘ㄱ, ㅋ’은 초출자 ‘ㄴ, ㆁ’에 ‘ㅇ’을 합성하여 만들었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떠 ‘ㅇ’을, 땅의 평평한 모양을 본떠 ‘ㅡ’를,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 ‘ㅣ’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② (가)에서 ‘ㅇ’은 혀가 오그라들고 깊게 나는 소리를, ‘ㅡ’는 혀가 조금 오그라들고 깊지도 알지도 않게 나는 소리를, ‘ㅣ’는 혀가 오그라들지 않고 알게 나는 소리를 표현한 글자라고 하였다.

③ (다)에서 초출자 ‘ㄴ, ㄷ’은 기본자 ‘ㅇ’과 ‘ㅣ’의 합성으로 만들었다고 하였다.

④ (다)에서 초출자 ‘ㄴ, ㄷ’은 기본자 ‘ㅇ’과 ‘ㅡ’의 합성으로 만들었다고 하였다.

05 ‘ㄱ, ㄷ, ㅂ, ㅈ’은 각각 기본자 ‘ㅇ, ㄴ, ㅁ, ㅅ’에 획을 더해서 만든 가획자이나, ‘ㅅ’은 상형의 원리로 만든 자음의 기본자이다.

06 ‘ㅇ, ㄴ, ㄷ’도 각각 ‘ㅇ, ㄴ, ㅅ’에 획을 더하여 만들었지만, 소리가 세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체자로 따로 구분되는 글자이다.

내용 기르기

이체자로 불리는 ‘ㅇ, ㄴ, ㄷ’은 ‘ㅇ’은 ‘ㅇ’에, ‘ㄴ’은 ‘ㄴ’에, ‘ㄷ’은 ‘ㅅ’에 획을 더하여 만들었지만 가획의 의미, 즉 가획 이전과 비교하여 소리의 세기가 세진다는 특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외적이라, 이처럼 다른 가획자와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에 따로 ‘이체자’라고 부르지만, 이체자 역시 가획의 원리에 의해 만든 글자라는 것을 기억해.

07 (라)를 통해 ‘ㄱ’은 ‘ㅇ’에 ‘ㅣ’를 더하여 만든 글자임을 알 수 있다.

08 (나)에서 ‘세종 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한 후, 글자를 백성에게 보급하기 위해 힘썼다고 하였으며, 미래에는 자신의 바람대로 한글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따라서 훈민정음이 발표하자마자 백성들에게 널리 통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세종 대왕’이 ‘중국 문자에 기대어 살았던 우리가, 우리만의 고유한 문자로 언어생활을 하면서’라고 하였으므로, 한글 창제 이전에는 중국의 문자를 빌려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에서 ‘학생’이 ‘그런데 한글은 다른 문자와 다르게 ‘강’이라는 단어를 ‘ㄱㅏ ㅇ’이라고 풀어쓰지 않고 ‘강’처럼 모아쓰는데’라고 하였으므로, 다른 문자는 한글과 다르게 풀어쓰기의 방식을 사용함을 알 수 있다.

④ (다)에서 ‘공개된 정보를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하고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정보화 사회에서, 한글의 우수성은 더욱 빛난다’라고 하였으므로 한글은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자임을 알 수 있다.

⑤ (라)에서 휴대 전화에서 문자 메시지를 입력할 때 한글은 8개의 기본자를 바탕으로 12개의 조작 단추 안에 자모를 배열하므로 입력 속도가 다른 문자보다 훨씬 빠르다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휴대 전화의 조작 단추의 수가 적으면 문자 메시지를 더 빨리 입력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09 ‘세종 대왕’이 한글을 모아쓰기의 방식으로 쓰게 한 이유는 자음과 모음이 한 덩어리로 소리 나는 말소리의 특성을 문자에 담고자 한 것이다.

10 제시된 자료는 한글 모음은 한 글자가 하나의 소리로 발음되는 반면, 로마자의 모음은 한 글자가 다양한 소리로 발음되는 것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문자와 소리의 일치성은 한글이 기계 번역이나 음성 인식에 유리한 이유를 드러내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1 서술형 한글은 자음자와 모음자의 수가 비슷하여 자음자와 모음자가 자판의 왼쪽과 오른쪽에 적절히 나누어 배치된 데 비해, 로마자는 자음자가 모음자보다 훨씬 많아 자음자와 모음자가 섞여서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로마자보다 한글의 타자 속도가 매우 빠르고, 이는 정보화 사회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평가 기준	확인
한글은 자음자와 모음자의 수가 비슷함을 썼다.	☐
한글은 자음자와 모음자가 자판의 왼쪽과 오른쪽에 적절히 배치되어 타자 속도가 빠르다는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12 표준 발음법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의 발음을 기준으로 한다. 다양한 지역 방언을 모두 인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표준 발음을 정하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13 우리말에서는 받침소리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ㅅ’이 받침일 경우 대표음 [ㄷ]으로 발음한다.

14 받침 ‘ㄷ, ㅌ, ㅅ, ㅆ, ㅈ, ㅊ’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ㄷ], [ㅌ]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술’은 [술]으로, ‘웃’은 [웃]으로, ‘쫓다’는 [쫓따]로, ‘있다’는 [읷따]로 발음하므로 받침 소리가 ‘ㄷ’으로 같으나, ‘앞뒤’는 [압뽀]로 발음하므로 받침 소리가 ‘ㅂ’으로 다르다.

15 서술형 받침 ‘ㄱ’의 대표음은 [ㄱ]이므로 [부억]으로, 받침 ‘ㅈ’의 대표음은 [ㄷ]이므로 [핀]으로, 받침 ‘ㅊ’의 대표음은 [ㅌ]이므로 [집]으로 발음해야 한다.

16 표준 발음법 <제13항>에 따르면 홀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할 경우에는, 제 음 그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웃’의 받침 ‘ㅅ’은 ‘으’의 첫소리로 옮겨 ‘웃은’은 [오슨]으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표준 발음법 <제13항>을 참고할 때 적절한 설명이다.

②, ③ 표준 발음법 <제9항>을 참고할 때 적절한 설명이다.

④ 표준 발음법 <제14항>을 참고할 때 적절한 설명이다.

17 서술형 ① ‘밭에[바테]’는 표준 발음법 <제13항>에 의해 홀받침 ‘ㅌ’이 조사 ‘에’와 결합하여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 것이다. ㉠ ‘맑은[말근]’은 표준 발음법 <제14항>에 의해 겹받침 ‘ㄹ’이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와 결합하여 두 번째 받

침인 ‘ㄱ’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 것이다. ㉔ ‘꽃이 [꼬치]’는 표준 발음법 <제13항>에 의해 홑받침 ‘ㄷ’이 조사 ‘이’와 결합하여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 것이다. ㉕ ‘보았다[보안따]’는 표준 발음법 <제9항>에 의해 받침 ‘ㅅ’을 자음 앞에서 대표음 [ㄷ]으로 발음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㉑의 발음을 [바테]라고 썼다.	☐
㉒의 발음을 [말근]이라고 썼다.	☐
㉓의 발음을 [꼬치]라고 썼다.	☐
㉕의 발음을 [보안따]라고 썼다.	☐

18 표준 발음법 <제14항>에 따르면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엿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므로, ‘닭이’는 [달기]로 발음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표준 발음법 <제13항>에 의해 쌍받침 ‘ㅃ’이 어미 ‘-어’와 결합하여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된 것이다.
 ② 표준 발음법 <제14항>에 의해 겹받침 ‘ㅃ’이 어미 ‘은’과 결합하여 두 번째 받침인 ‘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된 것이다.
 ③ 표준 발음법 <제13항>에 의해 홑받침 ‘ㄹ’이 조사 ‘이’와 결합하여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된 것이다.
 ⑤ 표준 발음법 <제13항>에 의해 쌍받침 ‘ㄱ’이 어미 ‘-아서’와 결합하여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된 것이다.

19 겹받침 ‘ㅃ’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첫 번째 받침의 대표음인 [ㄹ]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뽕-’은 자음 앞에서 [ㅃ]으로 발음하므로, ‘뽕지’는 [ㅃ:찌]로 발음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값’은 첫 번째 받침의 대표음인 [값]으로 발음한다.
 ② ‘할다’는 첫 번째 받침의 대표음인 [할따]로 발음한다.
 ④ ‘외곶’은 첫 번째 받침의 대표음인 [외곶/웨곶]로 발음한다.
 ⑤ ‘엎다’는 첫 번째 받침의 대표음인 [언따]로 발음한다.

[참고 자료] 받침 ‘ㅃ’의 발음

- 받침 ‘ㅃ’은 첫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발음하여 일반적으로 ‘ㄹ’로 발음하지만, 예외가 존재한다. ‘뽕-’은 자음 앞에서 [ㅃ]으로 발음하고, ‘넙-’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넙]으로 발음한다.
- 뽕대[ㅃ:따], 뽕소[ㅃ:쏘], 뽕지[ㅃ:찌], 뽕는[ㅃ:는 → 뽕는], 뽕게[ㅃ:께], 뽕고[ㅃ:꼬]
 - 넙 - 죽하다[넙쑤카다], 넙 - 둥글다[넙뚱글다]

20 ‘여덟’의 받침 ‘ㅃ’은 첫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발음해야 하므로 [여덧]로 발음한다.

내용 기르기

겹받침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첫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발음하는 경우와 두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 ‘얹다’의 ‘ㄴ’, ‘여덟’의 ‘ㅃ’은 첫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발음하며, ‘홍장난’의 ‘ㄴ’, ‘옹조각’의 ‘ㅃ’, ‘절고’의 ‘ㄹ’은 두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발음하는 경우에 속해.

21 표준 발음법 <제5항>의 ‘다만 2’에서 ‘예, 레’ 이외의 ‘ㄹ’은 [ㄹ]로도 발음한다고 하였다. ‘명예’의 ‘예’는 원칙대로 이중 모음으로 발음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④ ‘다만 1’의 규정에 의해 맞게 발음한 것이다.
 ③, ⑤ ‘다만 2’의 규정에 의해 맞게 발음한 것이다.

22 ‘다만 3’에서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한다고 하였다. ‘하늬바람’에서 ‘늬’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에 속한다. 따라서 [하늬바람]으로 발음해야 한다.

23 한글 맞춤법 규정 <제1항>은 한글을 소리 나는 대로 적을 경우 단어의 정확한 뜻을 파악할 수 없어서 이를 보완하려고 어법에 맞도록 써야 한다는 원칙을 더하고 있다. ‘알아주는’의 발음은 [아라주는]으로 소리대로 적은 것이 아닌,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푸르다’는 [푸르다]로 발음하므로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② ‘보니’는 [보니]로 발음하므로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③ ‘문서에는’ [문서에]로 발음하므로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⑤ ‘본’은 [본]으로 발음하므로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24 서술형 ‘안’은 부정 또는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 ‘아니’의 준말이며, ‘않’은 ‘아니하-’의 준말이다. 그러므로 줄어든 말이 쓰이는 곳에 원래의 말을 넣어 보면 어떤 표기가 옳은지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㉑에 들어갈 말을 ‘아니’로 정확하게 썼다.	☐
㉒에 들어갈 말을 ‘아니하-’로 정확하게 썼다.	☐

25 ‘되’는 동사 ‘되다’의 어간으로 ‘되어’로 쓸 수 없다. ‘돼’는 어간 ‘되-’와 어미 ‘-어’가 결합한 ‘되어’의 준말로 ‘되어’로 쓸 수 있다. ③의 ‘돼고’는 ‘되어’로 쓸 수 없으며, 문장의 의미가 ‘의사’라는 ‘새로운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고 싶다는’ ‘되다’와 통하므로 ‘되고’라고 써야 한다.

26 서술형 ‘달히다[다치다]’와 ‘다치다[다치다]’는 뜻이 다르지만 발음이 같아 혼동하기 쉬운 단어이다. 이 대화에서 ‘선호’가 말하려던 바는 문구점의 영업이 종료되어 문구점에 다녀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호’가 ‘달혀서’를 ‘다쳐서’로 잘못 표기함으로써 ‘윤하’는 ‘다쳐서’의 의미인 ‘신체에 상처가 생겼다.’로 이해했다.

평가 기준	확인
‘선호’가 말하려던 ‘달혀서’의 의미를 썼다.	☐
‘윤하’가 알아들은 ‘다쳐서’의 의미를 썼다.	☐

27 ‘웬지’는 ‘왜인지’의 줄임말이고, ‘웬일’은 ‘어찌 된 일’이라는 뜻의 올바른 단어이다. 따라서 ‘웬지’와 ‘웬일’이 표준어로서 잘못된 표기이다.

3. 매체로 보는 세상

(1) 매체의 표현과 그 의도



내공 쌓기 ①

103쪽 01 ④ 02 ⑤ 03 ② 04 공익 광고

01 이 광고문은 강렬한 인상을 주는 사진과 광고 문구를 활용하여 스마트폰에 과의존하는 태도를 경고함으로써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광고문에는 가족의 손을 잡아 보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는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독자에게 새로운 대상을 환기하기 위한 것일 뿐 가족 간의 올바른 소통을 강조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② 이 광고문은 스마트폰 중독을 경고하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처럼 이 광고문은 스마트폰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제작했다고 볼 수 없다.

③, ⑤ 이 광고문은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에 관한 내용만 다를 뿐,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에 대한 내용이나 정보의 위조 및 변조, 불법 복제, 해킹 등과 관련한 정보 통신 윤리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참고 자료] 정보 통신 윤리

정보 통신의 올바른 이용과 윤리 의식을 확립하여 건전한 정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는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한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비롯하여 음란물과 폭력물, 사생활 침해, 해킹, 정보의 위조와 변조, 불법 복제 등을 막는 데 힘쓰고 있다.

02 이 광고문은 질문 형식의 구조가 비슷한 문장 두 개를 나열하였으며, 사람과 스마트폰이 서로 잡고 있는 사진을 사용하였다. 이 광고문은 이러한 표현 방법을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오답 풀이 ㄱ.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자는 내용을 전달할 뿐, 전문적인 지식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3 광고문은 한 가지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내야 효과적이다. 따라서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광고문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4 서술형 기업이나 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광고를 공익 광고라고 한다.

[참고 자료] 공익 광고

공익 광고란 광고 주체가 매체를 활용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아이디어와 서비스 내용을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가리킨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 제반의 문제들을 인간 존중의 정신에 입각하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에게 알기 쉽고 설득력 있게 호소한다.



내공 쌓기 ②

105쪽

01 ④ 02 문제 상황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어, 읽는 이의 관심과 흥미를 높일 수 있다. 03 ⑤ 04 ⑤

01 이 글에서는 노안의 증상을 설명하고, 이러한 증상을 겪는 젊은 환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이 겪는 증상을 '신중 노안(스마트폰 노안)'이라고 하였다. 즉, 신중 노안(스마트폰 노안)과 일반 노안의 증상은 가까운 곳의 사물이나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다. 스마트폰 노안이 위험한 이유는 환자 대부분이 눈 건강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한창나이로 스마트폰 노안의 증상을 자각하기 못하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스마트폰 노안이 위험한 까닭으로 환자 대부분이 한창나이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로 보아, 스마트폰 노안을 겪는 환자 대부분이 젊은 세대임을 알 수 있다.

② 글쓴이는 '스마트폰 노안'이 청소년들도 위험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대상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그래프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프를 보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30.6%로 청소년이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젊은 세대는 눈 건강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 스마트폰 노안의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⑤ 노안은 노화 현상의 하나로, 나이를 먹으면서 가까운 곳의 사물이나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증세라고 하였다.

02 서술형 ㉠은 스마트폰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 남자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글쓴이는 이러한 그림을 활용하여 문제 상황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어, 읽는 이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문제 상황을 시각적으로 보여 준다는 내용을 썼다.	☐
읽는 이의 관심과 흥미를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을 썼다.	☐

03 ㉠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높게 나타난 그래프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글쓴이는 이 통계 자료를 통해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노안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대상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만으로 스마트폰 보급률의 정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② 이 자료만으로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을 뿐 스마트폰 활용 능력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다.

③ 유아동, 청소년, 성인, 60대의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을 제시한 통계 자료이지만 나타내는 수치가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전 연령대에서 위험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④ 제시된 그래프에서는 노년층이라고 할 수 있는 60대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가장 낮으며 그 증가 추이는 드러나 있지 않다.

04 ㉠은 의학 전문가와 면담한 내용,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할 때 발생하는 여러 증상과 그 원인 등을 다룬 영상 자료이다. 이는 스마트폰 노안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므로, 글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공 쌓기 ㉓

107쪽

01 ㉔ **02** 글쓰이는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을 권유하기 위해 이 글을 썼다. **03 ㉔**

01 글쓰이는 독자 스스로 스마트폰 노안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고, 만약 스마트폰 노안이라면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스마트폰 노안이 아니라면 예방을 해야 함을 전달하기 위해 검사표를 제시하였다.

02 서술형 글쓰이는 블로그 글의 마지막 부분인 “이번 글에서는 스마트폰 노안의 위험성을 ~ 얼마든지 건강하게 누릴 수 있다.”에서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권유하기 위해 이 글을 썼음을 밝히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글쓰이가 이 글을 쓴 의도를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을 권유하기 위해서’라는 내용이 드러나도록 썼다.	☐

03 인터넷 매체로 글을 쓰면 다양한 자료를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독자와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매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자료를 허락 없이 가져와 공유해서는 안 된다.

내공 기르기 ㉔

이 글의 예상 독자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자. 이 글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았던 대상은 청소년이며 신종 노안을 겪는 대부분의 환자는 젊은 세대임을 알 수 있어, 글쓰이는 청소년과 젊은 세대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고 싶었을 거야. 블로그는 인터넷 환경만 갖추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젊은 세대는 인터넷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지. 또한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다양한 형태의 자료도 활용할 수 있어, 이러한 장점 때문에 글쓰이가 블로그와 같은 매체에 글을 쓴 것임을 알 수 있어.

축집게



예상 문제

본문 108~111쪽

01 ㉔ **02 ㉔** **03 ㉔** **04** 스마트폰 중독을 경고하고 있다. **05 ㉔** **06 ㉔** **07 ㉔** **08 ㉔** **09 ㉔**
10 ㉔ **11 ㉔** **12 ㉔** **13 ㉔**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14** 사이버 불링이 주는 고통 **2단계** **15** 통계 자료를 보여줌으로써 청소년들도 스마트폰 노안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 **3단계** **16** • 공통점: (가)와 <보기> 모두 가상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는 주제를 다루었다. • 차이점: (가)는 인터넷 매체, (나)는 인쇄 매체에 해당한다.

01 매체는 정보와 의견을 나누는 소통 창구로,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매체에 담긴 정보의 정확성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 등을 따지며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02 매체는 내용을 전하는 수단으로 여러 정보나 사람들의 생각을 전달한다. 매체는 인쇄 매체, 방송 매체, 인터넷 매체로 나눌 수 있으며, 매체의 종류에 따라 표현 방식이 달라진다. 즉 매체의 종류와 표현 방식은 밀접하게 관련된다.

[참고 자료] 매체의 종류에 따른 표현 방법

인쇄 매체	문자나 시각 자료를 이용함.
방송 매체, 인터넷 매체	문자, 시각 자료, 동영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이용함.

03 이 광고문에서는 명령이나 요구의 뜻을 나타내는 명령형이 아닌, 독자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는 질문 형식의 문장을 핵심 문구로 내세웠다.

오답 풀이 ①, ② 이 광고문에는 사람과 스마트폰이 서로를 잡고 있는 사진이 활용되었다. 이 사진은 스마트폰에 중독된 상황을 부각함으로써 독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③ ‘잡고 있습니까?’, ‘잡혀 있습니까?’라는 구조가 비슷한 두 문장을 통해 말의 재미를 더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⑤ ‘잡다’와 ‘잡히다’의 의미 차이를 활용하여, 사람이 스마트폰을 ‘잡고’ 있어야 하지만, 스마트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스마트폰에 ‘잡혀’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여 독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04 서술형 이 광고문은 강한 인상을 주는 사진과 광고 문구로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태도(스마트폰 중독)를 경고하고 있다.

05 광고문은 ‘잡고 있습니까?’, ‘잡혀 있습니까?’라는 문구와 사람과 스마트폰이 서로 잡고 있는 사진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회적으로 전달하고 있지만, <보기>는 의미를 직설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광고문과 <보기> 모두 특정한 계층이나 세대를 독자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

③ <보기>에는 출처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광고문에는 ‘공익광고협의회’라는 출처가 명시되어 있다.

④ 광고문과 <보기> 모두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⑤ <보기>는 문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인터넷 매체 뿐 아니라 어느 매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06 (가)에서는 스마트폰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 남자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문제 상황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었으며 (ㄷ), (나)에서는 스마트폰 노안의 위험성을 두 가지 근거를 들어 제시하였다(ㄴ). 또한 스마트폰 노안으로 인한 여러 증상을 인과적으로 나열하여 설득력을 높였다(ㄱ).

오답 풀이 ㄷ. (가)에서 중학생의 말을 인용하여 노안에 대해 설명하고 화제를 끌어내었음은 뿐,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07 (가)에서 노안이란 가까운 곳의 사물이나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증세로 원래는 나이를 먹으면서 생기는 증상이지만, 최

근에는 젊은 세대도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이와 같은 노안의 증세를 겪는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노안은 노화 현상의 하나라고 설명하였다.

③ (나)에서 스마트폰 노안은 여러 합병증이 뒤따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였다.

④ (나)에서 스마트폰 노안의 환자 대부분은 한창나이인데, 젊은 세대는 눈 건강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 스마트폰 노안의 증상을 자각하지 못해 상황을 악화시키기 쉽다고 하였다.

⑤ (가)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08 (나)에서는 스마트폰 노안이 위험한 까닭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에 들어갈 소재목은 '스마트폰 노안의 위험성'이 적절하다.

내용 기르기

소재목은 큰제목 아래 붙여진 작은 제목을 말해, 큰제목이 전체 글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여 준다면, 소재목은 전체 글을 이루는 작은 단락들의 내용을 압축하여 보여 준다. 아울러 소재목은 이 글처럼 화제의 성격이 단락별로 바뀌는 경우에 독자가 방향을 잃지 않고 글을 끝까지 읽게 해 주지. (가)와 (나)는 스마트폰 노안이라는 중심 화제는 같지만, 단락 안에서 다른 내용은 서로 달라. (가)에서 글쓰이는 일반 노안과 다른 형태의 노안, 즉 '스마트폰 노안'의 개념을 설명하고 독자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젊은 노안?'이라는 소재목을 활용했어. 그렇다면 (나)에는 어떤 소재목이 단락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나)의 첫 문장이 아래 두 문단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면 (나)에 어울리는 소재목을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거야.

09 ㉠은 의학 전문가와의 면담 내용, 스마트폰을 과하게 사용할 때 발생하는 여러 증상과 원인을 담은 동영상으로, 글쓰이가 글의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용한 외부 자료이다. 글쓰이는 자신이 직접 만든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의 출처를 밝혔다.

10 (가)는 주요 쟁점을 그림이나 사진 등의 시각 자료와 간략한 글로 정리한 카드 뉴스이다. 카드 뉴스는 스크롤바를 내리며 읽어야 하는 장문의 기사 대신, 짧은 글을 사진 여러 장에 얹어 사진을 한 장씩 넘겨 보는 형식이다. 따라서 카드 뉴스가 영상과 장문의 기사 형태로 전달할 때 유용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이동 통신 맞춤형 뉴스로 누리 소통망에서 쉽게 볼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젊은 층에서 인기가 높다.

③ (가)는 글자 모양과 굵기에 변화를 주어 핵심 내용을 나타내었다.

④ (나)의 점검표는 스마트폰 노안을 진단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독자는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눈 건강을 돌아볼 수 있다.

⑤ (나)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 '이런 글에서는 ~ 건강하게 누릴 수 있다.'에서 글쓰이가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이 글을 썼음을 알 수 있다.

11 (가)의 아홉 번째 카드를 통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도 사이버 불링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네 번째 카드에서 사이버 불링은 가상 공간에서 특정인을 괴롭히는 행위로, 우리나라에서도 악의적인 댓글 달기, 신상 털기, 메신저

감옥 등 사이버 불링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다섯 번째 카드에서 이에 대한 경찰청 통계를 제시하며 우리나라에서도 가상 공간에서 여러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③ 세 번째 카드에서 사이버 불링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

④ 여덟 번째 카드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 공간의 특성 때문에 범죄 행위들을 장난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12 블로그는 인터넷 환경만 갖추면 글을 읽을 수 있는 접근성이 높은 매체이다.

오답 풀이 ① 블로그는 글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어 글을 편하게 연재할 수 있는 매체이다.

② 블로그는 청소년 등 젊은 세대가 익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체이다.

③ 블로그는 댓글 기능을 통해 독자와 소통할 수 있는 매체이다.

④ 블로그는 인터넷 매체에 속하며 사진, 그림,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3 스마트폰 노안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생겨난 신종 노안이며, 환자의 대부분은 젊은 층이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 노안을 겪는 할머니의 증상을 글에 제시된 검사 표를 활용해 진단하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나)에서 노안의 개념과 청소년의 높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나)의 마지막 부분에서 스마트폰을 잘못 사용하는 습관만 고친다면 스마트폰이 주는 해택을 얼마든지 건강하게 누릴 수 있다고 하였다.

⑤ (나)의 검사 표에 스마트폰 노안과 관련된 증상으로 두통과 어깨 및 목의 통증을 제시하였다.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14** (가)의 ㉠에서는 비난하는 듯한 손 모양과, 그 아래 괴로워하는 사람의 그림을 이용하여 사이버 불링이 주는 고통을 보여 주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전달하려는 내용을 적절하게 썼다.	☐
40여절로 썼다.	☐

2단계 **15** 제시된 자료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을 보여 주는 그래프이다. 따라서 이 자료는 스마트폰 노안으로부터 위험받는 청소년의 실태가 담긴 (나)의 내용을 뒷받침하기에 가장 적절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도 노안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자료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3단계 **16** (가)와 <보기> 모두 공통적으로 가상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 즉 사이버 불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제를 담고 있다. 그러나 (가)는 인터넷 매체이고, <보기>는 인쇄 매체라는 차이가 있다.

평가 기준	확인
(가)와 <보기>의 공통적인 주제를 썼다.	☐
(가)와 <보기>가 각각 해당하는 매체의 종류를 썼다.	☐

(2) 매체 자료의 효과


내용 쓰기 ①

115쪽 01 ④ 02 ② 03 ③

01 ‘처음 ②’에서 강연자는 “오늘은 지진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진이 일어났을 때의 대처 방안을 여러분에게 알려 주려 합니다.”라고 말하며, 이 강연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지진’이라는 것 자체가 재난 상황인 것은 맞지만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강연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처음 ①’에서 강연자는 소방관이며, 강연을 듣는 이는 행복 중학교 2학년 3반 학생들임을 알 수 있다.

③ 피피티(PPT)에 적힌 강연 순서를 통해 강연에서 지진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진 발생 시 대처법을 다룰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강연자는 영화 포스터 사진, 동영상과 같은 매체 자료를 듣는 이에게 보여 주며 강의를 하고 있다.

02 ㉠은 강연의 도입 부분에 제시된 주제와 관련된 영화 포스터 사진으로, 듣는 이의 흥미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강연 내용의 전문성을 드러내는 자료로는 지진의 발생 과정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③ 영화 포스터 사진과 같은 시각 자료를 제시하면 주제에 대한 듣는 이의 관심을 높일 수 있다.

④ 영화 포스터가 지진에 대한 내용이므로 듣는 이는 영화 포스터를 보고 이 강연이 지진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⑤ 강연자는 영화 포스터 사진을 보여 주며 자신이 딸과 함께 영화를 본 경험을 들려주었다.

03 강연 중 내용과 관련된 동영상 자료를 제시하면 강연의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고, 강연의 분위기를 전환하여 듣는 이가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ㄱ. 강연자는 학생들이 지진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느낄 수 있는 막연한 두려움을 줄여 주기 위해 지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강연자 자신이 지니고 있던 지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동영상 자료를 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ㄴ. 지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이 담긴 동영상이라도, 학생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내용 쓰기 ②

117쪽 01 ⑤ 02 ① 03 ② 04 우리나라에서도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01 ‘가운데 ④’에서 네팔이 지진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네팔이 지진에 소홀하게 대비하여 그 피해를 더 키웠는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강연자는 ‘가운데 ③’에서 지진의 피해가 지진의 강도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

② 강연자는 ‘가운데 ⑥’에서 우리나라는 ‘불의 고리’에서 살짝 벗어나 있어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기 쉽다고 하였다.

③ 강연자는 ‘가운데 ⑤’에서 최근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는 일본 구마모토 현과 남미 에콰도르 등에서 대형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였다.

④ 강연자는 ‘가운데 ⑥’에서 2016년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그 진동을 전국 각지에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했다고 하였다.

02 강연에 제시된 사진은 지진 피해 지역의 모습을 담고 있다. 강연자는 이 사진들을 활용하여 듣는 이에게 지진의 심각성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지진의 발생 원인이 아니라 지진의 결과와 관련된 사진이다.

③ 지진 피해 지역 사진을 통해 재난 구호의 필요성을 느낄 수는 있으나, 강연 맥락으로 보아 이 사진을 제시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

④ 제시된 사진은 지진 피해와 관련된 내용의 보조 자료이다. 지진의 예방 법과는 거리가 멀다.

⑤ 지진 발생 지역을 여행하는 것에 관한 내용은 강연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03 이 강연에 활용된 그림은 세계의 지진대를 보여 주는 지도를 나타낸 것이다. 듣는 이는 이 그림을 보고 지진 발생 지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지도로 지진 대피 경로를 알 수는 없다.

③ 지진대의 형성 원인은 알 수 없으며, 이미 형성된 지진대의 모습만 확인할 수 있다.

④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 어디인지는 알 수 있지만, 지진이 일어나는 시기와 지역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지진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곳이거나 조산대에서 떨어진 곳이라고 해서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의 위치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자료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4 서술형 강연자는 우리나라가 ‘불의 고리’에서 살짝 벗어나 있지만, 2016년에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처럼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안심할 수 없다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우리나라에서도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을 밝혀 썼다.	☐


내용 쓰기 ③

119쪽 01 ④ 02 ③ 03 오늘, 것입니다. 04 ⑤

01 강연자는 강연에서 부족하거나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강연자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말한 것은 강연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강연자는 고개를 숙이며 “고맙습니다.”라고 하여 듣는 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② 강연자는 지진 발생 시 대처법을 말로 설명한 후에, 그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듣는 이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③ 강연자는 “~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진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나요?”와 같은 질문을 통해 듣는 이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09 강연을 할 때는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듣는 이에게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은 표, <보기>는 그림으로 서로 다른 매체 자료이지만 모두 지진 발생 시 대처법을 다루었다.

10 이 강연의 강연자는 지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진이 발생했을 때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전달하고자 강의를 한 것이다.

오답 풀이 ㉡ 지진 피해 사례가 제시되기는 하지만, 그들을 돕자고 설득하기 위한 강연은 아니다.

㉢ 지진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지각 변동을 다루었으나, 이는 지진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로서 제공된 것이다.

㉣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강연에서 당부하는 것은 지진이 일어나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 소방관이 되기 위한 마음가짐과 이 강연의 내용은 관련이 없다.

11 어떤 이유이든 자료 속 내용을 함부로 바꾸는 것은 자료를 왜곡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그래프와 같은 통계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통계 결과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12** (가)~(라)는 ‘지진’이라는 중심 화제에 대하여 청중 앞에서 강의 형식으로 전달하고 있는데, 이러한 담화 유형을 강연이라고 한다. (가)~(라)의 강연자는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행복 중학교 2학년 3반 학생 여러분”이라고 부르며, 듣는 이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담화의 유형을 적절하게 썼다.	☐
듣는 이를 적절하게 썼다.	☐

2단계 **13** 동영상 화면의 ‘지진, 어떻게 발생하나?’라는 문구와, (나)의 “다음 영상을 보면서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라는 말을 통해 <보기>의 동영상에는 지진의 발생 원인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동영상은 강연의 분위기를 바꾸고, 듣는 이가 지진의 발생 과정을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평가 기준	확인
<보기>의 자료 형태와 내용을 정확하게 썼다.	☐
<보기>를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적절하게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3단계 **14** ㉠은 1인 가구의 증가 실태를 나타낸 도표, ㉡는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나타낸 사진, ㉢는 층간 소음 문제를 나타낸 그림이다.

평가 기준	확인
1인 가구 증가 실태와 관련하여 ㉠을 활용하기에 적절한 주제를 썼다.	☐
환경 오염과 관련하여 ㉡를 활용하기에 적절한 주제를 썼다.	☐
층간 소음 문제와 관련하여 ㉢를 활용하기에 적절한 주제를 썼다.	☐

대단원 평가



- 01** ⑤ **02** ② **03** ② **04** ⑤ **05** ④
06 ㉠: 스마트폰을, ㉡ 스마트폰에 **07** ④ **08** ②
09 ④ **10** ⑤ **11** ④ **12**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 공간의 특성과 그 특성을 악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려 하였다. **13** ④ **14** 강연 내용 안내, ('샌 안드레아스') 영화 포스터 사진 **15** ① **16** ⑤
17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현명하게 대처하자. **18** ①
19 ④ **20** ⑤ **21** ⑤ **22** ② **23** 발표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다. / 듣는 이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 발표의 분위기를 환기할 수 있다. 등

01 매체가 전달하는 모든 정보가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수용자는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사람들은 다양한 매체에서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이렇게 얻은 정보나 자기 생각을 매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도 한다.

② 매체는 정보와 의견을 나누는 소통 창구로서,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③ 매체는 신문이나 책과 같은 인쇄 매체, 라디오, 동영상, 텔레비전 뉴스 등과 같은 방송 매체, 블로그나 카드 뉴스와 같은 인터넷 매체로 나눌 수 있다.

④ 매체의 생산자는 자신의 의도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체를 선택하고,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한다.

02 인쇄 매체는 문자나 시각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동영상, 문자, 시각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매체는 인터넷 매체이다.

03 청자나 독자를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동영상 자료를 우선하여 수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04 이 공익 광고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을 경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을 경고한 ⑤의 문장이 이 광고문의 주제를 드러내기에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이 광고문에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자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스마트폰 사용보다 가족과의 대화가 더 의미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므로 이 광고에서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이 광고문은 사이버 폭력과 관계가 없다.

③ 이 광고문에는 과도한 게임으로 인한 건강 이상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이 광고문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득)와 피해(실)를 비교하기보다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태도에 초점을 두어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05 이 광고문에서는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 광고문은 사례를 통한 공감보다는 강한

인상을 주는 표현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의 글자를 크고 진하게 표현하였다.
 ② 사람과 스마트폰이 서로를 잡고 있는 사진을 활용하였다.
 ③, ⑤ '잡고 있습니까? 잡혀 있습니까?'라는 질문 형태의 유사한 구조의 두 문장을 사용하여 말의 재미를 더하고 있다. 질문 형태의 문장은 독자가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태도를 생각해 보게 한다.

06 서술형 ㉔에는 '잡고'의 대상인 '스마트폰을'이, ㉕에는 '잡혀'의 앞에 들어갈 말이므로 '스마트폰에'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기준	확인
'스마트폰'에 적절한 조사를 붙였다.	☐
'잡고'와 '잡혀'의 의미 차이를 고려하여 썼다.	☐

07 블로그에는 하나의 페이지에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다. 제시된 글에도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다.

- 오답 풀이** ① 누구나 블로그를 개설하고 게시물을 올릴 수 있으므로 전문가가 아니어도 정보를 쉽게 제공할 수 있다.
 ②, ⑤ 블로그에서는 댓글을 통해 글쓴이와 독자가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고, 독자와 또 다른 독자가 글에 대한 감상을 공유할 수 있다.
 ③ 블로그에서는 시각 자료, 청각 자료, 영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08 이 글은 그래프와 동영상과 같은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으며(㉑), 대상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과 같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㉒).

- 오답 풀이** 나. 스마트폰 노안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분석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 스마트폰 노안과 관련된 글쓴이의 경험은 드러나지 않는다.

09 이 글은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발생하는 스마트폰 노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스마트폰 게임 산업의 발전 현황이나 향후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

- 오답 풀이** ①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발생한 노안과 그에 따른 합병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자료이다.
 ② 스마트폰 노안을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적당히 사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절한 자료이다.
 ③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면 스마트폰 노안에 노출되는 대상의 범위가 커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자료이다.
 ⑤ 청소년들을 포함한 젊은 세대의 스마트폰 노안은 증상을 자각하지 못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 위험하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자료이다.

10 (가)에서 스마트폰 종류가 스마트폰 노안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지 않았다. 이 글에서 스마트폰 노안은 스마트폰을 잘못 사용하는 습관 때문에 생기는 증상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므로, 이 글을 이해한 독자는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태도를 점검하고 스마트폰 노안의 증상과 치료 및 예방법 등과 관련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

11 (나)에 사이버 불링이 범죄라는 사실은 제시되어 있지만 이로 인해 처벌을 받은 사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나)는 주요 쟁점을 그림이나 사진 등의 시각 자료와 간략한 글로 정리한 카드 뉴스이다.
 ② 카드 뉴스는 이동 통신 맞춤형 뉴스로 스마트폰을 주로 활용하는 젊은 층이 자주 이용한다.
 ③ 네 번째 카드 뉴스에서 사이버 불링의 개념을 설명하여 문제 상황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⑤ (나)는 실제 인물인 '키아라 나스티'라는 모델의 사진과 경찰청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12 서술형 ㉑은 모니터 앞에서 상자로 얼굴을 가린 사람들의 사진과 가상 공간에서의 대화 상황이 나타난 그림을 합성하여 가상 공간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익명성을 이용하여 그 특성을 익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했다는 내용을 담아 답을 썼다.	☐

13 강연자는 영화를 본 후 딸이 영화 속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면 어떡하냐며 무척 걱정을 했다고 하여 딸의 말을 간접 인용하였으나 직접 인용하지는 않았다. 또한 강연자의 딸 외에 다른 중학생들의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나)에서 땅의 특성, 지진의 개념과 발생 원인 등 과학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지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② (가)에서 영화 포스터에 관한 질문을 던진 후 듣는 이가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가졌다.
 ③ (가)에서 "오늘 제 강연을 듣고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침착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며, 강연을 통해 듣는 이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밝혔다.
 ⑤ 강연자는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고 적힌 '샌 안드레아스'라는 영화의 포스터를 제시하여 듣는 이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

14 서술형 (가)는 이 강연의 처음 부분으로, 강연자는 자신을 소개하고 앞으로 이어질 강연 내용을 안내하였다. 또한 지진에 관련된 영화인 '샌 안드레아스'라는 영화 포스터 사진을 활용하여 강연 주제에 대한 듣는 이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강연 내용 안내'라는 핵심 내용을 썼다.	☐
사용한 매체 자료인 '영화 포스터 사진'을 썼다.	☐

15 ㉑은 지진의 발생 과정을 보여 주는 동영상이다. 강연자는 이 동영상을 강연 중 적절한 때에 제시하여 강연의 분위기를 환기할 뿐만 아니라, 듣는 이가 지진이 발생하는 과정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 오답 풀이** ② 매체 자료는 강연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한다.
 ③ 지진의 발생 원인을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지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이 강연의 목적에 부합한다.

- ④ 자료의 내용으로 보아 표의 형태보다 동영상이나 내용을 실감 나게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다.
- ⑤ 지진의 개념 요약이 아닌,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한 자료이다.

16 강연 도중 질문을 하면 강연의 흐름의 끊길 수 있으므로 궁금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 있더라도 바로 질문하는 것을 삼가고, 질의응답 시간이나 강연이 끝난 뒤 질문해야 한다.

17 서술형 강연자는 강연의 마지막 부분인 (라)에서 이 강연의 내용을 잘 기억하면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라)를 바탕으로 썼다.	☐
'~(하)자.'의 문장 형태로 썼다.	☐

18 (가)에 따르면 지진이 발생할 경우 땅이 뒤틀리면서 지상 및 지하 구조물이 붕괴되기도 하고, 그 여파로 해일과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한다.

19 지진이 일어난 나라 이름을 표로 제시하면 각 나라의 위치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지진대의 모양도 더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지도를 보면 환태평양 조산대가 고리 모양을 하고 있어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 수 있다.

② 지도를 통해 일본과 남미가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지도를 통해 화산의 분포와 조산대가 대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지도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진대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세계 어느 곳도 지진에 안전하다고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20 강연자는 장소(건물 안, 건물 밖)에 따른 지진 대처법을 먼저 설명한 후, 이 내용을 정리한 표를 화면으로 보여 주고자 한다.

21 <보기>는 층간 소음 문제를 보여 주는 그림이다. 층간 소음은 공동 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해를 말하며 식탁을 끄는 소리, 화장실 물소리, 텔레비전 소리 등을 포함한다. 반면 백색 소음이란 비 오는 소리, 시냇물 소리, 바람 소리 등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자연 소음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보기>에 드러난 우리 사회의 문제와 거리가 멀다.

22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을 주제로 하여 발표할 때에는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생활 방식이나 습성 등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23 서술형 매체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발표를 하면 듣는 이에게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으며, 듣는 이의 흥미를 유발하고 발표의 분위기를 환기하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 새롭게 보고, 다양하게 표현하고



(1) 문학 작품의 재구성

제재 1 소설 「춘향전」

내용 보기 1

135쪽

01 ④

02 ⑤

03 ④

04 ③

01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이 글의 서술자는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등장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오답 풀이 ① 거지는 들이지도 말라며 명령하는 '본관 사또'의 언행에서 인색한 '본관 사또'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② 이 글은 남원 부사의 아들 '몽룡'과 기생의 딸 '춘향'이 자신들의 신분에 상관없이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③ 이 글은 판소리의 영향을 받아 창작된 판소리계 소설이므로 운문체와 산문체가 함께 나타난다.

⑤ 이 글은 '본관 사또'와 '어사또' 간의 갈등을 바탕으로 앞으로 벌어질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내용 기르기

'판소리계 소설'이란 판소리의 창을 산문화하여 기록한 서사 문학을 말해, 그래서 「춘향전」과 같은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운문체'와 '산문체'가 모두 드러나. 여기에서 '운문체'는 일정한 글자 수나 음보로 외형적인 운율을 가지고 있는 문체를 가리키고, '산문체'는 외형적인 운율과 관계없이 줄글 형태로 자유롭게 서술하는 문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이 작품을 소리 내어 읽어 보면, 다른 소설과 달리 일정한 운율도 느낄 수 있는 거야.

02 '사령'은 잔치판에 걸어 들어가려는 '몽룡'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본관 사또'가 거지는 들이지 말라 했으며 '몽룡'을 문전 박대한다. 이로 보아 '본관 사또'는 이웃 읍 수령처럼 신분이 높은 사람은 환대하면서도 신분이 낮거나 행색이 초라한 사람들은 홀대하는 이중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03 ㉠은 화려한 잔치를 벌이는 탐관오리의 모습과 이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어사또'의 심리가 나타난 부분이다. 즉 '어사또'는 탐관오리의 횡포로 백성의 삶이 힘들어졌는데, 백성을 돌볼 생각은커녕 요란하게 잔치를 벌이는 수령들의 모습에 화가나 마음이 심란했던 것이다.

04 '운봉'은 걸인의 행색으로 어슬렁어슬렁 잔치판으로 걸어 들어와 고기와 술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어사또'의 모습에 그가 양반의 후예임을 짐작한다. 그래서 '어사또'를 잔치에 들어오도록 한 것일 뿐, '운봉'과 '어사또'는 서로 친분 관계가 없다.

- 오답 풀이** ① '춘향'은 '몽룡'에 대한 절개를 지키기 위해 '본관 사또'의 수청을 거절한 이유로 옥에 갇히게 된다.
- ② '본관 사또'는 하인을 불러 다과상을 올리고, 악공과 차일 등을 대령하라고 분부하며 자신의 생일잔치를 분주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인다.
- ④ '본관 사또'는 '운봉'의 요청에 마지못해 '어사또'를 잔치 자리에 앉히도록 허락한다. 그러나 뒤의 말줄임표에서 이를 못마땅해하는 '본관 사또'의 심리를 짐작할 수 있다.
- ⑤ "도적질은 내가 하마. 오랏줄은 네가 저라."라는 말은 원래 '나쁜 짓을 해서 이익은 자기가 챙기고, 책임은 남에게 미룬다.'라는 뜻이나, 여기서는 '본관 사또'의 생일잔치를 엉망으로 만들고 '본관 사또'를 혼내겠다는 '어사또'의 의지를 드러낸 말로 쓰였다.

내공 쌓기 ②

137쪽 01 ② 02 ③ 03 언어유희 04 ①

01 '변 사또'는 '어사또'가 쓴 시의 뜻을 눈치채기는커녕 술주정을 부리기까지 하는 반면에, '운봉'은 시의 뜻을 눈치채고 '어사또'의 정체가 예상롭지 않다고 느낀다. 이처럼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을 대조하여 '변 사또'의 아둔함을 부각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④ '운봉'이 수하들을 불러 바빠 단순한 까닭은 곧 일어날 암행어사 출두에 서둘러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그가 성미가 급해서라고 볼 수 없다. 반면 '변 사또'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의문스러운 인물로 보기 어렵다.
- ③ '운봉'은 '어사또'의 시가 탐관오리를 질타하는 내용임을 파악하고 가슴이 찡렁 내려앉는다. 이는 자신들이 그 질타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며, '운봉' 역시 양심적인 지배 계층의 본보기가 아님을 보여 준다.
- ⑤ 이 글에서 '운봉'은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02 '어사또'가 지은 시에는 백성의 고통은 외면한 채 흥청망청 잔치를 즐기고 있는 탐관오리들을 질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처럼 이 시는 흥겨운 잔치 자리에 찬물을 끼얹음으로써 분위기를 전환하여 극적 긴장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ㄷ),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예고한다(ㄴ).

[참고 자료] 풍자와 해학

'풍자'와 '해학'은 사회적 현상이나 현실을 과장, 왜곡, 비꼬는 방법으로 웃음을 유발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풍자'는 부정적인 대상이 지닌 결점이나 모순을 폭로하고 공격하는 성격을 띠는 반면, '해학'은 웃음으로 대상에 대한 호감과 연민의 성격을 띠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03 서술형 「춘향전」과 같은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등장인물의 우스꽝스런 행동, 반어와 과장, 동음이의어나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유희' 등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는 방법이 자주 사용된다. 「절정 ④」에서 신체 부위인 '갈비'와 음식 '갈비'의 말소리가 같은 것에 착안한 언어유희적 표현을 활용함으로써,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04 [A]는 백성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탐관오리의 횡포를 질타하고 있는 시이다. 이는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이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는 것을 뜻하는 한자 성어인 '가렴주구(苛斂誅求)'로 나타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② '결초보은(結草報恩)'은 죽은 뒤이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을 이르는 말이다.
- ③ '부화뇌동(附和雷同)'은 주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을 이르는 말이다.
- ④ '오리무중(五里霧中)'은 오리나 되는 짙은 안개 속에 있다는 뜻으로, 무슨 일에 대하여 방향이나 갈피를 잡을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 ⑤ '호가호위(狐假虎威)'는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을 이르는 말이다.

내공 쌓기 ③

139쪽 01 ⑤ 02 ① 03 ③

01 ⑦에서 '어사또'는 '서리'에게 눈길을 주어 신호를 한다. 이후 '서리'와 역졸들이 암행어사 출두를 준비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어사또'가 '서리'에게 보낸 신호에는 어사출두를 준비하라는 뜻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02 ①은 암행어사 출두를 알리는 소리이다. 이처럼 암행어사가 갑작스럽게 출두하면서 '변 사또'의 생일잔치가 벌어지던 공간은 일순간에 탐관오리를 징계하는 공간으로 바뀐다. 따라서 ①은 극적인 반전을 일으켜 긴장감을 형성하는 한편, 분위기를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 오답 풀이** ② '어사또'의 시와 같이 앞부분에서 암행어사 출두를 예고하는 장치들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사건 전개에 우연성과는 관련이 없다.
- ③ 갑작스런 암행어사 출두로 인해 분위기가 급박하게 전환되고 있지,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다.
- ④ 암행어사 출두로 인해 악인이 선인으로 변하는 등의 성격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⑤ 암행어사 출두로 탐관오리가 징계되고 옥에 갇힌 '춘향'이 풀려나 '몽룡'과 극적인 재회를 하게 되므로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내공 기르기

사건 전개상 특정 장면의 역할이나 기능을 확인하는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제시된 장면을 기준으로 앞뒤 사건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그 장면을 중심으로 작품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장인물에 변화가 생기는지 등을 살펴보는 거지. 「춘향전」에서 암행어사 출두 장면은 갈등이 해소되는 결정적인 부분이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해. 암행어사 출두를 전후로 등장인물의 처지나 일의 형세가 확연히 바뀌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렴.

03 ④는 허둥대며 도망가는 관리들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인물의 희화화를 통해, ⑥는 '들어온다'와 '달아라', '마르다'와 '들여라'의 위치를 바꾸어 표현하는 언어유희를 통해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내공 쌓기 ④

141쪽 01 ① 02 ② 03 ③ 04 '춘향'의 지조와 절개

01 '춘향'은 자신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어사또'를 '명관'이라고 비꼬며,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다. 이를 통해 '춘향'이 당차고 의지가 강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02 '어사또'가 '춘향'을 모른 척하며 수청을 요구한 이유는 '춘향'의 마음을 떠보면서 자신을 향한 '춘향'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03 ㉠은 기생의 딸인 '춘향'이 정렬부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는 부분이다. 출생 신분을 중시하는 봉건 사회에서 '춘향'이 '몽룡'과 혼인해 정렬부인이 되는 과정은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고 싶은 당대 민중들의 소망을 보여 준다.

04 서술형 '높은 절벽 높은 바위(㉡)', '푸른 술 푸른 대(㉢)'는 쉽게 변하지 않는 속성을 지닌 상징물이다. '춘향'은 자신에게 고통과 시련이 닥쳐도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이 두 상징물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와 ㉢의 상징적 의미를 정확하게 썼다.	☐
3어절로 썼다.	☐

제재 ② 만화 「춘향전」

내공 쌓기 ①

142쪽 01 ④ 02 ④

01 만화의 기본 요소 중 등장인물의 표정과 행동, 이야기가 전개되는 시공간 등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것은 '그림'이다. '말풍선'은 주로 등장인물의 대사, 그림만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등장인물의 생각이나 대화 내용, 말의 인상 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활용된다.

02 이 장면에서는 '씩'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만화 속 등장인물의 행동에 생동감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등장인물의 행동을 구체화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장면은 서술자의 개입 없이,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② 이 장면에서 날카로운 모양의 말풍선을 확인할 수 있지만, 서로 색이 다른 말풍선을 찾아볼 수 없다.

③ 이 장면에서는 '변 사또'의 생일잔치가 열린 공간 안에서 모든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

⑤ 이 장면에서는 각 등장인물의 특징을 살려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 이야기에 사실성을 더할 만큼 세밀하고 구체적인 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내공 쌓기 ②

143쪽 01 ③ 02 ④

01 '좋은 잔치에 와서는 술과 안주 실컷 먹고'는 잔치에서 형편없는 대접을 받은 '몽룡'이 술과 안주를 포식했다고 반어적으로 말함으로써, '변 사또'의 태도를 비꼬는 표현이다.

02 마지막 장면에 제시된 말풍선 안의 '느낌표'는 사람들이 '몽룡'의 시를 듣고 그가 심상치 않은 인물임을 짐작하고 놀랐음을 드러낸다. 이와 같이 만화는 만화의 기본 요소를 활용하여 작품 속 상황이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내공 쌓기 ③

144쪽 01 ⑤ 02 살금살금, 씹

01 원작과 달리 만화에서는 '운봉'이라는 특정 인물을 내세우지 않고 '변 사또'의 생일잔치에 참석한 각 고을 수령들이 '몽룡'의 정체를 직감하고 황급히 자리를 뜨는 장면을 간략히 보여 주고 있다.

내공 기르기

같은 작품이라도 매체와 갈래의 특성에 따라 구현되는 양상이 제각각이거나, 관점에 따라 그 내용이 원작과 달라지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해. 문학 작품이 만화로 재구성될 때 만화의 특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러한 만화의 특징이 작품을 감상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생각해 보렴.

02 서술형 '살금살금'과 '씹'은 '어사또'의 신분을 알아챈 사람들이 눈치를 살피며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음성 상징어이다.

평가 기준	확인
음성 상징어 '살금살금'을 썼다.	☐
음성 상징어 '씹'을 썼다.	☐

내공 쌓기 ④

145쪽 01 ① 02 ③

01 이 만화에서 '어사또'가 "암행어사 출두야!"를 외치는 모습을 확대한 이유는 핵심이 되는 사건과 이야기의 반전을 강조해 분위기를 전환하고, 읽는 이의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어사또'가 지금까지 지내온 경로나 경력을 밝히기 위한 의도와는 관련이 없다.

02 ‘암행어사 출두’ 장면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말풍선 안의 글자 색은 다른 말풍선 안의 글자 색과 똑같다.

오답 풀이 ①, ④ ‘암행어사 출두’ 장면에서는 말풍선의 크기를 크게 하고, 모양을 날카롭고 비죽비죽 튀어 나오게 표현하여 핵심 사건을 강조하였다. ②, ⑤ ‘암행어사 출두’ 장면에서는 글꼴을 바꾸고, 글자 크기를 키워 다른 장면과 차별을 두었다.

 **내공 쌓기 ⑤**

146쪽 **01 ③ 02** 사건이 일단락되었음을 나타낸다. / 다음 사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한다.

01 이 장면은 암행어사 출두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암행어사 출두에 떨고 있는 관리들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그려 내고 있다. 특히 ‘변 사또’가 겁에 질려 당황하는 모습을 여러 칸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읽는 이에게 통쾌함을 준다.

오답 풀이 ① 이 장면에서는 말을 거꾸로 탄 사람, 갓을 거꾸로 쓴 사람, 나무에 올라간 사람 등 암행어사 출두로 혼비백산하여 떨고 있는 관리들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였다. ② 이 장면에서는 ‘와장창’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부패한 관리들 잡아들이는 서리·역졸들의 움직임을 역동적으로 나타내었다. ④ 이 장면에서는 “암행어사 출두야!”를 외치며 역졸들이 관아를 향해 뛰어가는 장면을 칸 구분 없이 크게 그려 강조하였다. ⑤ 이 장면에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정면을 매섭게 바라보는 암행어사의 모습을 그려 엄숙한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02 서술형 하늘만 그려 놓은 칸은 암행어사 출두와 함께 부패한 관리들을 잡는 사건이 일단락되었음을 나타낸다. 또한 암행어사 출두로 시끌벅적했던 상황을 정리하여 다음 사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평가 기준	확인
사건이 일단락되었음을 나타낸다는 내용을 썼다.	☐
다음 사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한다는 내용을 썼다.	☐

 **내공 쌓기 ⑥**

147쪽 **01 ⑤ 02 ④**

01 제시된 장면에서 ‘어사또’가 ‘춘향’에게 “죽어 마땅하되 내 수청도 거역할까?”라고 말하며 수청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는 ‘춘향’의 마음을 떠보면서 자신을 향한 ‘춘향’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어사또’의 말만 굵은 글자체로 표현한 이유는 ‘춘향’의 절개를 시험하려는 ‘어사또’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2 ‘어사또’ 역시 ‘변 사또’와 마찬가지로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하자 이에 기막혀하는 ‘춘향’의 심정을 강조하기 위해 강한 색과 날카로운 모양의 말풍선 안에 느낌표를 넣어 표현하였다.

 **내공 쌓기 ⑦**

148쪽 **01 ⑤ 02 ⑤ 03** 효과선을 넣었다.

01 ‘춘향’의 말 중, “어젯밤에 뵈고 나서 어디 가셨는지, 나 죽는 줄도 모르는구나.”를 통해 ‘몽룡’이 어사또로 나타나기 전에 ‘춘향’이 ‘몽룡’을 이미 만났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장면은 ‘춘향’과 어사또가 된 ‘몽룡’이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으로, ‘춘향’은 아직 ‘몽룡’의 정체를 눈치 채지 못하고 있다. ② ‘몽룡’은 ‘춘향’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 자신의 정체를 아직 드러내지 않고 있다. ③ ‘춘향’은 부당한 요구를 하는 ‘어사또’에게 자신의 변함없는 절개를 강조하며 어서 바빠 죽어 달라고 말한다. 이로 보아, ‘춘향’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임을 알 수 있다. ④ ‘춘향’의 말인 “나 죽는 줄도 모르는구나.”를 통해 ‘몽룡’이 곁에 없음을 한스러워하는 ‘춘향’의 마음을 알 수 있다.

02 ㉠에서 ‘몽룡’은 자신을 향한 ‘춘향’의 변하지 않은 마음을 확인하고 흡족해한다. 이러한 ‘몽룡’의 심정을 그의 표정으로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3 서술형 만화는 동영상과 달리 연속된 동작을 한 컷에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에 효과선이나 효과음 등을 사용하여 동작을 표현하는데, ㉡에서는 효과선을 넣어 고개를 드는 동작을 표현하고 있다.

 **내공 쌓기 ⑧**

149쪽 **01 ④ 02 ①**

01 원작에서는 서술자의 말과 등장인물의 대사로 감격스러운 재회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였으나, 만화에서는 대사보다는 그림에 중점을 두어 작품 속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몽룡’을 향해 뻗는 ‘춘향’의 손을 확대하여 ‘몽룡’을 향한 ‘춘향’의 그리움과 애뜻함을 보여 준다. ② 두 인물이 재회하는 극적인 장면을 강조하기 위해 칸을 크게 나타냈다. ③, ⑤ 기본 배경을 밝고 화려한 색으로 처리하고, 색이 퍼지는 듯한 효과를 주어 두 인물의 감격스러운 재회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02 ‘춘향’이 옥에 갇혀 고초를 겪다가, 어사또가 된 ‘몽룡’을 만나는 행복한 결말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의미를 지닌 한자 성어 ‘고진감래(苦盡甘來)’로 표현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적반하장(賊反荷杖)’은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이다.

③ '과유불급(過猶不及)'은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으로, 중용(中庸)이 중요함을 이르는 말이다.

④ '선견지명(先見之明)'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앞을 내다보고 아는 지혜를 이르는 말이다.

⑤ '형설지공(螢雪之功)'은 반딧불 · 눈과 함께 하는 노력이라는 뜻으로, 고생을 하면서 부지런하고 꾸준하게 공부하는 자세를 이르는 말이다.

내공 쌓기 9

150쪽 01 ㉔ 02 ㉔: 생략된 내용, ㉔: 생동감

01 이 장면에서는 말풍선 없이 줄글과 그림만으로 '춘향'과 '몽룡'의 재회 후 이어지는 사건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혼례를 올리는 두 인물의 모습을 과장 없이 보여 주고 있다.

③, ④, ⑤ 이 장면에서는 효과음과 말풍선이 사용되지 않았다. 서술자의 생각은 글 상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 서술형 만화는 분할된 칸에 그린 그림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함축성을 지니며, 등장인물의 표정이나 행동 등을 시각화하여 전달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소설을 만화로 재구성할 경우, 칸과 칸 사이에 생략된 내용을 유추해 보는 재미를 주거나 생동감 있는 표현으로 읽는 이의 흥미를 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㉔에 '생략된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㉔에 '생동감'과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썼다.	☐
㉔은 2어절로, ㉔은 3어절로 썼다.	☐

내공 쌓기 10

151쪽 01 ㉔ 02 ㉔

01 이 장면은 결말 부분으로, '춘향'과 '몽룡'이 극적으로 재회하며 작품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모습을 별도의 칸 구분 없이 나타내고 있다.

02 「춘향전」이 지금까지 다양한 갈래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이유는 인간의 보편적 정서인 사랑을 소재로 하여 시대를 넘어선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관점에서 인물을 재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춘향전」에서는 선인 '이몽룡'과 악인 '변학도'의 대립이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나타난다.

② 「춘향전」에서 '춘향'이 중심인물이기는 하지만 영웅적인 면모가 부각되거나 새로운 모험담을 끌어내지 않고 있다.

③ 문학 작품을 재구성할 때에는 새로운 관점에서 원작을 해석하고 평가하므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한다.

⑤ 「춘향전」에는 절개라는 유교적 이념을 중시한 조선 시대의 가치가 담겨 있으나, 오늘날의 시대적 가치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예상 문제

본문 152~157쪽

- 01 ㉔ 02 ㉔ 03 달 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고
04 ㉔ 05 ㉔ 06 '변 사또'는 눈치가 없고 상황 판단력이 없는 반면, '윤봉'은 눈치가 빠르고 상황 판단력이 있다. 07 ㉔
08 ㉔ 09 ㉔ 10 ㉔ 11 ㉔ 12 ㉔ 13 ㉔
14 대사, 상황 15 ㉔ 16 ㉔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17 재구성 2단계 18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인 '사랑'을 소재로 하여 시대를 넘어선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 다양한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등 3단계 19 •[A]: 줄글로, 이어지는 사건의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한다. •[B]: 그림으로, 「춘향」과 「몽룡」의 행복한 결말을 보여 준다.

01 고전 소설은 주로 막연하고 비현실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이 글은 「전라남도」 남원읍이라는 구체적인 현실적인 배경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작가 미상의 작품으로, 판소리의 영향을 받아 창작된 판소리게 소설이다.

② 이 글은 판소리 특유의 풍자적인 표현과 다양한 수사법을 활용하여 표현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③ 이 글은 자유연애 사상, 평등사상을 고취한 반봉건적 문학으로 평가받는 작품으로, 조선 후기 서민의 풍속과 당대 사회에 싹트고 있던 근대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④ 가생의 딸인 '춘향'이 양반인 '몽룡'과 결혼하고, 임금에게 '정렬부인'이라는 칭호를 받으며 신분 상승을 하는 내용에서 평등한 사회에 대한 갈망이라는 주제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해학과 풍자

	해학	풍자
공통점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표현하여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나타내고 웃음을 유발함.	
차이점	부정적인 인물에게 공격받는 대상에 대한 동정으로, 읽는 이에게 상황을 공감하게 만들.	부정적인 인물을 공격함으로써 작가가 생각하는 이상을 밝히며 읽는 이의 웃음을 유발함.

02 (다)는 암행어사가 출두하자 허둥대며 도망가는 관리들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부분으로, 관리들의 허위성을 보여 주어 탐관오리를 풍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어사또'가 시를 지어 탐관오리의 횡포를 비판하는 장면이나, 지배 계층이 허둥대는 모습은 담겨 있지 않다.

②, ④ (나)는 '어사또'의 암행어사 출두 장면이고, (라)는 '어사또'가 '본관 사또'를 징계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장면이다. (나)와 (라)에는 회화화를 통한 당대 관리들의 허위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⑤ (마)는 임무를 마친 '몽룡'이 임금과 관리들에게 능력을 인정받고, 절개를 끝까지 지킨 '춘향'이 임금으로부터 '정렬부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장면으로, 지배 계층이 허둥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03 서술형 「달」과 「햇빛」은 어둠을 밝히는 소재이고, 「마패」는 부정부패한 관리들을 징벌하는 암행어사를 상징하는 소재이다. 그

리므로 ‘달 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고’는 ‘마패’를 ‘햇빛’과 ‘달’에 비유하여 탐관오리에게 고통받는 백성의 삶을 구제할 것임을 암시하는 표현이다.

평가 기준	확인
제시된 두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표현을 찾아 썼다.	☐
6여절로 썼다.	☐

04 ‘촉루낙시에 민루락이요’는 ‘촉논이 떨어질 때 백성들 눈물도 떨어지고’로 풀이할 수 있다. 이 시는 탐관오리의 사치와 백성의 고통을 대비하여 탐관오리의 횡포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촉루낙시’는 탐관오리의 사치를, ‘민루락’은 백성의 사정을 나타낸다.

- 오답 풀이** ①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는 ‘금 술잔의 좋은 술은 수많은 사람의 피요’로 풀이할 수 있다. 즉 ‘금준미주’는 부정부패한 관리들의 삶을 뜻하고, ‘천인혈’은 백성의 고통스런 삶을 뜻하므로 그 의미가 대비된다.
- ② ‘옥반가효’는 ‘옥쟁반의 좋은 안주’로 풀이할 수 있다. 즉 관리들이 즐기는 값비싼 그릇과 좋은 음식은 백성을 수탈하여 부당하게 축적한 재물에 해당한다.
- ③ ‘원성고’는 ‘(백성의) 원망의 소리도 높구나.’로 풀이할 수 있다. 백성의 원망 소리는 백성을 돌보지 않고 사리사욕만을 채우는 관리들의 부정부패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⑤ ‘어사또’가 지은 시는 탐관오리가 횡포를 부리는 현실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한자 성어는 관리들의 가혹한 정치를 의미하는 ‘가렴주구(苛斂誅求)’이다.

05 ㉠의 갈등은 신분제 사회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갈등의 양상은 기생의 딸인 ‘춘향’이 양반인 ‘몽룡’과 부부의 연을 맺어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 오답 풀이** ①, ②, ③ ㉢에서는 암행어사인 ‘몽룡’이 탐관오리인 ‘변학도’를 벌함으로써 ‘탐관오리에 대한 응징’이라는 주제 의식을 전달하고 있다. ㉠에서는 ‘변학도’가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하고, ‘춘향’은 절개를 지키려 함으로써 ‘몽룡’을 향한 ‘춘향’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에서는 신분제 사회 속에서 기생의 딸인 ‘춘향’이 양반인 ‘몽룡’과 부부의 연을 맺음으로써 ‘평등한 사회에 대한 갈망’이라는 주제 의식을 전달하고 있다.
- ④ ㉠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변학도’의 수청을 끝까지 거부하는 ‘춘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춘향’의 모습에서 부정부패한 지배 계층에 대한 백성의 저항을 엿볼 수 있다.

내용 기르기

소설이나 극과 같은 갈래에서는 갈등을 통해 주제를 전달해,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 인물과 그 인물이 속한 사회와의 갈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이 전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렴. 특히 「춘향전」은 ‘몽룡’과 ‘변학도’, ‘춘향’과 ‘변학도’, ‘춘향’과 사회와의 갈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갈등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거야.

06 서술형 ‘운봉’은 ‘몽룡’이 지은 시를 통해 ‘몽룡’의 정체를 눈치채고 암행어사 출두에 대비하기 위해 육방을 불러 단속하고 있다. 반면 ‘변 사또’는 시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운봉’

에게 어디를 바빠 다니냐고 묻는 아둔한 모습을 보인다. 즉 ‘운봉’은 ‘변 사또’와 달리, 눈치가 빠르고 상황 판단력이 있는 인물이다.

평가 기준	확인
‘변 사또’와 ‘운봉’의 성격을 적절하게 썼다.	☐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

07 ㉠은 과장된 표현으로, 암행어사의 위세를 표현하고 있을 뿐, 백성의 피해한 삶과는 관련이 없다.

- 오답 풀이** ① ㉠은 봉건적 질서에서 벗어나 남녀가 자유롭게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은 ‘운봉’이 암행어사 출두에 대비해 육방을 단속하는 장면을 장황하게 과장하여 서술한 부분으로, 이와 같은 장면의 극대화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에 해당한다.
- ④ ㉢은 ‘몽룡’이 ‘춘향’을 모른 척하면서 ‘춘향’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 말로, ‘몽룡’의 능청스러운 모습을 보여 준다.
- ⑤ ㉣은 ‘춘향’이 ‘변학도’의 수청을 거부하다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자신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열거법과 대구법

열거법	내용이 연결되거나 비슷한 어구를 여러 개 늘어놓아 전체의 내용을 나타내는 표현법 예 꽃밭에는 장미, 백합, 튜립, 국화가 활짝 피어 있다.
대구법	비슷하거나 동일한 문장 구조를 짝을 맞추어 늘어놓는 표현법 예 법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08 만화에서는 말풍선 자체가 하나의 시각적 이미지로 작용하기 때문에 말풍선의 모양에 따라 말의 인상이 달라지며, 말풍선 안의 글자 크기나 글자체 등을 활용하여 의미를 부각한다.

- 오답 풀이** ① (가)~(마)에서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칸이 사용되었다.
- ② 만화는 글과 그림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바탕으로 시각적 표현을 중시한다. (가)~(마)에서 ‘살금살금’, ‘씩’ 등의 음성 상징어도 시각적인 효과를 더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림을 통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그러므로 청각적 표현보다 시각적 표현에 중점을 둔다고 볼 수 있다.
- ③ (가)~(마)에서 말풍선은 등장인물의 대사를 전달할 때 주로 사용하였다.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판단이 드러난 말풍선은 찾아볼 수 없다.
- ④ (가)~(마)에 나타난 칸의 개수와 말풍선의 개수는 일치하지 않는다.

09 (가)는 걸인 차림을 한 ‘몽룡’이 ‘변학도’의 생일잔치에 끼여든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는 인물들의 말이 담긴 말풍선과 그림으로 상황을 보여 주고 있을 뿐, 줄글을 활용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② (나)에서 말풍선 안의 느낌표는 사람들이 ‘몽룡’의 시를 듣고 그가 심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놀란 상황임을 보여 준다.
- ③ (다)에서 음성 상징어 ‘살금살금’과 ‘씩’은 ‘몽룡’의 정체를 눈치챈 사람들이 잔치판을 조심스럽게 빠져 나가는 모습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음성 상징어는 정지된 만화 속 등장인물의 행동에 생동감을 불어넣어 상황을 실감 나게 전달한다.
- ④ (라)에서는 핵심이 되는 사건과 이야기의 반전을 강조하여 분위기를 전환하고, 읽는 이의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어사또’가 ‘암행어사 출두’를 외치는 모습을 확대하여 표현하였다.

⑤ (마)에서 하늘만 그려 놓은 칸은 암행어사 출두로 시름벅적했던 상황을 정리하여 사건이 일단락되었음을 나타내고, 다음 사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한다.

10 (가)~(마)는 거지 차림으로 '변학도'의 생일잔치에 온 '몽룡'이 탐관오리의 횡포와 가렴주구를 질타하는 시를 지어 읽은 후, 암행어사 출두를 행해 '변학도'를 벌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사건 전개 과정을 통해 '부정부패한 탐관오리에 대한 응징'이라는 주제 의식이 드러난다.

11 (다)는 기본 배경을 화려한 색으로 처리하고, 색이 퍼지는 듯한 효과를 주어 두 인물의 감격스러운 재회를 강조한 장면으로 내용이 허상임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작품 속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보인다.

12 <보기>의 시조는 '성삼문'이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처형될 때, 자신의 변하지 않는 충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낙랑장승'은 굳은 절개를, '백설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는 수양대군이 왕권을 장악한 상황을 나타낸다. 그리고 '홀로 푸르리라'는 이러한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지조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나타낸 표현이다. 따라서 [A]의 '눈'과 <보기>의 '백설'은 계절감을 강조하는 소재가 아니라, 화자를 위협하는 존재나 환경을 가리킨다.

- 오답 풀이** ① '춘향'과 <보기>의 화자는 죽음을 무릅쓰더라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② '춘향'은 '몽룡'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보기>의 화자는 자신이 따르는 임(단종)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③ [A]의 '바위'와 <보기>의 '낙랑장승'은 모두 굳은 절개를 의미한다.
 ⑤ [A]와 <보기>에서 '나무'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소재로 쓰였다.

[참고 자료] '성삼문' 시조의 창작 배경

유교적 이념을 중시하던 사대부들에게는 임금을 향한 충성이 중요한 덕목이었다. 조선 단종 원년(1453)에 수양 대군이 정권을 탈취한 사건인 계유정난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대부들은 단종의 복위를 꾀하지만, 결국 희생된다. 이처럼 희생된 충신들을 가리켜 사육신이라고 하는데, '성삼문' 역시 이 사육신 중 한 사람으로 단종에 대한 신의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를 시조로 남겼다.

13 (나)에서 암행어사 출두로 혼을 잃고 도망가는 관리들의 모습을 말풍선과 그림을 통해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만화에서는 역졸들의 움직임을 역동적으로 표현하였지만, 역졸들의 표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14 서술형 (라)는 '춘향'과 '몽룡'이 재회하는 장면으로, 인물들의 대사보다는 그림에 중점을 두어 작품 속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로 '대사', '상황'을 정확하게 썼다.	☐
각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차례대로 썼다.	☐

15 이 노랫말에서도 '변학도'의 신분은 '사또'로, 기력과 권세를 지닌 인물로 등장하므로 원작의 '변학도'의 신분을 새롭게 재구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오답 풀이** ①, ⑤ 이 글은 고전 소설 「춘향전」을 소재로 한 국악 노랫말로, 거지꼴이 되어 자신을 찾아온 '이몽룡'을 보고 흔들리는 '춘향'의 마음을 현실적인 시각으로 그려 낸 작품이다.
 ③, ④ 이 글의 '춘향'은 원작과 다르게 상경인인 '몽룡'을 버리고 '변 사또'를 택하여 신분을 상승시키겠다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처음 '몽룡'과의 연을 맺었던 까닭도 팔자를 고치기 위함이었음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춘향'은 부귀영화와 같은 실리적 가치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정신적 가치보다 실리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6 ㉠ 뒤에 '임 오기를 바라고도 바랐건만'이라는 노랫말을 통해 '춘향'이 옥에 갇힌 상황에서 '몽룡'을 애타게 기다렸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춘향'의 상황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한자 성어는 '자나 깨나 잊지 못함.'을 뜻하는 '오매불망(寤寐不忘)'이다.

- 오답 풀이** ① '각골통한(刻骨痛恨)'은 뼈에 사무칠 만큼 원통하고 한스러움 또는 그런 일을 이르는 말이다.
 ② '망운지정(望雲之情)'은 자식이 객지에서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이다.
 ③ '수구초심(首丘初心)'은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돈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이다.
 ④ '안분지족(安分知足)'은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을 알을 이르는 말이다.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17** 원작 소설 「춘향전」을 읽고 갈래를 만화로 바꿔 쓰거나 '춘향'의 성격을 재창조해 내용을 바꿔 쓰는 것 등을 문학 작품의 재구성이라고 한다. 재구성된 작품을 원작과 비교하며 감상하면 능동적으로 문학 작품을 수용할 수 있다.

2단계 **18** 고전 소설인 「춘향전」은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인간의 보편적 정서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의 신분 질서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는 등 다양한 주제 의식을 다루고 있다. 이 때문에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시대를 넘어서 공감할 불러일으키기도 하여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고전 소설 「춘향전」이 재구성되는 까닭을 바르게 썼다.	☐
한 가지 이상 썼다.	☐

3단계 **19** 만화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에는 그림, 말풍선, 줄글이 있다. [A]는 '춘향'과 '몽룡'에 관한 뒷이야기를 줄글을 통해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B]는 '춘향'과 '몽룡'이 혼례를 올리는 행복한 결말을 그림을 통해 보여 준다.

평가 기준	확인
[A]와 [B]에 해당하는 만화의 요소와 각 역할을 정확하게 썼다.	☐
[B]의 역할을 '행복한 결말'과 관련 지어 썼다.	☐

(2) 효과적인 표현을 담은 글

내공 쌓기 ①

161쪽 01 ② 02 ① 03 ① 04 ⑤

01 예로부터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전하여 오는 조상들의 지혜, 교훈이나 풍자가 담긴 쉽고 짧은 말을 ‘속담’이라고 한다.

- 오답 풀이** ① ‘새말’은 새로 생긴 말. 또는 새로 귀화한 외래어를 가리킨다.
 ③ ‘유행어’는 비교적 짧은 시기에 걸쳐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나 구절을 가리킨다.
 ④ ‘수수께끼’는 어떤 사물에 대하여 바로 말하지 아니하고 빗대어 말하여 알아맞히는 놀이를 가리킨다.
 ⑤ ‘지역 방언’은 한 언어에서, 지역적으로 분화되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쓰는 말을 가리킨다.

02 ㉠에 쓰인 표현은 속담이다. 속담에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터득해 온 지혜가 차곡차곡 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말의 고유한 표현이 살아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 오답 풀이** ㉡. 속담을 사용한다고 해서 세대 간의 언어 차이를 해소할 수는 없다.
 ㉢. 속담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 나라만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다.

03 ‘만 리 길도 한 걸음으로 시작된다’라는 속담과 ‘지금부터 부지런히 하면 된’다는 할머니의 말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속담으로 ‘시작이 반’이 적절하다. 이 속담은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일을 끝마치기는 그리 어렵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오답 풀이** ② ‘구관이 명관’은 무슨 일든 경험이 많거나 익숙한 이가 더 잘하는 법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가재는 게 편’은 모양이나 형편이 서로 비슷하고 인연이 있는 것끼리 서로 잘 어울리고, 사정을 보아주며 감싸 주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가는 날이 장날’은 일을 보러 가니 공교롭게 장이 서는 날이라는 뜻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은 일을 공교롭게 당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목구멍이 포도청’은 먹고살기 위하여,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04 ㉠의 일상적인 표현 대신 ㉡와 같이 속담을 활용하면, 전하려는 바를 간결하게 나타낼 수 있고 내용을 인상적으로 전할 수 있다. 또한 말에 재미를 더해 상대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는 어떤 계층이나 부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기네 구성원들끼리만 빈번하게 사용하는 말인 ‘은어’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내공 쌓기 ②

163쪽 01 ④ 02 ① 03 ②

01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하

게 주의를 하라는 속담으로, 자기 지식만 믿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상황에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02 제시된 상황에서 ‘딸’은 ‘엄마’가 저녁을 준비한 지 5분 만에 저녁이 다 됐냐고 묻고 있으므로, 이 상황과 어울리는 속담은 일의 순서도 모르고 성급하게 덤빔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우물에 가 숭늉 찾는다’이다.

- 오답 풀이** ② ‘구르는 돌은 이끼가 안 낀다’는 부지런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침체되지 않고 계속 발전한다는 말이다.
 ③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주관하는 사람 없이 여러 사람이 자기주장만 내세우면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자기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하여야 남도 자기에게 좋게 한다는 말이다.
 ⑤ ‘벼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교양이 있고 수양을 쌓은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남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03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거듭되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으로, 갑자기 변화한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비에 젖어 질척거리던 흙도 마르면서 단단하게 굳어진다는 뜻으로, 어떤 시련을 겪은 뒤에 더 강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시련을 계기로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때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③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서야 빈 외양간의 허물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떠나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이다. 따라서 뒤늦게 일을 수습하는 상황을 경계할 때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④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쉬운 일이라도 협력하여 하면 훨씬 쉽다는 말이다. 따라서 협력의 중요성과 가치를 표현할 때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철없이 함부로 덤비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경험이나 힘이 없는 사람이 겁 없이 출몰거리려는 상황을 나타낼 때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참고 자료] 속담의 뜻과 활용

•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뜻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
활용	일이 잘못된 뒤에야 실수를 깨닫거나 뒤늦게 일을 수습할 때

•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뜻	어떤 시련을 겪은 뒤에 더 강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활용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을 격려하거나 시련을 계기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때

•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뜻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거듭되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활용	자그마한 행동을 반복하여 큰 손해를 입을 때

• 구르는 돌은 이끼가 안 낀다

뜻	부지런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침체되지 않고 계속 발전한다는 말.
활용	꾸준한 노력을 강조할 때

내공 쌓기 ③

165쪽 01 ③ 02 ④ 03 손

01 관용 표현 ‘파김치가 되다’는 ‘몹시 지쳐서 기운이 아주 느슨하게 되다.’라는 의미이므로,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가슴이 찢리다’는 ‘심한 양심의 가책을 받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② ‘마음을 풀었다’는 ‘긴장하였던 마음을 늦추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④ ‘머리털이 곤두서다’는 ‘무섭거나 놀라서 날카롭게 신경이 긴장되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⑤ ‘나 몰라라 하다’는 ‘어떤 일에 무관심한 태도로 상관하지도 아니하고 간섭하지도 아니하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02 ㉠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는 의미의 관용 표현이다. 관용 표현은 둘 이상의 낱말이 한 덩어리처럼 굳어져, 각 낱말의 원래 뜻과는 다른 뜻을 지니는 특성을 갖고 있다.

03 **서술형** 관용 표현 ‘손을 내밀다’는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구걸하다.’라는 의미(첫 번째 문장에서의 뜻), ‘도움, 간섭 따위의 행위가 어떤 곳에 미치게 하다.’라는 의미(두 번째 문장에서의 뜻), ‘친하려고 나서다.’라는 의미(세 번째 문장에서의 뜻)를 지니고 있으므로 제시된 문장의 빈칸에 공통적으로 ‘손’을 넣는 것이 자연스럽다.

내공 쌓기 ④

167쪽 01 ③ 02 ⑤ 03 ④

01 ③의 ‘귀가 아프다’는 각 낱말의 기본적인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일반적인 표현이다. ‘귀가 아프다’가 관용 표현으로 쓰일 경우에는 ‘너무 여러 번 들어서 듣기가 싫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관용 표현 ‘발이 빠르다’가 사용된 문장으로, 이는 ‘알맞은 조치를 신속히 취하다.’라는 뜻이다.

② 관용 표현 ‘머리를 맞대다’가 사용된 문장으로, 이는 ‘어떤 일을 의논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서로 마주 대하다.’라는 뜻이다.

④ 관용 표현 ‘배를 불리다’가 사용된 문장으로, 이는 ‘재물이나 이득을 많이 차지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다.’라는 뜻이다.

⑤ 관용 표현 ‘손이 크다’가 사용된 문장으로, 이 문장에서는 ‘썸썸이가 후하고 크다.’라는 뜻이다.

내공 기르기

관용 표현은 각 낱말이 지닌 원래의 뜻과는 다른 특별한 뜻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관용 표현이 사용된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을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02 <보기>는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말과 하나의 주제로 묶일 수 있는 것은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루이다.’가 적절하다.

03 그림 속 ‘여우’는 포도 따기에 실패하자 포도 맛이 땀을 것이라고 변명하며 쉽게 포기하고 있다. 따라서 도전과 노력을 강조한 ‘스스로의 힘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은 자포자기와 같다.’라는 말을 활용하여, 상황이 어렵다고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자신을 속이기보다는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조언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②는 우정, ③은 배움, ⑤는 사랑과 관련된 표현으로 그림 속 ‘여우’의 상황과는 관련 없다.

내공 기르기

격언과 명언은 교훈이나 가르침을 주는 좋은 말이지만, 상황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오히려 말하려는 내용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돼. 격언과 명언 같이 다양한 표현을 많이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을 때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렴.

축집게 상상 문제

본문 168~171쪽

01 ④ **02** ③ **03** ④ **04** ② **05** ④ **06** 구
르는 돌은 이끼가 안 낀다 등 **07** ② **08** ② **09** ②
10 ④ **11** ⑤ **12** ⑤ **13** ⑤ **14** ⑤ **15** ⑤
16 ① **17** ③ **18** 침을 삼킨다(삼키다)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19** 친구 **2단계** **20** 어떤 일에 무관심한 태도로 상관하지도 아니하고 간섭하지도 아니하다. **3단계** **21** •속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뻘다 •뜻: 외부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오래전부터 있던 사람을 내쫓거나 해치려 하다.

01 속담은 조상들의 지혜를 담고 있다. 또한 예로부터 우리 생활에서 널리 쓰인 표현으로 우리말의 고유한 표현이 잘 담겨 있다. 속담은 주로 완결된 문장 형태이나, 표현이 짧고 함축적이어서 상황을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02 <보기>의 상황에서 ‘딸’은 바로 앞 책상 위에 휴대 전화를 두고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상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리어 대상에 대하여 잘 알기 어려움을 의미하는 속담인 ‘등잔 밑이 어둡다’가 <보기>의 상황과 어울린다.

오답 풀이 ① ‘누워서 떡 먹기’는 하기가 매우 쉬운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②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나쁜 일을 아무리 남모르게 한다고 해도 오래 두고 여러 번 계속하면 결국에는 들키고 만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천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무엇에나 순서가 있으니, 그 차례를 따라 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⑤ ‘아 해 다르고 어 해 다르다’는 같은 내용의 이야기라도 이렇게 말하여 다르고 저렇게 말하여 다르다는 말이다.

03 ‘천 리 길도 십 리’는 그리운 사람을 만나러 갈 때에는 먼 거리도 아주 가깝게 느껴짐을 의미하는 속담이다. 또한 ‘만 리 길도 한 걸음으로 시작된다’는 아무리 큰 일도 작은 일로부터 비롯된다는 말이므로, 이와 바꾸어 쓸 수 있는 속담은 무슨 일이나 그 일의 시작이 중요함을 의미하는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이다.

오답 풀이 ① 노는 일에 정신이 팔려 시간 가는 줄을 모르다가 밤늦게 허겁지겁 숙제를 하는 상황이므로 아주 재미있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라는 속담과 의미가 통한다.

② ‘게으른 놈 짐 많이 진다’는 게으른 사람이 일하기 싫어 한 번에 많이 해치우려고 함을 빈정대어 이르는 말로, 나태한 사람의 행동에 대한 비꼬는 의미가 담겨 있다.

③ 할머니의 말씀은 ‘만 리 길도 한 걸음으로 시작된다’, ‘시작이 반이다’의 의미를 고려할 때, 글쓴이를 격려하기 위해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시작이 반이다’는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일을 끝마치기는 그리 어렵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목표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을 때 쓰이기에 적절하다.

04 <보기>에서 ‘딸’은 어제 심은 토마토에 열매가 열렸는지를 성급하게 묻고 있으므로 이런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은 일의 순서도 모르고 성급하게 답함을 비유적으로 뜻하는 ‘우물에 가 송냥 찾는다’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가늘게 내리는 비는 조금씩 젖어 들기 때문에 여간해서도 옷이 젖는 줄을 깨닫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거듭되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강한 자들끼리 싸우는 통에 아무 상관도 없는 약한 자가 중간에 끼어 피해를 입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아니 댄 굴뚝에 연기 날까’는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있을 수 없거나, 실제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말이 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종로에서 뽕 맛고 한강에 가서 눈 흘기다’는 욕을 당한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못 하고 뒤에 가서 불평함. 또는 노여움을 애매한 다른 데로 옮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05 <보기>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학생들은 각자의 의견만 내세우고 있으므로, 주관하는 사람 없이 여러 사람이 자기주장만 내세우면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인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를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06 서술형 꾸준한 노력으로 수영 실력이 크게 나아진 친구의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은 부지런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침체되지 않고 계속 발전한다는 뜻을 지닌 ‘구르는 돌은 이끼가 안 낀다’이다. 또한 꾸준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부지런한 물방아는 열 새도 없다’ 등의 속담 역시 활용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와 같이 꾸준한 노력을 강조하는 의미하는 속담을 적절하게 썼다.	☐

07 ②의 대화에서 ‘갈 길이 멀긴 하네요.’라는 말은 낱말 그대로 ‘가야 할 길이 멀다.’라는 뜻이므로 <보기>에 제시된 관용 표현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발 디딜 틈이 없다’는 ‘복작거리어 혼잡스럽다.’라는 뜻을 지닌 관용 표현이다.

③ ‘간(이) 크다’는 ‘겁이 없고 매우 대담하다.’라는 뜻을 지닌 관용 표현이다.

④ ‘눈코 뜰 사이 없다’는 ‘정신 못 차리게 몹시 바쁘다.’라는 뜻을 지닌 관용 표현이다.

⑤ ‘입에 거미줄 치다’는 ‘가난하여 먹지 못하고 오랫동안 굶다.’라는 뜻을 지닌 관용 표현이다.

08 ㉠은 일반적인 표현이고, ㉡는 관용적인 표현이다. 관용 표현을 사용하면 일반적인 표현보다 상황을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와 ㉢의 의미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용 표현은 풍자성을 강하게 띠지 않는다.

③ ㉠은 의미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반면, ㉡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전달한다.

④ ㉠은 각 낱말의 기본적인 의미가 유지되는 반면, ㉡는 각 낱말의 원래 뜻과는 다른 뜻을 지닌다.

⑤ 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널리 쓰이는 관습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개인이 마음대로 바꾸어 쓸 수 없는 것은 ㉡이다.

09 ‘어떤 일이나 말 따위가 못마땅하여 기분이 언짢다.’를 의미하는 관용 표현은 ‘입이 쓰다’이고, ‘서로의 말이 일치하도록 하다.’를 의미하는 관용 표현은 ‘입을 맞추다’이다.

오답 풀이 ①, ③, ④, ⑤ ‘입을 막다’는 ‘시끄러운 소리나 자기에게 불리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다.’를, ‘입만 아프다’는 ‘여러 번 말하여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말한 보람이 없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입을 모으다’는 ‘여러 사람이 같은 의견을 말하다.’를, ‘입에 달라붙다’는 ‘입맛에 맞다.’를 의미한다.

내용 기르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누리집(<https://stdict.korean.go.kr>)에 핵심 단어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그 단어가 들어가는 다양한 관용 표현과 활용 예를 확인할 수 있어, ‘입’과 관련된 관용 표현을 더 찾아보고, 문맥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본다면 어휘 실력이 더욱 향상될 것이다.

10 <보기>에는 산속에서 길을 잃어 두려움과 초조함에 눈물까지 글썽거리는 상황이 나타나 있으므로 ‘매우 안타까워하거나 다급해하다.’라는 뜻을 지닌 ‘발을 구르다’가 빈칸에 들어갈 관용 표현으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관용 표현 ‘발을 빼다’는 ‘어떤 일에서 관계를 완전히 끊고 물러나다.’라는 뜻이다.

② 관용 표현 ‘발을 끊다’는 ‘오가지 않거나 관계를 끊다.’라는 뜻이다.

③ 관용 표현 ‘발을 디디다’는 ‘단체에 들어가거나 일의 계통에 참여하다.’라는 뜻이다.

⑤ 관용 표현 ‘발 벗고 나서다’는 ‘적극적으로 나서다.’라는 뜻이다.

11 ‘귀(를) 기울이다’는 ‘남의 이야기나 의견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모으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므로 길어지는 수업에 지루함을 느끼는 학생들의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무릎을 꿇다’는 ‘항복하거나 굴복하다.’라는 뜻을 지닌 관용 표현이다. 제시된 문장에서 적군의 항복 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그 쓰임이 적절하다.

② ‘눈을 붙이다’는 ‘잠을 자다.’라는 뜻을 지닌 관용 표현이다. 제시된 문장에서 안전한 운전을 위하여 잠시 잠을 자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그 쓰임이 적절하다.

③ ‘찬물을 끼얹다’는 ‘잘되어 가고 있는 일에 뛰어들어 분위기를 흐리거나 공연히 트집을 잡아 해살을 놓다.’라는 뜻을 지닌 관용 표현이다. 제시된 문장에서 돌지 않고 방해하는 것에 대해 책망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그 쓰임이 적절하다.

④ ‘머리를 굴리다’는 ‘머리를 써서 해결 방안을 생각해 내다.’라는 뜻을 지닌 관용 표현이다. 제시된 문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그 표현이 적절하다.

내공 기르기

이 문제와 같이 관용 표현의 쓰임이 적절한지를 묻는 경우에는 문맥을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 해. 그런 후, 관용 표현이 문맥에 맞는지를 점검해야겠지? 다양한 관용 표현을 많이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상황에 맞게 관용 표현을 활용할 수 있어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렴.

12 ⑤는 사랑에 관한 명언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 활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공부에 대한 의지를 다질 때는 노력이나 도전 등의 내용이 담긴 명언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외에 다른 명언들은 노력이나 도전, 실천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 제시된 상황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하다.

13 명언은 유명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 널리 알려진 말이기 때문에 대부분 처음 그 말을 한 사람이 분명하다.

오답 풀이 ①, ④ 명언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말로 사리에 맞는 훌륭한 말이다.

② 대부분의 명언은 교훈이나 가르침을 준다.

③ 대부분의 명언은 간결하고 짧은 형태의 문장이다.

내공 기르기

명언은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기 때문에, 명언을 잘 활용하면 상대방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에 설득력을 높일 수 있어, 특히 그 말을 한 사람이 사회에 공헌하는 정도나 그 업적이 클수록 명언의 힘도 강해진다.

14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쉽게 포기하는 만화 속 여우에게는 끝까지 노력하는 태도를 강조하는 조언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능력에 맞지 않는 지나친 욕심에 대한 경계를 의미하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는 조언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여우가 처음 포도를 보았을 때에는 포도 맛을 탐내다가, 포도 따는 것이 힘들어지자 포도가 익지 않아서 맛이 떨어 거라며 투덜거리며 포

도를 따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

② 여우가 얻고자 하는 포도는 우리가 살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나 목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여우가 포도를 얻기 위해서는 쉽게 포기하지 말고 다양한 시도와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④ ‘진정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격언은 꾸준히 노력하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쉽게 포기하고 노력하지 않는 여우에게 해줄 수 있는 말로 적절하다.

15 (마)의 ‘함부로 구기지 말고 ~ 모든 걸 아끼면서, 귀하게 다독이면서 살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글은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사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④ 자린고비와 구두쇠 이야기, 글쓴이가 중학교 때 겪은 이야기, 학교에서 글쓴이가 학생들 사이에서 있었던 이야기 등을 단편적으로 나열하여 글에 대한 독자의 흥미를 끌고 있다.

② (마)에 제시된 ‘아끼다 똥 똘지라도’는 ‘아끼다 똥 똘다’라는 속담을 재구성한 것이다. ‘아끼다 똥 똘다’는 물건을 너무 아끼기만 하다가는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으로, 글쓴이는 이 속담을 활용하여 아끼다가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더라도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③ 반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 아침에 고구마를 준비하는 글쓴이의 모습에서 반 아이들에 대한 글쓴이의 따뜻한 시선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수필

수필은 일상생활 속에서 얻은 생각이나 느낌을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쓴 글이다. 글쓴이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자기 고백적인 글이며, 글쓴이의 가치관이나 정서 등이 잘 드러나는 개성적인 글이다.

16 (나)에서 글쓴이는 친구의 아버지가 쥐포를 너무 아끼다가 쥐포에 곰팡이가 생겨 먹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을 본 경험을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속담은 물건을 너무 아끼기만 하다가는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아끼다 똥 똘다’이다.

오답 풀이 ② ‘쌀독에서 인심 난다’는 자신이 넉넉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무식도 갈면 바늘 된다’는 꾸준히 노력하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이룰 수 있다는 말이다.

④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남이 잘되는 것을 기뻐해 주지는 않고 오히려 질투하고 시기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손해를 크게 볼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마땅치 아니한 것을 없애려고 그저 덤비기만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17 (라)에서 글쓴이는 조금은 부족하여 무언가를 귀하게 여겼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아낄 것이 없는 오늘날을 아쉬워하고 있다.

18 서술형 글에서 학생들이 고구마를 보고 ‘사흘은 굶은 녀석들’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하였고, <보기>의 뜻풀이로 보아 ㉠에는 관용 표현 ‘침을 삼킨다(삼키다)’가 들어가야 한다.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19 제시된 두 표현은 모두 우정과 관련된 것으로,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친구'이다.

2단계 20 제시된 만화에서 '여학생'은 축제 준비로 지친 친구를 돕기 위해 친구의 일에 관심을 보이며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맥락을 통해 '나 몰라라 하다'는 '어떤 일에 무관심한 태도로 상관하지도 아니하고 간섭하지도 아니하다.'를 뜻하는 관용 표현임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밑줄 친 관용 표현의 뜻을 정확하게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3단계 21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서는 새로운 친구가 '나'와 단짝 친구 사이에 들어오면서 단짝 친구 자리에서 밀려나는 느낌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외부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오래전부터 있던 사람을 내쫓거나 해치려 함.'을 뜻하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뻘다'라는 속담을 활용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5어절로 이루어진 속담을 썼다.	☐
글의 제목과 관련된 속담을 썼다.	☐
속담의 뜻을 정확하게 썼다.	☐

본문 172~179쪽

대단원 평가

- 01 ③ 02 ② 03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하여 인물과 사건에 대해 논평한다(편집자적 논평). 04 ③
 05 말풍선 안에 느낌표를 넣어 표현하였다. 06 ②
 07 칸과 칸 사이에 생략된 내용을 유추해 보는 재미를 줄 수 있다. / 생동감 있는 표현으로 읽는 이의 흥미를 끌 수 있다. 등
 08 ④ 09 ㉠: 바람, 눈, ㉡: '춘향'의 지조와 절개
 10 ④ 11 ④ 12 원작에서의 '춘향'은 절개를 중시하는 유교적인 인물의 모습을 보이는 반면, 이 글에서 재구성된 '춘향'은 실리를 중시하는 현실적인 인물의 모습을 보인다. 13 ⑤ 14 ③ 15 ① 16 ①
 17 ⑤ 18 ① 19 벼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20 ③ 21 ② 22 ④ 23 ②
 24 ④ 25 ① 26 ⑤ 27 머리 28 ⑤
 29 ① 30 ① 31 ④ 32 ③

01 이 작품은 '춘향'과 '몽룡'의 자유로운 사랑과 그 성취 과정을 그린 고전 소설로, 자유연애 사상과 인간평등 사상을 드러낸 반봉건적 문학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⑤ 「춘향전」은 판소리 사설의 영향을 받아 소설로 정착된 판

소리게 소설이다.

② 「춘향전」은 조선 후기 서민의 풍속과 당대 사회에 싹트고 있던 근대 의식을 반영하는 한편, '변학도'로 대표되는 탐관오리의 부정한 행태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전달하고 있다.

④ 「춘향전」은 '춘향'과 '몽룡'이 백년가약을 맺는 행복한 결말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02 어사출두는 백성을 수탈한 탐관오리를 벌하기 위해 일어난 것이지, 단지 '어사또'를 홀대한 '본관 사또'의 행동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본관 사또'의 생일잔치에 온 '어사또'가 자신을 홀대하는 상처림에 통분하는 부분으로, 생일잔치 장면(㉠)에 해당한다. (나)는 '본관 사또'의 생일잔치에 모인 각 지역의 수령들이 어사출두로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부분으로, 어사출두 장면(㉡)에 해당한다. (다)~(라)는 '어사또'가 '춘향'의 절개를 시험한 후, '몽룡'과 '춘향'이 극적으로 재회하는 부분으로, 출두 이후 장면(㉢)에 해당한다.

③ ㉡에 해당하는 (나)는 암행어사가 출두하자 혼비백산하여 정신 없이 도망치는 관리들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당대 관리들의 허위성을 드러내고 있다.

④ ㉢에서는 어사출두로 생일잔치가 일순간 탐관오리를 징계하는 장으로 전환되고, ㉣에서는 '춘향'이 '어사또'로 나타난 '몽룡'과 극적으로 재회하고 있으므로 반전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⑤ 어사출두 이후, '본관 사또'의 봉고파직 및 '몽룡'과 '춘향'의 극적인 만남을 통해 작품에서 발생했던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내용 기르기

암행어사는 조선시대 왕명을 받고 비밀리에 지방을 순행하면서 관찰사나 수령의 횡포와 잘못을 규명하고 민심을 살핀 임시 관직이야. 사치스럽게 생일잔치를 열고,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하는 등 백성을 괴롭히는 '본관 사또'의 악행을 생각해 보면 '몽룡'이 어사출두를 감행한 이유를 알 수 있지.

03 서술형 ㉠은 서술자가 '어사또'의 심정에 동조하는 태도를 드러낸 것이고, ㉡은 등장인물의 행동에 대한 서술자의 생각을 밝힌 것이다. 이처럼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하여 인물과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직접 드러내는 것을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한다.

평가 기준	확인
서술자적 측면에서 편집자적 논평과 관련하여 썼다.	☐

04 이 작품은 원작 「춘향전」의 내용을 잘 살린 작품이기 때문에 소재와 성격, 주제 면에서 원작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 따라서 주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은 바람직한 감상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참고 자료】 재구성한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과 태도

- 관점의 변화나 그에 따른 형식과 맥락, 매체 등의 변화 양상을 파악해야 함.
- 작품에 형상화된 다양한 상상의 세계와 그 작품만의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함.

05 서술형 (가)에서 ‘변 사또’의 생일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어사또’의 시를 듣고 그가 심상치 않은 인물임을 짐작하고 놀란 상황을 말풍선 안의 느낌표로 나타내고 있다.

06 (나)에서 ‘본관 사또’는 ‘어사또’가 쓴 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술주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본관 사또’의 아둔한 면모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대조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어사또’의 시는 ‘본관 사또’의 사치스러운 생일잔치와 백성의 고통을 대비하여 탐관오리의 횡포와 가렴주구를 질타하고 있다.

③ 암행어사 출두 장면은 이 작품의 갈등이 해소되는 중심 사건이자, 극적인 반전을 보여 주는 부분이다. 이 장면을 (다)에서는 큰 그림과 관아를 덮치는 역졸들의 역동적인 동작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④ (라)는 어사출두로 혼비백산한 ‘본관 사또’와 관리들의 모습을 보여 주는 부분으로, 인물들을 희화화하여 당대 관리들의 허위성을 풍자하고 있다.

⑤ (마)에서 ‘춘향’의 절개를 확인하고 흠족해하는 ‘어사또’의 심리를 인물의 표정으로 나타내고 있다.

07 서술형 만화는 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구성되기 때문에 읽는 이에게 칸과 칸 사이에 생략된 내용을 유추해 보는 재미를 줄 수 있으며, 그림을 통한 시각적 효과로 읽는 이의 흥미를 높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두 갈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내용을 썼다.	☐
한 가지 이상 썼다.	☐

08 (다)에서는 서술자의 말과 등장인물의 대사로 ‘춘향’과 ‘몽룡’의 재회 장면을 묘사하였으나, 만화에서는 대사보다는 그림으로 상황을 전달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몽룡’의 시를 들은 ‘운봉’이 주변을 단속하는 장면을 서술하고 있지만, (라)에서는 해당 장면에서 ‘운봉’을 삭제하고 잔치에 참석한 다른 관리들이 자리를 뜨는 모습으로 대체하였다.

② (마)에서는 ‘어사또’의 말 중 일부를 다른 글자보다 굵은 모양으로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춘향’의 마음을 떠보려는 ‘몽룡’의 의도를 강조하고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③ (마)에서는 ‘몽룡’의 요구에 어이없어하는 ‘춘향’의 심리를 강한 색과 날카로운 모양의 말풍선, 문장 부호를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⑤ (바)에서는 칸 구분 없이 ‘몽룡’을 향해 뻗는 ‘춘향’의 손을 확대해 ‘몽룡’을 향한 ‘춘향’의 애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09 서술형 (나)에서 고통과 시련이 닥쳐도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는 ‘춘향’의 뜻을 상징물로 표현하는데 이때 ‘바람과 눈’은 ‘춘향’에게 닥친 시련을, ‘절벽과 바위, 술과 대’는 ‘춘향’의 지조와 절개를 의미한다.

평가 기준	확인
③에 들어갈 상징물을 정확하게 썼다.	☐
⑥에 들어갈 상징적 의미를 정확하게 썼다.	☐

10 (바)는 기본 배경을 화려한 색으로 처리하고, 색이 퍼지는 효과를 주어 ‘몽룡’과 ‘춘향’의 감격스러운 재회를 강조하고 있다.

내용 기르기

만화는 시각 매체이기 때문에 그림뿐만 아니라 글자, 말풍선의 표현 방식 등에 따라 내용이나 분위기가 달라져, 마찬가지로 기본 배경을 어떤 색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등장인물의 심리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 이 작품에서 (바)가 속하는 구성 단계와 두 인물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기본 배경을 화려한 색으로 처리한 이유를 짐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거야.

11 이 글에서 ‘변 사또’의 젊은 시절의 행적과 영웅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영웅은 아니라도 호걸은 될 듯하고’라는 노랫말을 통해 ‘변 사또’가 현재에도 영웅적인 인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이 글은 국악 노랫말로 아니라 노래를 번갈아 진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통 악기를 활용하거나, 아니라와 노래를 번갈아 제시하는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③ 이 글의 첫 장면은 ‘춘향’이 옥중에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런 ‘춘향’의 상황을 보여 주는 것으로 영상을 시작할 수 있다.

⑤ 이 글은 모진 형벌을 버티며 ‘몽룡’을 기다렸지만, 상결인이 된 ‘몽룡’을 보고 느끼는 ‘춘향’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한소리를 통해, 상결인이 되어 온 ‘몽룡’을 보고 느끼는 ‘춘향’의 답답하고 원통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

12 서술형 원작에서 ‘춘향’은 자신에게 고통과 시련이 닥쳐도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거나, 이 글에서 재구성된 ‘춘향’은 명분보다 부귀영화와 같은 실리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평가 기준	확인
원작과 재구성된 노랫말에 나타난 ‘춘향’의 모습을 적절하게 비교하여 썼다.	☐
제시된 형식에 맞추어 썼다.	☐

13 원작에서는 ‘춘향’이 ‘몽룡’과의 혼인을 통해 신분적 제약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신분 차별과 같은 사회의 부조리를 직접적으로 개혁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14 ㉠에는 상결인으로 돌아온 ‘몽룡’을 보기 전까지 ‘몽룡’에 대한 ‘춘향’의 한결같은 마음을 표현한 한자 성어가 들어가야 하므로 ‘일편단심(一片丹心)’이, ㉡에는 모진 형벌을 견뎌 내며 자나 깨나 ‘몽룡’을 간절하게 기다린 ‘춘향’의 상황을 표현한 한자 성어가 들어가야 하므로 ‘오매불망(寤寐不忘)’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측은지심(惻隱之心)’은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타고난 착한 마음을, ‘각골난망(刻骨難忘)’은 남에게 입은 은혜가 뼈에 새길 만큼 커서 잊히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이다.

② ‘자격지심(自激之心)’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스스로 미흡하게 여기는 마음을, ‘다사다망(多事多忙)’은 일이 많아 몹시 바쁨을 이르는 말이다.

④ ‘수구초심(首丘初心)’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백골난망(白骨難忘)’은 남에게 큰 은혜를 입었을 때 고마움의 뜻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견물생심(見物生心)’은 어떠한 실물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김을, ‘전도유망(前途有望)’은 앞으로 잘될 희망이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15 (가)에서 재구성한 속담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이다. 이 속담은 아무 경험 없는 사람이 철없이 함부로 덤비는 경 우를 이르는 말로, 오늘날의 가치와 맞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16 ①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속담을 활용한 것이다. ‘금 강산도 식후경’은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라도 배가 불러야 흥이 나지 배가 고파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먹는 것의 중요성을 나타낸 말이다.

17 (가)는 ‘남학생’이 이미 알고 있던 길이라고 생각하여 약도 를 확인하지 않았다가 길을 헤매는 상황이므로, ‘남학생’에게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하게 주의를 하라는 말인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속담을 활용하여 조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는 무슨 일이나 그 일의 시작이 중요 함을 이르는 말이다.

② ‘걷기도 전에 뛰려고 한다’는 쉽고 작은 일도 해낼 수 없으면서 어렵고 큰 일을 하려고 나섬을 이르는 말이다.

③ ‘시작한 일은 끝을 보라’는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야 한다는 것을 이 르는 말이다.

④ ‘길을 두고 뒤편 갈까’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구태여 어렵게 하거나 편 한 곳을 두고도 불편한 곳으로 가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18 (나)는 한 학생의 질문에 다른 네 학생이 모두 각자의 의견 만 내세워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드러나 있으 므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속담과 어울린다. (라)에서 ‘딸’은 어제 심은 토마토의 열매가 열렸는지 ‘엄마’에게 묻고 있다. 즉 일의 순서를 무시하고 성급하게 서두 르는 상황이므로, ‘우물(㉣)에 가 송냥(㉤) 찾는다’라는 속담과 어울린다.

19 서술형 ‘벼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교양이 있고 수양을 쌓은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남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최고 기록을 경신 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리는 ‘선수’의 겸손한 태도를 나 타내기에 적절하다.

20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수단이나 방법은 어찌 되 었든 간에 목적인 이루면 된다는 의미를 지닌 속담이다. <보기> 의 ‘나’는 꾸준한 연습으로 수영 실력이 늘은 친구를 보며 끊임 없는 노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으므로, 이 속담과 관련 없다. 제시된 다른 속담은 모두 노력의 중요성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 다.

오답 풀이 ① ‘낙숫물이 댛돌을 뚫는다’는 작은 힘이라도 꾸준히 계속하면 큰일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다.

② ‘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는 꾸준히 노력하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이 룰 수 있다는 말이다.

④ ‘구르는 돌은 이끼가 안 낀다’는 부지런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침 체되지 않고 계속 발전한다는 말이다.

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성 공하게 만든다는 뜻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이 중요함 을 이르는 말이다.

21 <보기>의 ‘선생님’은 가까운 곳에서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선생님’의 말씀은 대상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리어 대상에 대하여 잘 알기 어려움을 비 유한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의 의미와 관련 깊다.

오답 풀이 ① ‘시작이 반이다’는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 작하면 일을 끝마치기는 그리 어렵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서야 빈 외양간의 허물 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떠다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이다.

④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남이 잘되는 것을 기뻐해 주지는 않고 오히려 질투하고 시기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부지런한 물방아는 얼 새도 없다’는 물방아는 쉬지 아니하고 돌기 때문 에 추워도 얼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무슨 일이든 쉬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하 여야 실수가 없고 순조롭게 이루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22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거듭되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자그마한 행동을 반복하여 큰 손해를 입을 때 사용 하기에 적절한 속담이다.

23 첫 번째 문장에서 ‘미역국을 먹었다’는 시험에서 떨어졌다 는 의미의 관용 표현으로 적절하게 사용되었지만, 두 번째 문장 에서 ‘미역국’을 ‘된장국’으로 바꾸자 자연스럽지 못한 문장이 되 었다. 즉 관용 표현은 하나의 낱말처럼 굳어져 쓰이므로 사용자 가 마음대로 바꾸어 쓸 경우 그 의미를 적절하게 전달할 수 없음 을 알 수 있다.

24 ‘강 건너 불구경’은 자기에게 관계없는 일이라고 하여 무관 심하게 방관하는 모양을 뜻하는 속담으로 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관용 표현은 ‘나 몰라라 하다’이다.

오답 풀이 ① ‘간을 졸이다’는 ‘매우 걱정되고 불안스러워 마음을 놓지 못하 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② ‘장단을 맞추다’는 ‘남의 기분이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말이나 행동을 하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③ ‘파김치가 되다’는 ‘몹시 지쳐서 기운이 아주 느슨하게 되다.’라는 뜻의 관 용 표현이다.

⑤ ‘마음이 통하다’는 ‘서로 생각이 같아 이해가 잘되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 이다.

25 ①의 ‘손 씻기’는 낱말의 기본적인 의미가 그대로 쓰인 일 반적인 표현이다. ‘손 씻다’가 관용 표현으로 쓰일 때에는 ‘부정 적인 일이나 찜찜한 일에 대하여 관계를 청산하다.’ 또는 ‘본전 을 모두 잃다.’라는 의미여야 한다.

오답 풀이 ② ‘귀 기울이다’는 ‘남의 이야기나 의견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모으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③ ‘손 내밀다’는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구걸하다.’, ‘도움, 간섭 따위의 행위가 어떤 곳에 미치게 하다.’, ‘친하려고 나서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④ ‘발 빠르다’는 ‘알맞은 조치를 신속히 취하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⑤ ‘머리를 맞대다’는 ‘어떤 일을 의논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서로 마주 대 하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26 ‘갈 길이 멀다’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았다.’는 뜻과 ‘앞으로 살아갈 생애가 많이 남아 있다.’의 뜻을 지닌 관용 표현으로 ⑤에서는 첫 번째의 의미로 쓰였다.

27 서술형 ‘머리를 굴리다’는 ‘머리를 써서 해결 방안을 생각해 내다.’, ‘머리를 식히다’는 ‘흥분되거나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다.’, ‘머리를 굽히다’는 ‘굴복하거나 저자세를 보이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28 명언과 속담은 교훈이나 가르침을 준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속담은 처음 그 말을 한 사람이 분명하지 않고, 명언은 분명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9 격언과 명언은 교훈이나 가르침을 주는 말이다. 제시된 명언은 도전이나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므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에게 들려주기에 알맞다.

30 글쓴이는 요즘 아이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귀중함을 모른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아끼다 뚱 뚱 지라도 모 든 것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31 ㉠은 반복법, 대구법, 열거법, 도치법을 활용한 구절로, 글쓴이의 바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아끼다 뚱 뚱 된다’라는 속담을 재구성하여 글을 읽는 재미를 더하고 있다.

오답 풀이 ㉡. 글쓴이는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즉 겉으로 표현한 내용과 속마음에 있는 내용을 서로 반대로 말하는 반어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참고 자료] 다양한 표현 방법

반복법	하나의 문장이나 문단 안에서 같거나 비슷한 단어, 어구를 되풀이하여 강조하는 방법
대구법	비슷한 어조를 가진 어구를 짝 지어 나타내어 표현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
열거법	비슷하거나 유사한 어구나 단어들을 여러 개 연결하여 늘어놓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방법
도치법	정상적인 언어 배열 순서를 바꾸어 단조로움을 피하고 흥미를 돋우며 주의를 끄는 방법

32 맥락상 ㉠에 들어갈 관용 표현은 ‘웃음을 참지 못하여 배를 움켜잡고 크게 웃다.’를 뜻하는 ‘배꼽을 쥐다’가, ㉡에 들어갈 관용 표현은 ‘음식 따위를 몹시 먹고 싶어 하다.’를 뜻하는 ‘침을 삼키다’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목을 풀다’는 ‘창, 노래, 연설 따위를 하기에 앞서 목소리를 가다듬다.’를, ‘속을 태우다’는 ‘몹시 걱정이 되어 마음을 졸이다.’를 뜻한다.

② ‘발을 뺀다’는 ‘걱정되거나 애쓰던 일이 끝나 마음을 놓다.’를, ‘무게를 잡다’는 ‘점잖은 척하며 분위기를 무겁게 만듦’을 뜻한다.

④ ‘어깨를 펴다’는 ‘굴필 것이 없이 당당하다.’를, ‘손에 땀을 쥐다’는 ‘아슬아슬하여 마음이 조마조마하도록 몹시 애달다.’를 뜻한다.

⑤ ‘팔을 걷어붙이다’는 ‘어떤 일에 뛰어들어 적극적으로 일할 태세를 갖추다.’를, ‘촉각을 곤두세우다’는 ‘정신을 집중하고 신경을 곤두세워 즉각 대응할 태세를 취하다.’를 뜻한다.

최종 모의고사 | 중간고사 1회

본문 182~187쪽

01 ⑤	02 ④	03 ①	04 답답함	05 ④
06 ⑤	07 ②	08 ③	09 ⑤	10 ①
11 ④	12 ⑤	13 ①	14 ④	15 ①
16 ③	17 문자와 소리의 일치성	18 ③		
19 ㉠: 실제 발음, ㉡: 전통성, ㉢: 현대	20 ③	21 ⑤		
22 ②	23 ③	24 ③	25 ④	

01 (라)에서 ‘나’는 집을 나가는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픈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의 보거나 말하는 이는 ‘나’로 작품 안에 존재한다.

② ‘나’는 작가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인물로, 작가는 상황 판단이 미숙한 청소년 서술자를 통해 일가친척의 의미가 퇴색한 현대 사회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③ 이 작품은 순수한 소년인 ‘나’의 시각으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작품의 주제와 분위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

④ ‘나’는 중학생이며, ‘미옥’과 연애편지를 주고받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볼 때 ‘나’는 이성에게 관심이 많은 사춘기 청소년임을 알 수 있다.

02 (가)에서 ‘나’는 ‘바야흐로 혈육 상봉의 감격적인 순간인가? 나가서 사진이라도 찍어 줘야 하나?’라고 한다. 여기에는 ‘아버지’와 ‘아저씨’의 만남을 냉소적인 태도로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아저씨’는 “아아, 일가가 좋긴 좋구만이, 참 보는데도 고저 피가 확 땡기는 거야.”라고 하며 혈육인 ‘나’의 가족을 만난 것을 기뻐한다.

② (라)에서 ‘엄마’는 ‘나’에게 저녁 준비를 부탁하고 말없이 집을 나갔다.

③ (나)의 ‘엄마를 답답하게 하는 것은 사실 내가 느끼는 답답함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었다.’에서 ‘나’와 ‘엄마’는 모두 ‘아저씨’가 ‘나’의 집에 오래 머무는 것을 불편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엄마’는 ‘아저씨’를 몰상식하다고 표현하며, “아무리 일가래도 엄연히 손님으로 와 놓구선 날마다 술을 달래지 않나, 옷을 빨아 달래지 않나.”라고 하여 ‘아저씨’가 이것저것 요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03 ‘엄마’와 ‘아버지’는 표면적으로는 ‘나’의 연애편지를 ‘엄마’가 뺏고 돌려주지 않는 것을 이유로 싸우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나’의 집에 오래 머물고 있는 ‘아저씨’에 대한 불만 때문에 싸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저씨’가 ‘아버지’의 일을 돕지 않는다는 내용이나, 이를 불만스러워하는 ‘엄마’의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04 서술형 (나)에서 ‘나’는 ‘아저씨’가 오래 머무는 상황을 자신보다 ‘엄마’가 더 답답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05 (나)에서 ‘아버지’는 자신 때문에 제수씨가 나간 것이라면 정말 미안하다는 ‘아저씨’의 말에 “애 엄마가 집을 나간 것도 결코 형님 때문이 아니라…….”라고 부인하면서도 말을 잊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아저씨’가 ‘나’의 집에 오래 머물러 ‘엄마’가 불만

스러워했다는 것을 ‘아버지’도 짐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똑같이 달그락거려도 어쩐지 부드러운 달그락거림, 그것은 바로 엄마가 왔다는 소리였다.’, ‘엄마가 돌아왔으니, 행복한 아침인 것은 틀림없었다.’고 하는 부분에서 ‘나’가 ‘엄마’의 귀가로 편안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다)에서 ‘아저씨’가 아침도 먹지 않고 새벽차를 타고 쫓기듯이 집을 떠났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에서 ‘나’가 ‘엄마’와 ‘아버지’의 싸움이 ‘아저씨’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⑤ (가)에서 ‘나’는 ‘엄마’와 ‘아버지’가 ‘아저씨’에 대한 말을 입 끝에도 올리 지 않는 것은 ‘아저씨’가 지척에 있는 우사에서 거름을 내는 척하면서 집 안의 상황에 낱알이 귀를 기울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06 (나)에서 ‘엄마’가 간간 것을 자신 때문이라고 여기는 ‘아저씨’의 말을 통해 ‘엄마’와 ‘아버지’의 부부 싸움의 이유를 ‘아저씨’로 추론할 수 있다. <보기> 또한 ‘아내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일가’라며 찾아온 형님을 박대할 수는 없다.’라는 ‘아버지’의 생각을 통해 부부 싸움의 이유를 ‘아저씨’로 추론할 수 있다. 즉 <보기>에 부부 싸움의 이유가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07 이 작품에서는 ‘아저씨’가 ‘나’의 가족을 방문하고 또 쫓기듯 떠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사건을 미숙하지만 순수한 청소년인 ‘나’가 전달함으로써 일가의 의미가 퇴색한 현대 사회의 각박함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08 (라)에서 ‘나’는 ‘아저씨’ 때문에 울고 있다. 이는 ‘아저씨’의 외로움에 공감한 것으로 ‘나’의 정신적 성장을 드러내는 것이다.

내용 기르기

(라)에서는 ‘나’가 ‘아저씨’의 외로움에 공감하고 눈물을 흘려, 이러한 ‘나’의 성장은 일가의 의미가 퇴색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09 제시된 대화에서 ‘선생님’은 ‘민정’의 처지와 심정을 이해하며 ‘민정’의 이야기를 들어 줌으로써 ‘민정’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고 있다.

10 ‘윤하’는 시험을 못 봐 속상해하는 ‘민재’의 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말을 하고 있으므로, ‘선생님’은 ‘윤하’에게 상대의 처지와 입장을 헤아리며 말해야 한다는 조언을 할 수 있다.

11 ㉔은 ‘민정’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게 돕는 말로, ‘적극적 들어 주기’에 해당하는 듣기 방법이다. 이를 ‘민정’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㉑과 같이 상대를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상대에게 관심을 드러냄으로써 대화를 이어 나가는 ‘소극적 들어 주기’ 방법이다.

②, ⑤ ㉔, ㉔은 상대의 말에 공감해 주고, 적절하게 맞장구를 치으로써 상대가 자기 생각과 느낌을 이어 가도록 해 주는 ‘소극적 들어 주기’ 방법이다.

③ ㉔은 말하는 이인 ‘민정’이 고민하는 문제를 요약정리한 ‘선생님’의 발언으로, ‘적극적 들어 주기’에 해당한다.

12 (가)에서 자음의 기본자를 만들기 위해 왕자들과 공주들을 불러 소리를 내게 하고, 심지어 의원까지 불러 확인했다고 하였으므로 ‘세종 대왕’이 자음의 기본자를 누구의 도움도 없이 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

13 (나)에 따르면 일부 자음자는 기본자에 획을 하나씩 더해서 만들기도 하였다. ‘ㄷ’은 자음의 기본자인 ‘ㅌ’에 획을 한 번 더해서, ‘ㄸ’은 ‘ㅌ’에 획을 두 번 더해서 만든 것이다.

오답 풀이 ② 이체자 역시 가획의 원리에 의해 만든 것으로, ‘ㅇ(옛이음)’, ‘ㄹ’, ‘ㄷ(반치음)’도 ‘ㅇ’, ‘ㄴ’, ‘ㅌ’에 획을 더하여 만든 것이다.

③ 가획자는 획을 하나씩 더할 때마다 소리가 더 세지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ㅇ’에 획을 한 번 더한 ‘ㅇ(여린하음)’은 획을 두 번 더한 ‘ㅎ’보다 소리가 더 약하다고 할 수 있다.

④ (나)에서 ‘ㄴ, ㄷ, ㅌ’은 모두 혀가 윗잇몸에 붙는 소리이니 모양도 비슷하게 만든 것이라 하였다.

⑤ (나)에서 가획의 원리로 만든 글자는 획을 하나씩 더할 때마다 소리가 더 세지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ㄹ’에 획을 더하면 ‘ㄴ’, ‘ㄴ’에 획을 더하면 ‘ㄷ’이다. 그러므로 ‘나불나불’보다 ‘나풀나풀’의 소리가 더 거세다.

14 ‘모아쓰기 방식’은 한 덩어리로 소리 나는 말소리의 특성을 문자에 담고자 한 것으로, 적을 때 소리를 내는 단위인 음절로 모아쓰게 한 방식이다.

15 ‘ㅇ(옛이음)’, ‘ㄹ’, ‘ㄷ(반치음)’도 가획의 원리에 의해 각각 ‘ㅇ’, ‘ㄴ’, ‘ㅌ’에 획을 더하여 만든 것이지만, 소리가 세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따로 이체자라고 부른다.

16 (가)에서 ‘세종 대왕’은 중국 문자에 기대어 살았던 우리가, 우리만의 고유한 문자로 언어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한글이 중국의 문자를 바탕으로 창제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학생 2’는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훌륭한 문자라는 평이 자자하다고 하였다.

② (나)에서 공개된 정보를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하고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정보화 사회에서, 한글의 우수성은 더욱 빛난다고 하였다.

④ (가)에서 ‘세종 대왕’은 훈민정음을 백성에게 보급하기 위해 다양한 책을 훈민정음으로 번역하고, 책으로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고 하였다.

⑤ (가)에서 ‘학생 1’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한글을 사용하며, 글자를 못 읽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하였다.

17 서술형 한글의 모음자는 한 가지 소리로만 발음되고, 소리나지 않는 글자가 거의 없다. 이와 같은 문자와 소리의 일치성은 기계 번역이나 음성 인식 컴퓨터 등 한글 정보화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다.

내용 기르기

한글 ‘ㅌ’의 발음과 로마자 ‘a’의 발음을 비교해 보. ‘아가, 가지, 바늘’에서 ‘ㅌ’는 모두 같은 소리이지만, ‘almond[아몬드], apple[애플]’에서 ‘a’의 소리는 달라. 이처럼 문자와 소리가 일치하는 한글의 특성은 기계 번역이나 음성 인식 등에 유리한 조건이야.

18 (나)에서 한글 자판이 컴퓨터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처럼 한글은 컴퓨터와 궁합이 잘 맞다고 하였으나, 600년 전 창제된 훈민정음이 컴퓨터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라 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④ (나)에서 한글은 자음자와 모음자의 수가 비슷하여 컴퓨터 자판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자음자와 모음자를 적절히 배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까닭으로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 가며 글자를 입력할 수 있어서 ③은 ⑥보다 타자 속도가 빠르다.

② ⑥는 자음자와 모음자를 각각 왼쪽과 오른쪽에 분리하여 배치한 반면, ⑥는 자음자와 모음자가 섞여 있다.

⑤ ⑥의 자판을 보면 ⑥와 달리 자음자의 수가 모음자의 수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 서술형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 기준	확인
㉠에 들어갈 말을 '실제 발음'이라고 정확하게 썼다.	☐
㉡에 들어갈 말을 '전통성'이라고 정확하게 썼다.	☐
㉢에 들어갈 말을 '현대'라고 정확하게 썼다.	☐

20 <제13항>을 참고할 때 홑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할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무릎을'은 [무르플]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제14항>을 참고할 때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엿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흙이'는 [흙기]로 발음해야 한다.

② <제13항>을 참고할 때 홑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할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빛을'은 [비출]로 발음해야 한다.

④ <제13항>을 참고할 때 홑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와 결합할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쫓아서'는 [쫓차서]로 발음해야 한다.

⑤ <제14항>을 참고할 때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엿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웁으니'는 [웁프니]로 발음해야 한다.

21 ㄴ에서 '우리의'의 조사 '의'는 [ㄹ]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므로 [의]와 [예]로 발음할 수 있으며, '협의'의 '의'는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이므로 [의]와 [이]로 발음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협의'는 [우리의 혁비 / 우리의 혁비 / 우리에 혁비 / 우리에 혁비]로 발음할 수 있다. ㄷ에서 '민주주의'의 '의'는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이므로 [의]와 [이]로 발음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의 조사 '의'는 [ㄹ]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므로 [의]와 [예]로 발음할 수 있다. '의의'의 첫음절 '의'는 [의]로만 발음해야 하며, 두 번째 음절 '의'는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이므로 [의]와 [이]로 발음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의의'는 [민주주의의 의의 / 민주주의의 의이 / 민주주이에 의의 / 민주주이에 의이 / 민주주의의 의의 / 민주주의의 의이 / 민주주의에 의의 / 민주주의에 의이]로 발음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ㄱ. '나의 희망'에서 '나의'의 조사 '의'는 [ㄹ]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므로 [의]와 [예]로 발음할 수 있으며, '희망'에서 '희'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이므로 [ㄴ]로만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나의 희망 / 나에 희망]으로 발음할 수 있다.

ㄷ. '사랑의 무늬'에서 '사랑의'의 조사 '의'는 [ㄹ]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므로 [의]와 [예]로 발음할 수 있으며, '무늬'에서 '늬'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이므로 [ㄴ]로만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사랑의 무늬 / 사랑에 무늬]로 발음할 수 있다.

내용 기르기

이중 모음 'ㄴ' 발음은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으니 반드시 기억해. 이 문제에서처럼 'ㄴ'이 절의 형식으로 나올 때에는 경우의 수가 늘어나니까 더욱 헛갈릴 수 있어. 그럴 때에는 어절을 끊어서 천천히 경우의 수를 헤아려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22 '빠'는 겹받침 중 두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발음하지만 '뺨'은 자음 앞에서 [뺨]으로 발음하므로, '뺨고'는 [뺨:꼬]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⑤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에 있는 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므로, '흙을'은 [흙글]로, '해맑은'은 [해말근]으로 발음해야 한다.

③ '빠'는 겹받침 중 두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발음하는 경우에 속하므로, '웁조릴'은 [웁조릴]로 발음해야 한다.

④ '뺨'은 겹받침 중 두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발음하는 경우에 속하므로, '뺨고'는 [뺨:꼬]로 발음해야 한다.

23 '이름'의 발음은 [이름]으로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예이다. 또한 '꽃다발'의 발음은 [꼇파발]로 소리대로만 적지 않고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원칙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예이다.

오답 풀이 ① '구름'은 [구름], '그림'은 [그:림]으로 발음하므로 모두 ㉠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예에 속한다.

② '어제'는 [어제], '살랑'은 [살랑]으로 발음하므로 모두 ㉠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예에 속한다.

④ '색종이'는 [색종이]로 발음하며 '접속어'는 [접쓰거]로 발음하므로 모두 ㉡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예에 속한다.

⑤ '도움닫기'는 [도움닫기]로 발음하므로 ㉡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예에, '줄다리기'는 [줄다리기]로 발음하므로 ㉠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예에 속한다.

24 '다치다'는 '신체에 상처가 생기다'의 의미로, 문장에서의 의미를 '위험하게 놀면 신체에 상처가 생기니 조심해라.'로 볼 때 그 쓰임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문맥상 '편지나 물건을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에게 보내다'의 의미인 '부치다'가 쓰여야 한다.

② 문맥상 '틀림없이, 꼭'의 의미인 '반드시'가 쓰여야 한다.

④ 문맥상 '맞는 답을 내놓다'의 의미인 '맞혔다'가 쓰여야 한다.

⑤ '어찌 된 일'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의 표기는 '웬일'이 맞다.

25 ④는 문맥상 부정 또는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 '아니'의 준말인 '안'이 쓰여야 하므로 바르게 고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⑤ 모두 고치기 전이 바른 표기이다.

- 01 ⑤ 02 ④ 03 ⑤ 04 '아저씨'가 집을 떠나는 것, '나'와 '미옥'의 관계가 끝나는 것 05 ⑤
06 ② 07 ④ 08 ⑤ 09 ⑤
10 ㉠: 소극적 들어 주기, ㉡: 적극적 들어 주기 11 ③
12 ⑤ 13 ② 14 ㉠: 위아래로 잇대어, ㉡: 옆으로 나란히 15 ⑤
16 ㉠: ㅏ, ㅑ, ㉡: ㅓ, ㅕ, ㉢: ㅗ, ㅛ, ㅜ, ㅠ, ㉣: ㅜ, ㅠ, ㉤: ㅓ, ㅕ
20 ④ 21 ① 22 ㉠: 꼴, ㉡: 꼬치, ㉢: 꼴만, ㉣: 의사소통 23 ④ 24 '웬지'와 '웬일'이 맞습니다. 25 ③

01 (다)에서 '나'는 '엄마'가 '미옥'이 보낸 편지가 이미 시효가 지났음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돌려준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엄마'가 집을 나가기 전에 '나'에게 편지를 돌려주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나'는 '엄마'가 '아버지'의 중국 형님을 내보내기 위해 집을 나가는 강수를 둔 것이라 추측하고 있으므로 '엄마'가 집을 나간 행위가 의도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가)에서 '나'는 부모님의 싸움이 자신 때문임을 자각하며 싸움을 말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내적 갈등을 하고 있다.

③ (가)에서 '엄마'와 '아버지'는 서로 '갈취'라는 말을 주고받으며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다.

④ (가)에서 '아버지'는 '엄마'를 야만인이라고 표현하며, 어떻게 자식에게 온 편지를 갈취하느냐고 비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소설의 내적 갈등

한 인물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나 성격이 대립하여 일어나는 갈등 등

02 '나'는 ㉠에서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또 ㉢에서는 주변 인물들의 감정을 짐작하여 전달하고 있다.

03 '아저씨'는 '엄마'가 집을 나간 것이 자신 때문임을 눈치채고 '아버지'에게 미안해하고 있다.

04 서술형 '나'는 '엄마'가 집을 나간 것이 '아버지'의 중국 형님인 '아저씨'를 내보내기 위한 계산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엄마'가 자신에게 편지를 돌려준 것도 편지 내용을 확인하고 이미 '미옥'과의 관계가 틀어졌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평가 기준	확인
'아저씨'가 떠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썼다.	☐
'나'와 '미옥'과의 관계가 끝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썼다.	☐

05 (나)에서 '나'는 '아버지'와 싸운 '엄마'를 피해 과수원 쪽으

로 도망가고 있으며, 이 글에 '나'가 어른들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나'는 이성애에 관심이 많은 사춘기 소년으로, 어른들의 싸움의 원인을 나름대로 헤아리고 있지만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아이이다.

② (나)에서 '나'는 '아버지'와 싸운 '엄마'가 자존심 때문에 눈물을 참고 있을 거라고 짐작한다.

③ (나)에서 '나'는 '아버지'와 싸운 '엄마'가 눈물을 마음껏 흘릴 수 있게 자리를 피해 준다.

④ (다)에서 '나'는 '엄마'와 '아버지'가 갈등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침착하고 냉정하게 다시 분석해 보려 한다.

06 이 소설은 '일가'라는 반어적인 의미의 제목을 통해 '일가친척의 의미가 퇴색하는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과 반성'을 유도하고 있다.

07 (마)에서 '나'는 스스로를 어린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자신이 현재 흘리는 눈물이 과거 '미옥'을 생각하며 흘렸던 눈물과는 다른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즉 '나'는 다른 사람('아저씨')의 외로움에 공감하며 스스로 성장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은 '아저씨'라는 일가의 방문과 이별의 과정을 겪으면서 미성숙한 존재였던 '나'가 성장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8 (가)에서 '동생'이 화가 난 이유는 '형'이 '동생'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동생을 비난하는 듯한 태도로 제 생각만 말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동생'이 조언을 구하자 '형'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동생'과 대립하여 '형'의 의견만 고집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형'이 하는 조언이 현실성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형'이 '동생'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상황이다.

③ '형'은 축구부 가입을 고민하는 '동생'의 고민에 대해 대답하고 있으므로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형'이 '동생'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을 헤아리지 못한 것은 맞지만 장난을 치고 있지는 않다.

09 '민정'은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내성적인 '도현'의 성격과 '도현'에게 음료수를 건넨 상황을 연결해 '도현'이 반응이 없었던 이유를 추측하고 있으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기 전에 답답하고 얼굴이 안 좋아 보였던 '민정'은 대화를 나눈 후 해결책을 얻고 얼굴에 웃음이 번지고 있다.

② '도현'과의 일로 답답해했던 '민정'은 '선생님'과 대화를 나눈 후 '도현'과 둘만 있을 때 다시 말을 걸어야겠다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고 있다.

③ '도현'과 친해지고 싶어서 음료수를 건넸는데 아무 말이 없어 속상해했던 '민정'은 '도현'의 성격을 떠올리고 음료수를 주었을 때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되었다.

④ 대화 초반에 아무 일도 없다고 말했던 '민정'은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10 서술형 ‘선생님’의 “계속 이야기해 봐.”는 ‘민정’이 대화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말이므로 소극적 들어 주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네가 용기 내서 마음을 표현했는데, 도현이가 반응이 없어서 속상한가 보구나.”는 말하는 이의 말을 요약정리하고 반영하여 상대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에 적극적 들어 주기에 해당한다. 또한 “그런데 민정아, 혹시 도현이가 어떤 성격인지 생각해 봤니?” 역시 말하는 이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므로 적극적 들어 주기에 해당한다.

평가 기준	확인
㉠에 들어갈 말을 ‘소극적 들어 주기’라고 썼다.	☐
㉡에 들어갈 말을 ‘적극적 들어 주기’라고 썼다.	☐

내용 기르기

소극적 들어 주기는 상대에게 관심을 드러내어 말하는 이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자기 생각과 느낌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대화 맥락을 조절해 주는 격려하기 기술이 중심을 이뤄. 적극적 들어 주기는 상대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

11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는 우리말을 표기하는 우리 고유의 글자가 없었던 것일 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우리말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우리말과 중국어는 말소리와 문장 구조가 달라서,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② (다)에서 헛소리 ‘ㄴ, ㄷ, ㅌ’과 같이 비슷한 발음 기관을 사용하는 같은 계열의 글자는 모양도 비슷하다고 하였다.

④ (다)에서 획을 더하여 만들었지만, 소리가 세지지 않는 글자를 ‘이체자’라고 한다고 하였다.

⑤ (나)에서 자음의 기본 다섯 글자인 ‘ㄱ, ㄴ, ㄹ, ㅁ, ㅂ’은 소리를 내는 기관의 움직임이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고 하였다.

12 기본자 ‘ㅇ’에 획을 한 번 더하여 ‘ㅎ’을 만들고, 여기에 획을 다시 더하여 ‘ㅈ’을 만들었으므로, ㉡에는 ‘ㅎ’이 들어가야 한다. 표의 체계를 볼 때 이체자 ‘ㅇ(옛이응)’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허뿌리가 목구멍을 막으면서 나는 것을 본떠 ‘어금닛소리’ ‘ㄱ’을 만들었다.

② ‘ㄷ, ㅌ’은 ‘ㄴ’에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이다.

③ ‘ㄹ’에 획을 더해서 ‘ㄴ, ㄷ’을 만들었다.

④ ‘ㅈ, ㅊ’은 ‘ㅊ’에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이다.

13 ②는 어감(語感)이 밝고 산뜻한 모음인 양성모음 ‘ㅏ’와 어감(語感)이 어둡고 큰 모음인 음성모음 ‘ㅓ’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으며, 가획의 원리와는 무관한 예이다.

오답 풀이 ‘빙빙’의 ‘ㅂ’과 ‘핑핑’의 ‘ㅍ’, ① ‘잘랑잘랑’의 ‘ㄱ’과 ‘찰랑찰랑’의 ‘ㄷ’ ③, ‘나불대다’의 ‘ㅂ’과 ‘나풀대다’의 ‘ㅍ’ ④, ‘너털거리다’의 ‘ㄷ’과 ‘너털거리다’의 ‘ㅌ’ ⑤은 모두 자음자에 획을 더한 것이다. 각 자음이 사용된 단어를 비교해 보면 자음자에 획을 더하면 소리가 더 세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 서술형 ‘ㄹ, ㄴ, ㄷ, ㅌ’은 입술소리(口, ㅂ, ㅍ, ㅍ) 아래에 ‘ㅇ’을 위아래로 잇대어 써서 만든 글자이며, ‘ㄱ, ㄴ, ㄷ, ㅌ, ㅍ, ㅈ’, ‘ㄴ, ㄷ, ㅌ’은 초성자 두 글자 또는 세 글자를 옆으로 나란히 써서 만든 글자이다.

평가 기준	확인
㉡에 들어갈 말을 ‘위아래로 잇대어’라고 썼다.	☐
㉢에 들어갈 말을 ‘옆으로 나란히’라고 썼다.	☐

15 ‘ㅇ(아래아)’는 혀가 조금 오그라들고 깊게 나는 소리, ‘ㄴ’는 혀가 조금 오그라들고 깊지도 얕지도 않게 나는 소리, ‘ㄹ’는 혀가 오그라들지 않고 얕게 나는 소리를 표현한 글자이므로 이들이 소리와 무관한 글자라고 할 수 없다.

16 서술형 (나)에서 기본자를 합성하는 방식으로 만든 모음자를 설명하고 있다. 이때 기본자를 한 번만 합성하여 초출자 ‘ㅏ, ㅓ, ㅗ, ㅜ’를, 초출자에 ‘ㅇ’을 다시 합성하여 재출자 ‘ㅛ, ㅜ, ㅠ, ㅡ’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에 들어갈 글자 ‘ㅏ, ㅓ’를 썼다.	☐
㉢에 들어갈 글자 ‘ㅗ, ㅜ’를 썼다.	☐
㉣에 들어갈 글자 ‘ㅛ, ㅠ’를 썼다.	☐
㉤에 들어갈 글자 ‘ㅜ, ㅡ’를 썼다.	☐

17 ‘ㅇ’은 모음자끼리 글자를 더하여 쓰는 방법으로 만든 것으로, ‘ㅇ’에 ‘ㅇ’을 더하여 만들었다.

오답 풀이 ① ‘ㅈ’은 ‘ㄱ’과 ‘ㅈ’을 더하여 만든 것이다. ‘ㅇ’에 ‘ㅇ’을 더하여 만든 것은 ‘ㅈ’이다.

② ‘ㅛ’는 재출자로 ‘ㅏ’와 ‘ㅇ’을 합성하여 만든 것이다.

④ ‘ㅜ’는 ‘ㅓ’에 ‘ㅇ’을 더하여 만든 것이다.

⑤ ‘ㅜ’는 ‘ㅓ’와 ‘ㅈ’을 더하여 만든 것이다.

18 ‘그래.’는 모아쓰기를 한 것이고, ‘ㄱ, ㄴ, ㄷ, ㅌ’는 풀어쓰기를 한 것이다. (라)에서 ‘세종 대왕’은 자음과 모음이 한 덩어리로 소리나는 말소리의 특성을 문자에 담고 싶어 소리를 내는 단위인 음절로 모아쓰도록 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참고할 때, 소리를 내는 단위인 음절 단위로 자음과 모음을 모아쓰면 의미가 쉽게 전달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19 흘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할 경우에는 제 음 그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빛을’은 [비슬]로 발음한다.

오답 풀이 ① ‘담임’은 ‘담’의 ‘ㄹ’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다임]으로 발음해야 한다.

③, ④ 받침 ‘ㅅ, ㅆ, ㅈ, ㅊ, ㅌ’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대표음 [ㄷ]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밭’은 [반]으로, ‘낮’은 [남파]로 발음해야 한다.

⑤ ‘무릎을’은 ‘릎’의 ‘ㅍ’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무르플]로 발음해야 한다.

20 받침 ‘ㅁ’은 두 번째 받침의 대표음 ‘ㅂ’으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옳다’의 올바른 발음은 [옴파]이다.

오답 풀이 ① 받침 ‘ㄱ’은 첫 번째 받침의 대표음 ‘ㄱ’으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꺾’의 올바른 발음은 [뽁]이다.

② 받침 ‘ㄹ’은 첫 번째 받침의 대표음 ‘ㄹ’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꺾’의 올바른 발음은 [골]이다.

③ 받침 ‘ㅅ’은 첫 번째 받침의 대표음 ‘ㅅ’으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없다’의 올바른 발음은 [업:따]이다.

⑤ 받침 ‘ㅈ’은 첫 번째 받침의 대표음 ‘ㄹ’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할다’의 올바른 발음은 [할따]이다.

21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하므로, ‘희비’는 [히비]로 발음하여야 한다.

오답 풀이 ②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발음함을 허용하므로, ‘전의’는 [저:니] 또는 [저:니]로 발음하여야 한다.

③ 조사 ‘의’는 [ㅣ]로 발음함을 허용하므로, ‘친구의’는 [친구의] 또는 [친구에]로 발음하여야 한다.

④, ⑤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하므로, ‘닐리리’는 [닐리리]로, ‘띄어쓰기’는 [띠어쓰기 / 띠어쓰기]로 발음하여야 한다.

22 서술형 ‘꽃’, ‘꽃이’, ‘꽃만’을 소리대로 적으면 [꼇], [꼬치], [꼇만]이다. 하나의 말을 소리대로만 쓰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이 필요하다.

23 문맥을 고려했을 때, 음식점이 ‘하루의 영업을 마쳤다.’라는 의미로 쓰였으므로, 단어의 표기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돼’는 어간 ‘되-’와 어미 ‘-어’가 결합한 ‘되어’의 준말이며 ‘되어’로 쓸 수 있다. 제시된 문장에서 ‘돼니’는 ‘되어니’로 쓸 수 없으므로 ‘되니’라고 표기해야 한다.

② ‘떡볶이’가 올바른 표기이다.

③ ‘안’은 부정 또는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 ‘아니’의 준말로, ‘아니’로 쓸 수 있다. ‘않’은 ‘아니하-’로 쓸 수 있다. 제시된 문장에서는 ‘좋아한다’를 부정하는 의미로 쓰였고, 준말 ‘아니’로 쓸 수 있으므로 ‘안’으로 표기해야 한다.

⑤ ‘날다’는 ‘배 속의 아이, 새끼, 알을 몸 밖으로 내놓다.’의 의미이고, ‘낫다’는 ‘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져 본래대로 되다.’의 의미이다. 제시된 문장의 문맥상 ‘낫다’가 쓰여야 하므로 ‘나았니?’로 표기해야 한다.

24 서술형 ‘웬지’는 ‘왜인지’가 줄어든 말이고, ‘웬일’은 ‘어찌 된 일’이라는 뜻이다. ‘웬지’와 ‘웬일’은 표준어로서 잘못된 표기이다.

평가 기준	확인
‘웬지, 웬지’ 중 ‘웬지’가 맞는 표기임을 썼다.	☐
‘웬일, 웬일’ 중 ‘웬일’이 맞는 표기임을 썼다.	☐

25 ‘어떡해’는 ‘어떻게 해’가 줄어든 말이므로 ‘어떻해’가 아니라 ‘어떡해’로 표기해야 한다. ‘어떻해’는 틀린 표기이다.

오답 풀이 ① ‘반듯이’는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않고 바르게.’의 의미이므로 문맥상 적절하게 쓰였다.

② ‘붙이다’는 ‘① 붙게 하다. ② 서로 맞닿게 하다.’의 의미이므로 문맥상 적절하게 쓰였다.

④ ‘이따가’는 ‘조금 지난 뒤에.’의 의미이므로 문맥상 적절하게 쓰였다.

⑤ ‘마치다’는 ‘어떤 일이나 과정, 절차 따위가 끝나다.’의 의미이므로 문맥상 적절하게 쓰였다.

최종 모의고사 | 기말고사 1회

본문 194~199쪽

- 01 ⑤ 02 ⑤ 03 ⑤ 04 ② 05 ④
 06 ① 07 글쓴이는 말하고자 하는 문제 상황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어 읽는 이의 흥미를 높이려 하였다. 08 ③
 09 ② 10 ③ 11 ③ 12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 13 ④ 14 ⑤ 15 바람, 눈 16 ②
 17 ④ 18 ② 19 ④ 20 언어유희를 통해 읽는 이의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21 ② 22 ②
 23 ① 24 ③ 25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사는 것의 중요성

01 매체의 종류는 매체를 활용하는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하므로, 무조건 청각 매체보다 시각 매체를 더 많이 활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매체를 실제로 활용하기 전에 매체를 언제,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후 이를 바탕으로 연습을 충분히 하면 성공적으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매체는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므로, 매체를 활용할 때에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매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빔 프로젝터나 컴퓨터 등의 기기가 필요한 매체를 활용할 때에는 기기를 정확하게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청중이나 독자의 지식, 흥미 정도를 고려하여 매체를 선정하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02 어떤 매체 자료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과 그 효과가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매체 자료는 언어만으로 전달하기 복잡하고 추상적인 내용을 간단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싶을 때 활용한다. 따라서 ⑤의 내용을 매체 자료를 활용할 때의 효과로 보기 어렵다.

내용 기르기

매체 자료를 활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상대가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오래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야. 매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간단한 내용을 추상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지만, 매체 자료를 활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고려한다면 올바르게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겠지? 매체 자료가 말로만 전달하기 힘든 추상적이고 복잡한 내용을 쉽게 전달하기 위한 보조 수단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03 (가)는 사진과 광고 문구를 활용하여 스마트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태도를 경고한 공익 광고이다. (가)의 사진은 사람과 스마트폰이 서로 잡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을 뿐, 관련 사례의 실제 인물 사진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제작한 공익 광고로,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② 사람이 스마트폰을 잡고 있는 사진과, 스마트폰이 사람을 잡고 있는 듯한 사진을 합성하여,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이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상황을 불러올 수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③, ④ 핵심 문구인 '잡고'와 '잡혀'의 크기와 굵기를 키우고, 비슷한 형태의 두 의문문을 대구 형식으로 제시해 독자에게 내용을 인상 깊게 전달하고 있다.

04 인터넷 매체 중 하나인 블로그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올릴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블로그는 한 명의 사용자만 있어도 운영될 수 있으며, 글은 올린 시간 순서대로 게재된다.

③ 블로그에서는 댓글을 통해 글쓴이와 독자 간의 소통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④ 블로그를 활용하여 글을 쓸 때 다른 사람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나 그 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⑤ 블로그는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이 없는 사용자라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05 <보기>는 대상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을 보여 주는 통계 자료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한눈에 보여 준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보기>는 유아동, 청소년, 성인, 60대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을 보여 줄 뿐이므로, 스마트폰 노안의 심각성이나 스마트폰 노안이 증가하게 된 여러 원인과 그 해결 방법을 보여 주는 자료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⑤ <보기>의 수치를 통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지만, 이 수치만으로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고통받는 청소년의 실상을 생생하게 보여 주기는 어렵다.

06 ㉠은 젊은 세대들이 겪는 신종 노안(스마트폰 노안)을 가리키는 제목으로, '노안(老眼)'은 늙어 시력이 나빠짐을 의미하므로 '젊은 노안'은 역설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글쓴이는 이러한 표현을 활용하여 앞으로 설명할 내용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07 서술형 글쓴이는 한 남자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잘 보이지 않는 듯 미간을 찌푸리고 있는 그림을 제시하여 문제 상황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문제 상황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려 했음을 썼다.	☐
읽는 이의 흥미를 높여려 했음을 썼다.	☐

08 제시된 글은 새로운 매체 형태인 카드 뉴스로,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카드 뉴스는 화면을 옆으로 밀어 보는 것이 특징으로, 스마트폰과 같은 이동 통신 맞춤형 뉴스이다.

오답 풀이 ① 카드 뉴스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보도된다.

② 카드 뉴스는 누리 소통망(SNS)에서 쉽게 볼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④ 카드 뉴스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보다는 사회적인 이슈를 주로 다룬다.

⑤ 카드 뉴스는 스크롤바를 내리며 읽는 장문의 기사 대신, 짧은 글을 사진 여러 장에 얹어 사진을 한 장씩 넘겨 보는 형식이다.

09 이 글은 사이버 불링의 문제를 그림, 사진, 문자 등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동영상 형태의 자료가 활용되지 않

았으므로 동영상을 중심으로 내용을 제시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0 (다)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므로, 지진에 대한 확실한 대처법이 없다는 정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가)에서 지진이란 지층에 큰 힘이 작용하면 그 힘을 견디지 못한 지층이 결국 끊어지고, 그 과정에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을 뜻함을 알 수 있다.

④ (나)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수도·가스·통신 등의 사회 기반 시설이 파괴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나)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땅이 뒤틀리면서 지상 및 지하 구조물이 붕괴되기도 하고, 해일과 산사태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생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1 이 강연의 주제는 지진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지진 발생 시 대처법이다. 연도별 평균 기온을 나타낸 그래프는 이 강연의 주제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매체 자료이다.

12 서술형 강연자는 (가)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으며, ㉠을 보면서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말하고 있다.

13 강연자는 ㉠을 보여 주기 전에, 이미 지진 발생 시 대처법을 말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과 <보기>는 형태만 다를 뿐, 모두 강연자의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보조 자료의 성격을 띠므로, 강연자가 이 자료들을 꼭 활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과 <보기>는 모두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지진 대처법을 구분하고 있다.

② ㉠과 <보기>에는 같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각각 표와 그림이라는 자료의 형태를 띤다. 따라서 이 두 자료를 통해 매체 자료의 형태가 독자에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 비교해 볼 수 있다.

③ 동영상은 상황이나 사건, 대상의 움직임을 실감 나게 보여 줄 수 있으므로, ㉠과 <보기>의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시하면 상황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⑤ <보기>는 대상의 모양이나 위치 등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그림으로 보여 주고 있으므로, ㉠의 자료보다 시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14 소설을 만화로 재구성하면 칸 사이의 생략된 내용을 유추하며 읽는 재미를 줄 수 있다(ㄷ). 또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다(ㄴ).

오답 풀이 ㄱ. 만화는 지면과 표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소설보다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전달하기는 어렵다.

ㄴ. 만화는 그림을 통해 인물의 외양을 직접 보여 준다.

15 서술형 '바람'은 '높은 절벽'과 '높은 바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이며, '눈'은 '푸른 숲'과 '푸른 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존재이다. '절벽'과 '바위', '숲'과 '대'가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바람'과 '눈'은 모두 '춘향'에게 닥친 시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춘향'은 '변학도'와 '어사포'의 수청 요구, 즉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이처럼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16 ‘어사또’가 지은 시는 탐관오리의 횡포를 질타하는 내용으로, 앞으로 지금의 상황과는 다른 새로운 사건이 벌어질 것임을 예고한다. 즉, 이 시는 소설의 극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⑤ 탐관오리로 인해 백성들이 고통받는 현실 상황에 대한 작가의 비판 의식이 담겨 있다.

③ 시의 내용으로 미루어 앞으로 암행어사 출두 등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④ ‘어사또’는 시를 통해 백성들과 달리 흥청망청 잔치를 즐기고 있는 양반들의 행동을 질타함으로써 백성과 양반이 서로 동등하다는 평등의식과 인간 존중 사상을 드러내고 있다.

17 <보기>는 (다)의 한 장면을 만화로 재구성한 것으로, (다)와 마찬가지로 ‘어사또’가 등장하며, (다)와 다른 새로운 인물은 등장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암행어사’, ‘출두야!’라는 글꼴에 변화를 주고, 글자 크기를 크게 하여 내용을 강조하였다.

② ‘암행어사’, ‘출두야!’라는 말이 담긴 말풍선의 모양을 바꾸어 독자의 시선을 끌고 있다.

③ 하단의 컷에서 핵심 사건인 암행어사 출두를 강조하기 위해 장면을 확대하였다.

⑤ 상단의 두 컷과 하단의 컷에서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18 <보기 1>의 ‘춘향’은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몽룡’을 향한 절개를 굳게 지키고자 하는 반면, <보기 2>의 ‘춘향’은 신분 상승을 향한 욕망을 직접 드러내며 ‘몽룡’과의 사랑을 저버려려 한다.

【 참고 자료 】 평면적인 인물과 입체적인 인물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성격 변화의 유무에 따라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로 구분할 수 있다. 평면적인 인물은 끝까지 성격 변화가 거의 없는 인물로, 성격에 변화가 없어 독자가 인물의 행동을 쉽게 짐작할 수 있으나 단순하고 개성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입체적 인물은 사건이 전개되면서 성격이 변하는 인물로,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맞서면서 성격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나 인물의 주된 성격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19 ㉠은 ‘어사또’의 수청 요구에 대한 ‘춘향’의 대답이다. ‘춘향’은 ㉠과 같이 말하며 ‘어사또’가 ‘변학도’ 못지않은 부정한 관리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편집자적 논평으로, ‘어사또’의 심정과 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② ‘운봉’이 ‘어사또’가 지은 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깜짝 놀라고 있다.

③ 암행어사의 위세를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하여 산천초목과 금수가 떨고 있다고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다.

⑤ ‘몽룡’과 ‘춘향’의 여생을 한마디로 압축하여 전달하고 있다.

20 서술형 ㉠은 음식인 ‘갈비’와 신체 부위인 ‘갈비’의 말소리가 같은 것에 착안한 언어유희이며, ㉡는 낱말의 위치를 바꾸어 표현한 언어유희이다.

평가 기준	확인
언어유희를 사용하고 있음을 썼다.	☐
읽는 이의 웃음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음을 썼다.	☐

21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어떤 시련을 겪은 뒤에 더 강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으로, 친구와 싸워 우울해하는 친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나면 더 돈독한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위로해 줄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우물에 가 송농 찾는다’는 일의 순서를 무시하고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③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자기 지식만 믿고 경솔하게 행동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④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각자 자기주장만 내세워 의견이 모이지 않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⑤ ‘벼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잘난체 하는 사람에게 조언할 때, 겸손한 사람을 칭찬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22 <보기>는 관용 표현이다. 관용 표현은 둘 이상의 단어가 합해져 새로운 뜻을 지니게 된 말로(ㄷ),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널리 쓰이면서 굳어진 표현이다(ㄴ).

오답 풀이 ㄴ은 명언, ㄷ은 명언과 격언에 대한 설명이다.

23 <보기>의 명언은 도전과 노력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①의 명언 역시 항상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기>의 주제와 비슷하다.

오답 풀이 ②, ④ 우정에 관한 명언이다.

③ 겸손한 태도에 관한 명언이다.

⑤ 사랑에 관한 명언이다.

24 ㉠은 ‘음식 따위를 몹시 먹고 싶어 하다.’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이다. ③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일이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로, 속담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관용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① ‘갈 길이 멀다’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용 표현이다.

② ‘나 몰라라 하다’는 어떤 일에 무관심한 태도로 상관하지도 아니하고 간섭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용 표현이다.

④ ‘배꼽을 쥐다’는 웃음을 참지 못하여 배를 움켜잡고 크게 웃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용 표현이다.

⑤ ‘시간 가는 줄 모르다’는 몹시 바빠 진행되거나 어떤 일에 몰두하여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알지 못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관용 표현이다.

25 서술형 글쓴이는 ‘아끼다 톡 된다.’라는 속담을 재구성한 ‘아끼다 톡 될지라도’라는 표현을 통해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사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글쓴이의 의도를 정확하게 썼다.	☐
70%정도 썼다.	☐

- 01 ② 02 ·〈보기〉의 자료가 활용된 부분: (다) ·적절한 주제: 자전거의 조립 방법, 운동 경기 장면, 춤 동작 등
- 03 ③ 04 ⑤ 05 ④ 06 ② 07 ⑤
- 08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약도 09 ① 10 ③
- 11 ② 12 ⑤ 13 ② 14 ② 15 ③
- 16 ④ 17 ⑤ 18 ⑤ 19 시련이 닥쳐도 '몽룡'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지킬 것이다. 20 ③ 21 ①
- 22 ④ 23 ⑤ 24 방학 기간 내내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내는 동생에게 충고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25 ①

01 (가)는 스마트폰 중독을 경고하는 광고문이고, (나)~(라)는 스마트폰 노안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블로그 글이다. 따라서 (가)와 (나)~(라)는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권유하기 위해 제작하거나 쓴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02 **서술형** 〈보기〉에서 설명하는 매체 자료는 동영상으로, (다)에서 활용되었다. 동영상은 자전거의 조립 방법이나 운동 경기 장면 등과 같이 과정이나 동작을 생생하게 보여 주어야 하는 주제를 다룰 때 효과적이다.

평가 기준	확인
동영상이 사용된 부분의 기호를 썼다.	☐
동영상을 활용하기에 적절한 주제를 한 가지 이상 썼다.	☐

03 (가)는 비슷한 형태의 두 의문문을 대구 형식으로 나타낸 광고 문구와, 광고 문구의 내용을 표현한 사진을 함께 보여 주어 스마트폰 중독을 경고하는 제작 의도를 강조하였다.

- 오답 풀이** ①, ② 광고에 등장하는 사람의 얼굴이 모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인지 알아보기 어렵다.
- ④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을 나란히 배열하는 대구법을 활용해 광고 문구를 나타내었다.
- ⑤ 사람과 사람이 아닌, 사람과 스마트폰이 서로를 잡고 있는 상황을 사진으로 나타내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강조하였다.

04 블로그는 인터넷 환경만 갖추면 읽는 이가 글을 접할 수 있으므로 사용 환경이 복잡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블로그에 글을 쓰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다.

05 (라)에 제시된 진단 항목 중 세 가지 이상에 해당할 때 스마트폰 노안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으므로 어깨에 통증이 있다는 것만으로 스마트폰 노안이라고 진단할 수는 없다.

06 (나)는 젊은 세대가 많이 겪는 신종 노안을 다루고 있고, (다)는 스마트폰 노안이 위험한 까닭을 다루고 있으므로 ㉠에는 '젊은 노안?', ㉡에는 '스마트폰 노안의 위험성'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7 제시된 매체는 카드 뉴스로, 그림과 사진 같은 시각 자료를 통해 사이버 불링이 주는 고통을 전달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카드 뉴스는 그림이나 사진 등의 시각 자료를 통해 내용을 전달한다.
- ② 카드 뉴스는 이동 통신 맞춤형 뉴스로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다.
- ③ 제시된 카드 뉴스의 특징은 스마트폰 화면을 옆으로 밀어서 보는 것이다.
- ④ 제시된 카드 뉴스는 가상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불링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08 **서술형** 제시된 초대장에는 찾아오는 길이 글로만 제시되어 있어 행복 중학교의 정확한 위치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약도'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09 이 강연의 목적은 지진의 발생 원인, 지진 피해 사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지진 발생 시 대처법 등 지진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 오답 풀이** ② (가)의 '행복 중학교 2학년 3반 학생 여러분', '오늘 지진을 주제로' 등을 통해 이 강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지진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강연자의 말을 통해 (가)에서 포스터, (나)에서 동영상, (다)에서 사진, (라)에서 그림, (마)에서 표가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나)의 '잠시 후에' 이처럼 지진은~, (다)의 '사진을 가리키며' 지진이 발생하면~ 등을 통해 강연자가 자료마다 설명을 덧붙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가)에서 '~무엇을 다룬 영화일까요?'와 같이 강연자는 질문을 던지며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10 이 강연에서는 지진의 전조 현상이나 지진을 막는 방법은 설명하지 않았다.

11 (나)에서 화산 활동은 지진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지진의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

- 오답 풀이** ① (다)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의 피해 사례를 대략적으로만 설명했기 때문에 지진 피해와 관련된 상세한 다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 ③ (라)에서 '불의 고리'에서 지진 대부분이 일어난다고 설명하였으나 정확한 통계는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지역에 속한 나라들의 지진 발생 빈도를 더 조사해 볼 수 있다.
- ④ (마)를 통해 지진 대처법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활용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 ⑤ (마)에서 지진 대처법을 표를 활용해 설명했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동생에게 그림을 통해 더 쉽게 설명해 주고 싶다고 말할 수 있다.

12 내용을 실감 나고 생생하게 전달하는 매체 자료는 동영상이며 ㉠에 제시된 표는 장소에 따른 지진 대처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각 상황에 적합한 대처 방법을 자세히 알 수 있게 해준다.

13 (가)~(다)의 핵심 사건은 '암행어사 출두'이다. 암행어사 출두 사건을 기준으로 이야기의 분위기와 인물들의 처지가 달라진다.

오답 풀이 ① (가)~(다)는 자유연애 사상과 평등사상을 고취한 반봉건적 문학으로 평가받는 고전 소설이다. 따라서 고전 소설로서 작품이 지닌 의미를 생각하며 감상해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③ (가)~(다)는 조선 후기 서민의 풍속과 당대 사회에 쏘고 있던 근대 의식을 반영한 작품이다. 따라서 조선 후기의 시대적 가치를 해석하며 감상해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④ (라)~(마)는 원작인 고전 소설의 소재와 성격, 주제 등을 살리되 이를 만화라는 갈래로 표현한 작품이므로, 갈래의 재구성 양상을 살펴봄에 감상해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⑤ (라)~(마)는 '칸'이라는 틀 안에 여러 장면을 나누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으므로, 칸과 칸 사이에 생략된 내용을 유추하며 감상해 보는 것은 적절하다.

14 역순행적 구성은 시간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소설의 내용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소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15 '어사또'가 지은 시의 내용을 눈치채지 못하는 '변학도'는 아둔하고 눈치가 없는 인물인 반면, 어사출두를 예감하고 공형을 불러 수하들을 단속하는 '운봉'은 총명하고 눈치가 빠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16 (라)~(마)는 고전 소설 「춘향전」을 재구성한 만화이다. 만화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에는 그림, 말풍선, 줄글이 있는데, 그 중 〈보기〉는 '말풍선'에 대한 설명이다.

17 (라)~(마)에는 어사출두로 혼비백산한 관리들의 모습과 '어사또'의 시험에도 곧은 절개를 보이는 '춘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이들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한지는 잘 드러나 있지 않다.

18 (마)는 원작인 고전 소설 「춘향전」의 내용을 잘 살리고 있지만, 〈보기〉는 절개보다 실리에 가치를 두는 '춘향'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인물의 성격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구성하고 있다.

19 **서술형** 시련을 상징하는 '바람, 눈'과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높은 절벽과 바위, 푸른 솔과 대'를 통해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몽룡'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춘향'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비유적 표현에 담긴 상징적 의미로 '시련'과 '지조와 절개'를 포함하여 답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20 ㉠에서 말풍선을 날카롭게 표현한 이유는 '본관 사또'가 아파하며 외치는 소리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이다.

21 '하루 종일 놀다가 ~ 숙제를 하려는데'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는 게으른 사람이 일하기 싫어 한 번에 많이 해치우려 함을 빈정대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22 가까운 데 있는 물건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은 대상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리어 대상에 대해 잘 알기 어렵다는 의미의 '등잔 밑이 어둡다'이다.

오답 풀이 ① 자기 지식만 믿고 경솔하게 행동하다 낭패를 보는 상황이므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가 적절하다.

② 서로 자기주장만 내세워 의견이 모이지 않는 상황이므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가 적절하다.

③ 일의 순서를 무시하고 성급하게 구는 상황이므로 '우물에 가 송충 찾는다'가 적절하다.

⑤ 상대방의 칭찬에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므로 '벼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가 적절하다.

23 '발(이) 묶이다'는 '몸을 움직일 수 없거나 활동할 수 없는 형편이 되다'를 의미하는 관용 표현이다. 과거의 행동을 정리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용 표현은 '어떤 일에서 관계를 완전히 끊고 물러나다'를 의미하는 '발(을) 빼다'이다.

오답 풀이 ① '침을 삼키다'는 음식 따위를 몹시 먹고 싶어 하다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② '시간 가는 줄 모르다'는 몹시 바빠 진행되거나 어떤 일에 몰두하여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알지 못하다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③ '배꼽을 쥐다'는 웃음을 참지 못하여 배를 움켜잡고 크게 웃다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④ '둘도 없다'는 오직 하나뿐이고 더 이상은 없다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24 **서술형** 〈보기〉는 시간과 관련된 명언으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사람에게 충고나 조언의 뜻을 전달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제시된 명언들이 '시간'과 관련된 것임을 이해하였다.	☐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는 상황을 썼다.	☐

25 〈보기〉의 만화 속 여우는 나무에 열린 포도를 따 먹으려고 하다가 너무 높아 포도가 잘 안 따지자, 안 익어서 뭍을 거라며 포도 따기를 포기하고 있다. 이처럼 자기 합리화를 하며 쉽게 포기하는 여우에게는 끝까지 노력하는 자세를 권면하는 말이 필요하다. '아끼다 똥 된다'는 물건을 너무 아끼기만 하다가는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이므로, 여우의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②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는 실패가 경험이 되어 성공의 밑바탕이 된다는 뜻으로, 실패해도 좌절하지 말고 계속 노력할 것을 이르는 말이다.

③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어려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고난이나 고생 끝에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④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성공하게 만든다는 뜻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이 중요함을 이르는 말이다.

⑤ 목표를 이루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면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m e m 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정답과 해설



중등국어 2-2



정답과 해설



1. 소통하고 공감하는 삶

(1)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관점

본문 2~9쪽

핵심 체크

- 01 (1) ○ (2) × 02 일가친척, 외로움, 연민
03 (1) 이기주의 (2) 편지, 갈취 04 (1) 꽃 (2) 때

문제 맞보기

- 01 ④ 02 ④ 03 ④ 04 풀, 잡초

내공 확인 문제

- 01 ⑤ 02 ⑤ 03 ② 04 ⑤
05 ⑤ 06 ④

내공 심화 문제

- 01 ④ 02 ② 03 ⑤ 04 ⑤
05 ⑤ 06 '민지'는 ㉠을 '꽃'으로 여기는 반면
에, 말하는 이는 ㉠을 '잡초'로 여기고 있다.

어휘 문제

- 01 ㉠ 02 ㉡ 03 ㉢
04 농로 05 농치다 06 부득불
07 유아무야 08 초입 09 혈육
10 일가 11 ㉠

핵심 체크

01 (1) '나'는 열여섯 살의 청소년으로, 같은 또래인 '미옥'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2) '나'는 일가인 '아저씨'가 집을 떠난 이후 '아저씨'의 외로움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린다. 이를 통해 '나'가 정신적으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02 「일가」는 일가인 '아저씨'가 집에 찾아온 뒤 청소년인 '나'가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더불어 '나'의 시선으로 어른들의 세계를 들여다보게 함으로써, 일가 친척의 의미가 점점 퇴색해 가고 있는 오늘날의 세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하였다. 하지만 이 작품은 오늘날의 세태를 비판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가 일가인 '아저씨'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아저씨'에게 연민을 느끼는 모습에서 가족 이기주의의 극복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03 (1) '아저씨'는 일가친척으로서 '나'의 가족에게 친밀감을 드러내려 하지만, 결국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나'의 집을 떠나게 된다. 이를 통해 가족 이기주의가 만연한 현대 사회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2) '엄마'는 이성 문제에 휩쓸리다 보면 성적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나'가 '미옥'에게 받은 편지를 압수한다. 이에 대해 '아버지'는 '엄마'가 '나'의 편지를 '갈취'한 것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엄마'와 '아버지'의 갈등은 심화된다.

04 (1) '민지'는 '나싱개, 토끼풀'과 같은 잡초를 '꽃'이라고 하면서 물을 주고 있다.

(2)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민지'의 순수하고 맑은 마음에 감동받아, 세속의 때가 묻어 있는 자신을 반성하게 된다.

문제 맞보기

01 「일가」의 결말 부분에서 '나'는 '미옥'에 대한 미련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아저씨'의 외로움을 이해하게 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02 「일가」의 결말 부분에서 '아버지'는 '나'가 '아저씨'를 언급하자 "누구?"라고 되물으면서 애매모호하게 대답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아버지'가 '아저씨'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3 「일가」에서 '엄마'와 '아버지'는 표면적으로 '엄마'가 '나'의 편지를 압수한 일 때문에 갈등하게 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저씨'가 떠나지 않고 집에 계속 머물고 있기 때문에 갈등하게 된 것이다.

04 「민지의 꽃」에서 '민지'는 '나싱개, 토끼풀' 등을 '꽃'으로 여겼지만, 말하는 이는 풀이나 잡초라고 생각했다.

내공 확인 문제

01 (라)를 통해 '엄마'가 '미옥'에게 받은 '나'의 편지를 압수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지만, '엄마'가 편지의 내용까지 확인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아저씨'가 "아아, 일가가 좋긴 좋구만이. 참 보는데도 고저 피가 확 땀기는 거이."라고 말하는 데에서 알 수 있다.

② (다)에서 '나'는 '미옥'이가 보낸 편지를 읽고 싶었지만, '아저씨'가 신경 쓰여 편지를 뜯어보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③ (가)에서 '나'가 '아버지'에게 '미옥'에게 고백하는 방법에 대해 물어보자, '아버지'가 편지를 써 보라고 조언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④ (마)에서 '엄마'가 '아버지'에게 "지금 재 나이가 몇 살이야? 이제 겨우 열여섯 살짜리한테 무슨 놈의 연애편지야?"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다.

02 (마)에서 '엄마'가 '나'의 편지를 압수한 것에 대하여,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한테 온 편지를 갈취해?"라고 말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03 (다)에서 ‘나’가 ‘아저씨’가 신경 쓰여 편지를 읽지 못한 것이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아버지’와 ‘아저씨’에 대하여 냉소적으로 생각한 것에서 ‘나’가 ‘아저씨’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자상을 펴는 ‘엄마’의 얼굴에 수심이 깔린 것에서 ‘엄마’ 역시 ‘아저씨’를 못마땅해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04 ㉠은 ‘나’가 ‘미옥’에게 받은 편지 때문에 ‘엄마’와 ‘아버지’가 갈등하게 되면서 이리저리도 저리저리도 못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일 뿐, 두 사람을 말리려는 마음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05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세속의 때가 묻은 자신과 달리, ‘질경이, 나상개, 토끼풀, 억새’와 같은 사소한 존재조차도 아무런 편견 없이 바라보는 ‘민지’의 순수하고 맑은 마음에 감동을 받고,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있다. 즉, 자연과 어우러져 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고정 관념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자기 자신을 성찰한 것이다.

06 이 시에서 아무런 편견 없이 사물을 바라보는 ‘민지’와 달리 말하는 이는 고정 관념이나 편견으로 사물을 바라보았음을 깨닫고는, 세속의 때가 묻은 자신을 반성하게 된다.

오답 풀이 ①, ③ ‘민지’가 자연 속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민지’가 잡초들을 꽃으로 여긴 것은 ‘민지’가 사물의 본질을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순수하고 맑은 마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② 말하는 이가 다섯 살배기 ‘민지’를 보면서 감동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린 것은 아니다.

⑤ 말하는 이는 자신의 편견이나 고정 관념으로 사물을 바라본 것일 뿐, 그 사물이 무엇인지 몰라 대상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내공 심화 문제

01 이 글의 서술자는 주인공인 ‘나’이다. ‘나’는 자신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전달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속마음을 자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참고 자료】 소설에서의 서술자

서술자는 작품 속에서 말하거나 보는 이를 가리킨다. 이러한 서술자는 크게 작품 속 서술자와 작품 밖 서술자로 분류할 수 있다. 작품 속 서술자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나’로, 중심인물인지 주변 인물인지에 따라 1인칭 주인공 시점과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분류한다. 한편 작품 밖 서술자는 등장인물 외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존재를 가리키는데, 등장인물의 속마음이나 사건의 진상을 모두 알고 있는지, 등장인물이나 사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전달하고 있는지에 따라 전지적 작가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나뉜다.

02 (라)에서 ‘나’가 ‘엄마’가 집을 나간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었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이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미루어 추측한 것일 뿐 ‘엄마’가 직접 어디로 가는지 밝힌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마)에서 ‘아버지’가 “아, 글썄, 가실 거면 정식으로 아침이라도 드시고 갈 일이지, 부득불 새벽차를 타야 한다고 하구서 결국 떠나셨잖나.”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③ (가)에서 ‘나’가 “어쩐 일인지 다음 날이 …… 우리 집 일꾼으로 들어온 사람처럼 구는 것이었다.”라고 서술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④ (라)에서 ‘아저씨’가 “나 때문에 제수씨가 집을 나간 게라면 정말 동생한테 미안하오.”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⑤ (가)에서 ‘나’가 “내가 답답한 것은 우리 식구만 …… ‘조선 사람의 예의범절’을 따지는 손님이니, 신경이 보통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서술한 것에서 알 수 있다.

03 ‘엄마’와 ‘아버지’는 표면적으로는 ‘나’가 ‘미옥’에게 받은 편지를 ‘엄마’가 압수한 일 때문에 다투게 된다. 하지만 ‘엄마’와 ‘아버지’가 대립하는 밑바닥 감정에는 ‘아저씨’의 존재가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아저씨’가 ‘나’의 집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갈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04 ‘나’와 ‘아버지’가 자신도 모르게 ‘아저씨’의 말투를 따라한 것은, 며칠 동안 함께 지내면서 그만큼 ‘아저씨’와 심리적으로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05 <보기>는 ‘아저씨’의 입장에서 (마)를 재구성한 것으로, ‘아저씨’가 자신의 생각이나 심정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는 (마)에서 인물들의 말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짐작할 수 있는 ‘아저씨’의 심리를, 읽는 이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

06 **서술형** <보기>의 시에서 ‘민지’는 ‘질경이 나상개 토끼풀 억새’와 같은 풀을 ‘꽃’이라고 생각하면서 물을 준다. 하지만 말하는 이는 그것들을 ‘잡초’라고 생각하여 그걸 잡초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자신이 세상의 때가 묻어 있음을 깨닫고는 입을 닫는다.

평가 기준	확인
‘민지’가 ㉠을 무엇으로 인식하였는지 썼다.	☐
말하는 이가 ㉡을 무엇으로 인식하였는지 썼다.	☐

어휘 문제

01 ‘백부’는 ‘둘 이상의 아버지의 형 가운데 맏이가 되는 형을 이르는 말.’로, ‘이번 주에는 백부께서 온 가족을 소집하여 고향에 내려가야 한다.’와 같이 쓰인다.

02 ‘혈육’은 ‘부모, 자식, 형제 따위의 한 혈통으로 맺어진 육친.’을 뜻하는 말로, ‘혈육 관계’, ‘혈육의 정’과 같이 쓰인다.

03 ‘당숙’은 ‘아버지의 사촌 형제.’를 뜻하는 말로, ‘오늘은 당숙께서 집에 찾아오셨다.’와 같이 쓰인다.

04 ‘농사에 이용되는 길.’을 뜻하는 말은 ‘농로’이다. ‘농토’는 ‘농사짓는 땅.’을 뜻한다.

05 ‘마음 따위를 풀어 누그러지게 하다.’를 뜻하는 말은 ‘농치다’이다. ‘농치다’는 ‘잡거나 쥐고 있던 것을 떨어뜨리거나 빠뜨리다.’라는 뜻이다.

06 ‘마음이 내키지 아니하나 마지못하여.’를 뜻하는 말은 ‘부득불’이다. ‘불가불’은 ‘나눌 수가 없음.’을 뜻한다.

07 제시된 문장은 수사가 어떻게 끝났다는 맥락이므로, ‘있는 듯 없는 듯 흐지부지함.’을 뜻하는 ‘유야무야’가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08 제시된 문장은 어떤 장소나 시간에서부터 떨리기 시작했다는 맥락이므로, ‘골목이나 문 따위에 들어가는 어귀.’를 뜻하는 ‘초입’이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09 제시된 문장은 그 할아버지가 돌보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다는 맥락이므로, ‘부모, 자식, 형제 따위의 한 혈통으로 맺어진 육친.’을 뜻하는 ‘혈육’이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10 제시된 문장은 자녀를 여럿 두어 행복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는 맥락이므로, ‘한집에서 사는 가족.’을 뜻하는 ‘일가’가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11 오늘따라 무척 힘이 남아도는 것이 자신이 좋아하는 이성 때문이라고 하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의문을 드러낸 것이므로, ‘남세스럽다’는 ‘남에게 놀림과 비웃음을 받을 듯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공감하며 듣기

본문 10~17쪽

핵심 체크

- 01** (1) × (2) ○ **02** (1) 소극적 (2) 적극적
03 (1) ○ (2) ○ (3) ×

문제 맞보기

- 01** ④ **02** ④ **03** ③

내공 확인 문제

- 01** ④ **02** ④ **03** ③ **04** 소극적
들어 주기 **05** ③ **06** ④ **07** 그러니까
네가 용기 내서 마음을 표현했는데, 도현이가 반응
이 없어서 속상한가 보구나. **08** ④

내공 심화 문제

- 01** ⑤ **02** ④ **03** ③ **04** ③
05 ③ **06** ‘민정’이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여, ‘도현’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이
유가 친구들 앞이라 부끄러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하
게 되었다. **07** ①

어휘 문제

- 01** ㉔ **02** ㉔ **03** ㉔
04 촌철살인 **05** 단도직입 **06** 설왕설래
07 건강부회 **08** 삼인성호 **09** ⑤

핵심 체크

01 (1) 상대와 대화를 할 때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맞추는 것은,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의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2) 상대의 생각이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며 들으면, 말하는 이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02 (1) 소극적 들어 주기란 상대에게 관심을 드러내어 말하는 이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자기 생각과 느낌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대화 맥락을 조절해 주는 방법으로, 상대와 눈 마주치기, 상대의 말에 고개 끄덕이기 등의 방법이 있다.

(2) 적극적 들어 주기란 상대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말하는 이의 말을 요약하거나 정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03 (1) ‘황희 정승’은 두 사람의 처지와 심정을 헤아려, 제사를 지내도 되는지에 대한 두 사람의 질문에 각기 다른 대답을 해 주고 있다.

(2) “그래, 지내야지.”, “그래, 안 지내야지.”라는 대답은, 두 사람의 질문에 맞장구를 쳐 준 것으로, 소극적 들어 주기의 방법을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황희 정승’은 소극적 들어 주기 방법을 활용하여 맞장구만 쳐 주고 있을 뿐, 적극적 들어 주기 방법을 활용하여 상대가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있지는 않다.

문제 맞보기

01 상대의 말에 논리적 오류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상대의 처지나 감정에 공감하기보다 상대의 말을 분석하여 문제를 찾아 내기 위한 것이다. 이는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감적 듣기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02 공감적 듣기를 하면 상대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상대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협력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또한 말하는 이가 대화에 편하게 참여하게 해 준다.

03 ‘윤하’는 시험을 못 봐서 속상해하고 있는 ‘민재’의 심정을 이해해 주지 않고,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고 있다.

내공 확인 문제

01 제시된 만화에서 형은 동생의 말을 건성으로 듣는 것도 모자라, 동생의 심정을 이해하지 않고 제 생각만 말하고 있다. 또한 동생을 비하하는 듯한 태도로 말하고 있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02 이 대화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이 동생의 고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협력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상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분석하는 것은,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03 이 대화에서 '황희 정승'은 제사를 지내도 되는지를 묻는 두 사람의 질문에 각기 다른 대답을 하고 있다. '황희 정승'이 이와 같이 다르게 대답한 까닭은 제사를 지낼지 여부에 대한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즉, 두 사람의 심정을 먼저 헤아려 그에 알맞게 대답해 준 것이다.

04 서술형 '황희 정승'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이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 묻자, "그렇지, 지내야지."라고 대답해 주고 있다. 이는 상대의 질문에 맞장구를 쳐 준 것으로, 소극적 들어 주기에 해당한다.

평가 기준	확인
'소극적 들어 주기'를 밝혀 썼다.	☐
30%절로 썼다.	☐

05 '도현'이 '민정'에게 음료수를 받았는데도 아무런 말이 없었다는 내용은 있지만, '민정'과 가까워지는 것을 거부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선생님'과 '민정'의 대화 내용을 고려할 때, '도현'이 음료수를 받고도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은 부끄러움이 많아서 표현을 못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민정'이 "도현이와 친해지고 싶어서 음료수를 건넸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요."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② '선생님'은 '민정'의 고민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함께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협력적으로 대화하고 있다.

④ '선생님'은 소극적 들어 주기 방법과 적극적 들어 주기 방법을 모두 활용하면서, '민정'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⑤ '선생님'이 '민정'에게 "혹시 네가 음료수를 건넬 때, 다른 친구들도 있었니?"라고 묻자, '민정'은 "네. 청소 시간이었거든요."라고 대답하고 있다.

06 '민정'은 처음에 '도현'이 음료수를 건네받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에, '도현'이 자신을 무시하고 싫어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선생님'과 대화를 나눈 이후에는, '도현'이 부끄러움이 많아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07 서술형 <보기>의 설명은 적극적 들어 주기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밑줄 친 부분은 적극적 들어 주기의 한 방법인 상대의 말을 요약정리하는 방법으로, 상대의 말을 요약정리해 줌으로써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한편, 상대가 문제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평가 기준	확인
적극적 들어 주기 방법 중, 상대의 말을 요약정리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 썼다.	☐

08 ㉠은 상대로 하여금 계속 말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으로, 소극적 들어 주기 방법에 해당한다. 이러한 소극적 들어 주기 방법은, 상대에게 관심을 드러내어 상대가 자연

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다.

내공 심화 문제

01 <보기>의 남학생은 자신이 친구에게 고민을 말하고 싶었지만, 더는 대화하기 어려웠다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친구'가 남학생만 힘든 게 아니라면서 남학생을 비난하는 태도로 말하여 대화를 더 이어 나갈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02 제시된 만화에서 형은 동생의 말을 건성으로 듣는 한편, '동생'의 고민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지 않다.

03 제시된 대화에서 '윤하'는 '민재'의 고민을 들어 주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대화를 할 때에는 상대의 처지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할 수 있다.

04 '민재'와 '윤하'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윤하'가 '민재'의 처지나 심정에 공감해 주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태도를 보여 주어야 한다. 따라서 "그랬구나. 너무 속상했겠다."라고 '민재'의 심정에 대한 공감을 나타내면서, 어떤 과목이 어려웠는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말하고 있는 ③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민재'의 고민을 비난하는 듯한 태도로 말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

②, ④ '민재'의 기초 실력이 부족하였다고 말하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민재'의 실력이나 노력을 비하하는 말로,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⑤ '민재'의 고민에 대한 공감을 나타내기보다 자신을 자랑하는 표현이어서 오히려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05 (가)의 '황희 정승'은 자신을 찾아온 두 사람의 질문에 대하여, 두 사람의 처지나 심정이 어떠한지 먼저 헤아린 다음 그에 알맞은 대답을 하고 있다. (나)의 '선생님'은 '민정'의 고민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이해한 다음, '민정'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여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06 (나)에서 '민정'은 처음에 '도현'이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하였으나 '선생님'과 대화한 이후 '도현'이 부끄러움이 많아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처럼 '적극적 들어 주기'는 상대로 하여금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07 소극적 들어 주기 방법은 상대의 눈을 바라보면서 말을 하거나 상대의 말에 맞장구를 쳐 주면서 상대의 말을 적극적으로 들어 주고 있음을 드러내는 공감적 듣기 방법이다(㉠, ㉡, ㉢). 적극적 들어 주기 방법은 상대의 말을 요약정리하거나 상대가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상대가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공감적 듣기 방법이다(㉣, ㉤).

01 ‘공감’은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을 뜻하는 말로, ‘공감을 느끼다.’, ‘공감을 얻다.’와 같이 쓰인다.

02 ‘설치다’는 ‘필요한 정도에 미치지 못한 채로 그만두다.’라는 뜻으로, ‘밤잠을 설치다.’, ‘끼니를 설치다.’와 같이 쓰인다.

03 ‘차분하다’는 ‘마음이 가라앉아 조용하다.’라는 뜻으로, ‘차분한 성격.’, ‘말투가 차분하다.’와 같이 쓰인다.

04 제시된 문장은 선생님의 질문에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허점을 발견했다는 맥락이다. 이러한 상황을 나타내기에는 한 치의 쇠불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뜻으로, 간단한 말로도 남을 감동하게 하거나 남의 약점을 찌를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인 ‘춘철살인’이 적절하다.

05 제시된 문장은 ‘철수’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요점만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는 맥락이다. 이러한 상황을 나타내기에는 혼자서 칼 한 자루를 들고 적진으로 곧장 쳐들어간다는 뜻으로, 여러 말을 늘어놓지 아니하고 바로 요점이나 본문제를 중심으로 말함을 이르는 말인 ‘단도직입’이 적절하다.

06 제시된 문장은 청소 구역 배정 문제로 여러 학생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맥락이다. 이러한 상황을 나타내기에는 ‘서로 변론을 주고받으며 옥신각신함. 또는 말이 오고 감.’을 뜻하는 ‘설왕설래’가 적절하다.

07 제시된 문장은 ‘영수’가 토론에서 적절하지 않은 근거를 들어 억지 주장을 펼쳤다는 맥락이다. 이러한 상황을 나타내기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을 뜻하는 ‘견강부회’가 적절하다.

08 제시된 문장은 다른 사람이 모두 맞다고 하여 자신도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맥락이다. 이러한 상황을 나타내기에는 세 사람이 짜면 범이 거리에 나왔다는 거짓말로 꾸밀 수 있다는 뜻으로, 근거 없는 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곧이듣게 됨을 이르는 말인 ‘삼인성호’가 적절하다.

09 제시된 문장은 게임을 하느라 공부를 전혀 안 했으면서도 시험을 걱정하는 친구에게 조언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헛바람’은 허황된 일에 공연하게 들뜬 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임을 알 수 있다.

2. 놀라운 한글, 바른 말글살이

(1) 한글의 창제 원리

본문 18~25쪽



핵심 체크

- 01** (1) ○ (2) × **02** ㉠: ㄱ, ㄴ, ㅁ, ㅂ, ㅇ,
㉡: 상형, ㉢: 가획, ㉣: 이체자 **03** (1) 하늘
(2) 합성 **04** 음절



문제 맞보기

- 01** ③ **02** ④ **03** ② **04** ①



내공 확인 문제

- 01** ③ **02** ④ **03** ② **04** ⑤
05 ② **06** ①



내공 심화 문제

- 01** ⑤ **02** ② **03** ③ **04** ④
05 ③ **06** ‘ㅏ’가 모든 낱말에서 [ㅏ]로 발음되는 것과 달리, ‘ㅑ’는 낱말에 따라 [ㅏ]나 [ㅑ] 등으로 발음된다. 이처럼 한글은 문자와 소리가 일치하기 때문에 한글 정보화에 유리하다고 한 것이다.



어휘 문제

- 01** ㉠ **02** ㉡ **03** ㉢ **04** 표기
05 음소 **06** 군주 **07** 원리 **08** 통치
09 ②



핵심 체크

01 (1)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2) 세종 대왕은 우리말과 중국어의 말소리와 문장 구조가 달라서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한글을 창제하게 되었다.

02 한글 자음자의 기본 다섯 글자는 ‘ㄱ, ㄴ, ㅁ, ㅂ, ㅇ’이며, 이는 상형의 원리에 따라 사람의 발음 기관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그리고 이 기본 다섯 글자에 획을 더하는 방식(가획의 원리)으로 ‘ㄷ, ㅌ, ㅈ, ㅊ, ㅍ, ㅅ, ㅆ, ㅊ, ㅎ’ 등의 글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가획자에 더해진 획은 기본자보다 소리가 세지는 특성이 있지만,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 중, ‘ㄹ, ㅎ, ㅅ’은 소리가 세지는 특성이 없다. 이러한 글자를 ‘이체자’라고 한다.

03 (1) 모음자의 기본 글자 중 ‘ㅏ’는 하늘의 둥근 모양을, ‘ㅑ’는 땅의 평평한 모양을, ‘ㅣ’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 만든 것이다.

(2) ‘ㅏ, ㅑ, ㅓ, ㅕ’는 모음자의 기본 글자 ‘ㅏ, ㅑ, ㅣ’를 한 번씩 합성하는 방식으로 만든 초출자이다.

04 세종 대왕은 소리를 구분하는 최소 단위인 음소로 한글 자음자와 모음자를 만든 후, 이를 소리를 내는 최소 단위인 음절로 모아쓰게 하였다.

 문제 맛보기

01 세종 대왕은 온종일 일하느라 한자를 배울 시간조차 내기 어려웠던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누구나 쉽게 배우고 편히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고자 하였는데, 여기에서 한글 창제에 담긴 실용 정신을 엿볼 수 있다.

02 한글 자음자는 상형의 원리와 가획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자음자 외에, 자음자 둘을 위아래로 잇대어 쓰는 방법으로 ‘ㄹ, ㄴ, ㅍ, ㅅ’과 같은 글자를 만들어 썼다.

03 ‘ㄷ’은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떠 만든 자음자인 ‘ㄴ’에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이다.

04 ‘ㄹ’은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떠 만든 ‘ㄴ’에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이지만, 획을 더한 것이 소리가 세짐을 나타내는 ‘ㄷ, ㅌ’과 달리 더해진 획이 소리가 세짐을 뜻하지 않는다. 이러한 글자를 ‘이체자’라고 한다.

내공 **확인 문제**

01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 가난하게 생활했던 일반 백성들은, 온종일 일하느라 한자를 배우기 위한 시간을 내는 것조차 어려웠다. 이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양반과 사용하는 문자가 달랐던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한글 창제 배경

- 중국어와 다른 우리말을 한자로는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 한자는 글자 수가 많아 백성이 이를 모두 익히기 어려웠다.
- 백성이 지혜로워지려면 누구나 쉽게 배우고, 편히 쓸 수 있는 글자가 필요했다.

02 [A]에서 백성은 팻말에 적힌 ‘伐木禁止(벌목 금지)’라는 글자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 나무를 베었다가, 결국 벌을 받고 만다. 백성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은, 한자가 어렵기도 하고 당시 백성들은 그것을 배우기 위한 시간을 낼 수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03 우리말과 중국어의 말소리와 문장 구조가 다름을 인식한 것에서 자주정신을 엿볼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배우고 편히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한 것에서 실용 정신을 엿볼 수 있다.

04 자음의 가획자는 자음 기본자 ‘ㄱ, ㄴ, ㄹ, ㅁ, ㅂ, ㅅ, ㅇ’에 획을 더하여 소리가 세짐을 나타내었다. 자음자를 나란히 쓰는 방식으로 글자를 만든 것은 ‘ㄲ, ㄸ, ㅆ, ㅈ, ㅊ’으로 가획의 원리에 따라 만든 것이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모음 기본자는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로 각각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② 모음 기본자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를 한 번씩 합성하여 모음의 초출자 ‘ㅘ, ㅙ, ㅚ, ㅛ, ㅜ, ㅠ, ㅡ, ㅣ’를 만들었다.
 ③ ‘ㄱ, ㅋ’, ‘ㄴ, ㄷ, ㅌ’, ‘ㅅ, ㅆ, ㅈ’, ‘ㅁ, ㅂ, ㅍ’, ‘ㅇ, ㅎ’은 각각 비슷한 발음

기관을 사용하는 같은 계열의 글자끼리 묶은 것으로 글자 모양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④ 자음 기본자 ‘ㄱ, ㄴ, ㄹ, ㅁ, ㅂ, ㅅ, ㅇ’은 소리를 내는 기관의 움직임이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05 제시된 자음자는 모두 자음 기본자에 획을 더하는 방식으로 만든 글자들이다. 하지만 ‘ㄷ, ㅌ, ㅈ, ㅊ’은 기본자에 추가된 획이 소리가 세짐을 뜻하는 반면에, ‘ㄹ’은 추가된 획이 소리가 세짐을 의미하지 않는다.

06 자음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에 따라 소리를 내는 기관의 움직임이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가획의 원리에 따라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하는 방식으로 가획자를 만들었다. 모음 기본자는 자음 기본자와 마찬가지로 상형의 원리에 따라 하늘과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내공 **심화 문제**

01 ㉠과 ㉡은 모두 자음자 둘 이상을 나란히 쓰는 방법으로 새로운 자음자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 준 것이다. 하지만 초출자와 재출자는 모음 기본자끼리 합성하여 모음자를 만들었으므로 ㉠, ㉡과 같은 방법으로 초출자와 재출자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은 자음 기본자 ‘ㄹ’과 ‘ㅅ’에 획을 더하여 ‘ㄴ, ㅆ, ㅈ, ㅊ’을 만드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② ㉡은 자음자 둘 이상을 옆으로 나란히 쓰는 방법으로 글자를 만든 것을 보여 주고 있다. ‘ㄲ, ㅆ’은 모두 현대 국어에서 된소리를 나타내는 자음으로, 설명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③ ㉢은 자음 기본자나 가획자를 합하여 나란히 쓰는 방법으로 새로운 자음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 준다.
 ④ ㉣과 ㉤의 마지막에 제시된 ‘ㅆ, ㅈ, ㅊ, ㅊ’은 모두 자음 기본자에 획을 더하거나 기본 자음자나 가획자를 나란히 쓰는 방법으로 만든 글자들이다.

02 초출자에 ‘ㅏ’를 합성하여 만든 글자는 재출자 ‘ㅘ, ㅙ, ㅚ, ㅛ, ㅜ, ㅠ, ㅡ, ㅣ’이다. 자음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는 ‘ㄱ, ㄷ, ㅌ, ㄴ, ㅌ, ㅆ, ㅈ, ㅊ, ㅊ, ㅈ, ㅊ, ㅈ, ㅊ’이다. 자음자 둘 이상을 옆으로 나란히 쓴 글자는 ‘ㄲ, ㅆ, ㅆ, ㅆ, ㅆ’ 등이 있다. 이러한 글자를 모두 포함한 글자는 ‘뽀다귀’이다.

- 오답 풀이** ① ‘뽀다귀’에는 재출자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자동차’에는 재출자와, 자음자 둘 이상을 옆으로 나란히 쓰는 방법으로 만든 글자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까마귀’에는 가획자와 재출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⑤ ‘휴게소’에는 자음자 둘 이상을 옆으로 나란히 쓰는 방법으로 만든 글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03 모음의 기본자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는 상형의 원리에 따라 각각 하늘의 둥근 모양, 땅의 평평한 모양,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이다.

04 ㉠은 한글 자음자와 모음자를 음절 단위로 모아쓴 것인 반면에, ㉡은 한글 자음자와 모음자를 음소 단위로 풀어쓴 것이

다. 초성, 중성, 종성을 늘어놓지 않고 자모를 가로세로로 모아 쓰면 음소를 분석하지 않아도 음절 단위로 의미를 빠르게 인식할 수 있다.

05 한글은 자음자와 모음자의 수가 비슷하여 한글을 입력하는 속도가 알파벳을 입력하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한글이 컴퓨터와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세종 대왕이 이를 염두에 두고 한글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6 서술형 ‘ㄱ’은 ‘가족, 나비, 박수’ 등에서 모두 [ㄱ]로 발음되는 반면에, ‘a’는 ‘almond[아몬드], ‘about[어바웃]’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낱말에 따라 다르게 발음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음성과 소리의 일치성이 중요한 음성 인식 컴퓨터에서 한글이 매우 유리하다고 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보기〉를 예로 들어 썼다.	☐
한글과 다른 문자와의 차이점이 드러나도록 썼다.	☐

어휘 문제

01 ‘상형’은 ‘어떤 물건의 형상을 본뜬.’을 뜻하는 말로, ‘상형 문자’, ‘상형의 원리’와 같이 쓰인다.

02 ‘가획’은 ‘원글자에 획을 더함.’을 뜻하는 말로, ‘가획의 원리’와 같이 쓰인다.

03 ‘이체’는 ‘체제나 형상이 다른 것.’을 뜻하는 말이다.

04 ‘문자 또는 음성 기호로 언어를 표시함.’을 뜻하는 말은 ‘표기’이다. ‘표시’는 ‘겉으로 드러내 보임.’을 뜻하는 말이다.

05 ‘더 이상 작게 나눌 수 없는 음운론상의 최소 단위.’를 뜻하는 말은 ‘음소’이다. ‘음절’은 ‘하나의 종합된 음의 느낌을 주는 말 소리의 단위.’를 뜻하는 말이다.

06 ‘세습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은 ‘군주’이다. ‘군자’는 ‘행실이 점잖고 어질며 덕과 학식이 높은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07 제시된 문장은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전기의 무엇인가를 발견하였다는 뜻이므로, ‘사물의 근본이 되는 이치.’를 뜻하는 ‘원리’가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08 제시된 문장은 국민이 어떤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므로, ‘나라나 지역을 도맡아 다스림.’을 뜻하는 ‘통치’가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09 ‘창제’란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들거나 제정함.’을 뜻하는 말이다.

(2) 올바른 발음과 표기

본문 26~33쪽



핵심 체크

01 (1) ○ (2) × **02** ㉠: ㄱ, ㄴ, ㄷ, ㄹ, ㅁ, ㅂ, ㅇ ㉡: ㄱ ㉢: ㄷ ㉣: ㅂ

03 (1) 갑, 홀파, 여덟 (2) 흑짚난, 읍쪼릴, 점꼬

04 ㉠: ㅣ ㉡: ㅣ ㉢: ㅔ **05** (1) 마치고 (2) 반드시 (3) 부쳐어



문제 맞보기

01 ④ **02** ⑤ **03** ⑤ **04** ①



내공 확인 문제

01 ④ **02** ④ **03** ③ **04** ②
05 ① **06** ⑤ **07** ④ **08** ⑤
09 ③ **10** ⑤ **11** ⑤ **12** ⑤
13 ③ **14** ⑤ **15** ①



내공 심화 문제

01 ⑤ **02** ② **03** ④ **04** ③
05 ④ **06** 희망, 토:의 또는 토:이
07 ④ **08** ② **09** ② **10** ⑤
11 ① **12** 달히고, 반드시, 다쳤다, 반듯이
13 ①



어휘 문제

01 ㉠ **02** ㉡ **03** ㉢ **04** 반드시
05 붙이다 **06** 맞하다 **07** 다치다 **08** 소보록하게
09 너나들이 **10** ③

핵심 체크

01 (1)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를 발음할 때의 원칙을 정한 규범이다.

(2)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지만,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원칙을 세웠다.

02 우리말 받침소리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렇게 일곱 개만 사용되며, 나머지 받침은 대표음으로 바꾸어 발음한다. 즉, ‘ㄲ, ㅋ’은 [ㄱ]으로, ‘ㅅ, ㅆ, ㅈ, ㅊ, ㅌ’은 [ㄷ]으로, ‘ㅍ’은 [ㅂ]으로 발음한다.

03 (1) 겹받침 ‘ㅃ, ㅆ, ㅈ’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겹받침 중 첫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값’은 [갑], ‘홀다’는 [홀파], ‘여덟’은 [여덜]로 발음한다.

(2) 겹받침 ‘ㄹ, ㅃ, ㅆ’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겹받침 중 두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흑짚난’은 [흑짚난], ‘읍조릴’은 [읍쪼릴], ‘점꼬’는 [점꼬]로 발음한다.

04 이중 모음 ‘-이’는 [-i]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i]로 발음해야 한다. 또한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i]로, 조사 ‘의’는 [e]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05 (1) 무엇을 끝마친다는 뜻으로 사용할 때는 ‘마치다’로 표기해야 한다.

(2) 무엇을 이루겠다는 확고한 뜻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는 ‘틀림없이 꼭.’이라는 뜻을 지닌 부사 ‘반드시’로 표기해야 한다.

(3)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보낸다는 뜻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는 ‘부치다’로 표기해야 한다.

문제 맞보기

01 우리말의 받침소리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과 같이 7개의 소리만으로 발음한다.

02 ‘뒹다’의 ‘ㅍ’ 받침은 대표음 [ㅂ]으로 발음하고, [ㅂ]의 영향을 받아 두 번째 음절의 첫소리 ‘ㄷ’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즉 ‘뒹다’는 [뒹따]로 발음해야 한다.

03 ‘ㄴ’은 [ㄴ]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 민주주이]로 발음한다. ‘의리’는 [의:리]로, ‘희망’은 [희망]으로, ‘무늬’는 [무니]로, ‘떡어쓰기’는 [떡어쓰기 / 떡여쓰기]로 발음한다.

04 ‘하늘’은 [하늘]로, ‘빨강’은 [빨강]으로, ‘꽃망울’은 [꼰망울]로, ‘걸돌다’는 [걸돌다]로 발음한다.

내공 확인 문제

01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를 발음할 때의 표준을 정한 규범이다.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02 받침 ‘ㄷ, ㅅ, ㅆ, ㅈ, ㅊ, ㅌ’은 대표음 [ㄷ]으로 발음한다. 받침 ‘ㅍ’은 대표음 [ㅂ]으로 발음한다.

03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에 있는 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따라서 ‘흙을’은 [흙글]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④, ⑤ **출발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하므로, ‘무릎이’는 [무르피]로, ‘밭에서’는 [바테서]로, ‘불빛이’는 [불뻘치]로 발음해야 한다.

② 받침 ‘ㅈ’은 대표음으로 발음해야 하므로, ‘낮’은 [낫]으로 발음해야 한다.

04 ‘통로’는 받침이 없는 낱말이어서 낱말의 발음이 조사 ‘에’의 발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통로에’는 제시된 설명을 뒷받침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웃은’은 [오스]으로 발음해야 한다.

③ ‘밥솥을’은 [밥쑈를]로 발음해야 한다.

④ ‘벚꽃이’는 [벚꼬치]로 발음해야 한다.

⑤ ‘강물이’는 [강무리]로 발음해야 한다.

05 제시된 받침 중, ‘ㄹ’은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ㄹ]으로만 발음된다. ‘ㅅ, ㅈ’은 대표음 [ㄷ]으로, ‘ㅋ’은 대표음 [ㄱ]으로, ‘ㅍ’은 대표음 [ㅂ]으로 발음된다.

06 ‘옳다’는 겹받침 중 두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옳따]로 발음해야 한다.

07 ‘ㄴ’은 이중 모음으로 [ㄴ]로 발음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경우나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발음할 수 있다. 따라서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를 [ㄴ]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한 ㉔은 적절하지 않다.

08 겹받침 ‘ㅈ’은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ㄷ]로 발음한다. 또한 어간 받침 ‘ㅈ, ㅈ’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따라서 ‘옳다’는 [옳따]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④ **겹받침** ‘ㄹ, ㅈ, ㅈ’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ㅂ]으로 발음해야 하므로, ‘침’은 [침]으로, ‘젊고’는 [점:꼬]로 발음해야 한다.

② **겹받침** ‘ㄱ, ㄷ, ㅈ, ㅈ, ㅈ’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ㅂ]으로 발음해야 하므로, ‘얕다’는 [안따]로 발음해야 한다.

③ **출발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하므로, ‘짧은’은 [짧븐]으로 발음해야 한다.

09 ‘길들’은 [기를]로, ‘건다가’는 [건:따가]로, ‘꽃의’는 [꼬치 / 꼬체]로, ‘이름이’는 [이름미]로 발음하기 때문에 표기와 소리가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얀’은 [하얀]으로 발음되므로 표기와 소리가 일치한다.

10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ㅣ]로 발음하기 때문에, ‘하늬바람’은 [하늬바람]으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의사’는 ‘의’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말이 아니므로 [의사]로 발음해야 한다.

② ‘협익’의 ‘익’은 [ㅣ] 또는 [ㅣ]로 발음할 수 있으므로 [허빅] 또는 [허비]로 발음해야 한다.

③ ‘우리의’에서 조사 ‘의’는 [ㅣ] 또는 [ㅣ]로 발음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또는 [우리에]로 발음해야 한다.

④ ‘민주주의’에서 ‘의’는 [ㅣ] 또는 [ㅣ]로 발음할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 또는 [민주주이]로 발음해야 한다.

11 ‘꽃’은 [꼰]으로 발음되지만 ‘꽃이, 꽃만’과 같이 쓰이는 경우에는 각각 [꼬치], [꼰만]으로 발음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만 적을 경우 낱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㉑과 같은 규정을 정한 것이다.

12 ‘선호’는 문구점이 ‘단혀서’ 문구점에 가지 못하였다는 의미로 쓴 것이지만, ‘다쳐서’라고 잘못 표기하여 ‘윤하’가 ‘선호’의 말을 잘못 이해하게 된 것이다.

13 ③은 향초에 불을 켜는 상황이므로, ‘불을 일으켜 타게 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붙이다’를 활용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② ‘부치다’는 ‘철이나 프라이팬 따위에 기름을 바르고 빈대떡, 저나, 전병(煎餅) 따위의 음식을 익혀서 만들다.’라는 뜻이므로, ‘부치다’

가 사용된 예로 적절하다.

④, ⑤ ‘부치다’는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에게로 보내다.’라는 뜻이므로, ‘부치다’가 사용된 예로 적절하다.

14 ‘되’와 ‘돼’를 표기할 때에는, ‘되’로 풀 수 있는 말은 ‘돼’로 적고(㉠), ‘되’로 풀 수 없는 말은 ‘되’로 적는다(㉡). 또한 ‘안’은 ‘아니’의 준말이고, ‘않’은 ‘아니하-’의 준말이므로 ㉠은 ‘안’으로 ㉡은 ‘않았다’로 고쳐 써야 한다.

내공 기르기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단다. 따라서 이 원칙을 이해하고, 원칙에 맞게 표기하도록 노력해야 해. 특히 발음이 같은 단어들이나 ‘안/않’, ‘되/돼’와 같은 표기는 잘못 표기하기 쉬우니까 그 뜻과 쓰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상황에 알맞게 표기해야 해. ‘되’와 ‘돼’의 표기는, 그 자리에 ‘되’를 쓸 수 있으면 ‘돼’로 적고, 그렇지 않으면 ‘되’로 적으면 돼. ‘안’과 ‘않’의 표기는, ‘안’ 자리에 ‘아니’를, ‘않’ 자리에 ‘아니하-’를 넣어 보면 어떤 표기가 옳은지 알 수 있어.

15 ①에서 ‘다리다’는 ‘옷이나 천 따위의 주름이나 구김을 펴고 줄을 세우기 위하여 다리미나 인두로 문지르다.’라는 뜻이므로, 맥락에 알맞게 사용하였다. ②는 ‘거쳐서’로, ③은 ‘걸잡아’, ④는 ‘맞혔다’로, ⑤는 ‘반드시’로 고쳐 써야 한다.

내공 심화 문제

01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때 뒤엣것은 그 받침의 대표음이 아닌 본음 그대로 발음한다.

02 ‘맑아서’는 겹받침 ‘ㄹ’의 뒤엣것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말가서]로 발음해야 한다(ㄱ). ‘낭아서’는 받침 ‘ㅎ’이 탈락하여 [나아서]로 발음해야 한다(ㄷ).

오답 풀이 나. 겹받침 ‘ㄱ’, ‘ㄷ’, ‘ㅈ, ㄷ, ㅈ’, ‘ㅃ’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ㅂ]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발지’는 [밥:찌]로 발음해야 한다. 르. ‘넙-’은 ‘넙죽하다’, ‘넙둥글다’와 같은 경우에는 [넙]으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넙죽한’은 [넙쭈칸]으로 발음해야 한다.

03 ‘술[술]’, ‘빚다[빚파]’, ‘있다[읷파]’, ‘쫓다[쫓파]’는 모두 받침소리가 [ㄷ]으로 발음되는 반면에, ‘뒸다[뒸파]’는 받침소리가 [ㅂ]으로 발음된다.

04 ‘앉다[안파]’, ‘핥다[할파]’, ‘쫄다[쫄파]’, ‘없다[업:파]’의 겹받침은 모두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첫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발음되는 반면에, ‘옴다[옴파]’는 두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발음되고 있다.

05 겹받침 ‘ㄹ, ㅈ, ㅈ’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ㅂ]으로 발음하며,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ㄷ, ㅌ, ㅍ, ㅈ, ㅊ, ㅅ, ㅆ)’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따라서 ‘뵤다’는 [박파]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겹받침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하며, 받침 ‘ㄱ’ 뒤에 연결되는 ‘ㅈ’은 된소리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뵤지’는 [목찌]로 발음한다.

② 받침이 있는 단어의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이어지면 앞의 받침은 뒤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뵤술에서는’ [뵤쑈테서]로 발음한다.

③, ⑤ 겹받침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와 결합할 경우, 뒤엣것만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한다. 이때 뒤엣것은 그 받침의 본음 그대로 발음한다. 따라서 ‘뵤아서’는 [할타서]로, ‘뵤에서는’ [홀게서]로 발음한다.

06 **서술형** ‘희망’의 ‘희’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이므로 [히]로 발음해야 한다. ‘토의’의 ‘의’는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에 해당하므로 [의]나 [이]로 발음해야 한다.

07 ㉠은 표기와 소리가 일치하는 것, ㉡은 표기와 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표기와 소리가 일치하는 것은 ‘쓰러지다, 사라지다, 드러나다’가 해당하며, 표기와 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넘어지다[너머지다], 돌아가다[도라가다], 엎어지다[어퍼지다], 벌어지다[버러지다]’ 등이 해당한다.

08 ‘맞히다’는 ‘맞다’의 사동사로, ‘문제에 대한 답을 틀리지 않게 하다.’라는 뜻이다. ‘붙이다’는 ‘붙다’의 사동사로, ‘맞닿아 떨어지지 않게 하다.’라는 뜻이다.

09 ‘되-’와 ‘-어’가 결합하여 줄면 ‘돼-’가 되어 각각 ‘돼’, ‘돼라’, ‘뵤다’가 된다. ‘되-’가 ‘-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돼-’로 줄지 않는다. 이때 ‘-어’는 어떤 사실을 서술하거나 물음·명령·청유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따라서 ②는 ‘되어요?’로 표기해야 한다.

10 ‘넙다’는 ‘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져 본래대로 되다.’라는 뜻으로 맥락상 적합하게 사용되었다. ‘넙다’는 ‘넙고, 나오니, 나아서’ 등으로 활용된다. ①은 ‘뵤요 → 뵤요(또는 뵤어요.)’로, ②는 ‘갓이고 → 갓고’로, ③은 ‘일어날게 → 일어날게’로, ④는 ‘넙고서 → 넙고서’로 고쳐 써야 한다.

11 ‘굶고[굶:꼬]’, ‘옴다[옴파]’, ‘뵤다[뵤파]’, ‘싫다[삼:파]’의 겹받침은 모두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두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발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반면에, ‘맑게[말게]’는 겹받침의 첫 번째 받침으로 발음해야 한다.

12 **서술형** 첫 번째 문장은 거센 바람에 창문이 어떤 작용을 하게 되었다는 뜻이므로, ‘닫히다’가 들어가야 하며 이를 문맥에 맞게 활용하면 ‘닫히고’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 문장은 오늘 이 기렸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반드시’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세 번째 문장은 부상을 당했다는 뜻이므로 ‘다치다’가 들어가야 하는데 과거형이므로 ‘다쳤다’가 되어야 한다. 네 번째 문장은 자세를 바로 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반듯이’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3 ‘ㄱ’, ‘ㄷ’, ‘ㅈ, ㄷ, ㅈ’, ‘ㅃ’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ㅂ]으로 발음하지만, ‘넙’은 ‘넙죽하다, 넙둥글다’와

같이 쓰일 경우에는 받침 ‘ㅃ’을 [ㅂ]으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넙둥글다’는 [넙똥글다]로 발음해야 한다.

[참고 자료] 받침 ‘ㅃ’의 발음

받침 ‘ㅃ’은 첫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발음하여 일반적으로 ‘ㄹ’로 발음하지만, 예외가 존재한다. ‘뵤-’은 자음 앞에서 [뵤]으로 발음하고, ‘넙-’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넙]으로 발음한다.

- 뵤대[뵤:따], 뵤식[뵤:쓰], 뵤지[뵤:찌], 뵤는[뵤:는 → 뵤:는], 뵤게[뵤:게], 뵤고[뵤:꼬]
- 넙 - 죽하다[넙쭈카다], 넙 - 둥글다[넙똥글다]

어휘 문제

01 ‘미쁘다’는 ‘믿음성이 있다.’라는 뜻으로, ‘여기저기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도무지 미쁘게 보이지 않는다.’와 같이 쓰인다.

02 ‘곰살맞다’는 ‘몹시 부드럽고 친절하다.’라는 뜻으로, ‘도윤이는 민정에게 곰살맞게 굴었다.’와 같이 쓰인다.

03 ‘소보록하다’는 ‘물건이 많이 담기거나 쌓여 좀 볼록하게 도드라져 있다.’라는 뜻으로, ‘그릇에 밥을 소보록하게 푸다.’와 같이 쓰인다.

04 ‘틀림없이 꼭.’을 뜻하는 말은 ‘반드시’이다. ‘반듯이’는 ‘작은 물체, 또는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아니하고 바르게.’를 뜻한다.

05 ‘맞닿아 떨어지지 않게 하다.’를 뜻하는 말은 ‘붙이다’이다. ‘부치다’는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방에게로 보내다.’라는 뜻이다.

06 ‘문제에 대한 답을 틀리지 않게 하다.’를 뜻하는 말은 ‘맞히다’이다. ‘마치다’는 ‘어떤 일이나 과정, 절차 따위가 끝나다. 또는 그렇게 하다.’라는 뜻이다.

07 ‘부딪치거나 맞거나 하여 신체에 상처가 생기다.’를 뜻하는 말은 ‘다치다’이다. ‘달히다’는 ‘열린 문짝, 뚜껑, 서랍 따위가 도로 제자리로 가 막히다.’라는 뜻이다.

08 제시된 문장은 엄마가 그릇에 밥을 어떻게 담았다는 뜻이므로, ‘물건이 많이 담기거나 쌓여 좀 볼록하게 도드라져 있다.’라는 뜻의 ‘소보록하다’를 부사형으로 활용한 ‘소보록하게’가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9 제시된 문장은 우리 집과 이웃집의 사이가 어떻다는 뜻이므로, ‘서로 너니 나니 하고 부르며 허물없이 말을 건넨. 또는 그런 사이.’을 뜻하는 ‘너나들이’가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0 ‘모르쇠’는 ‘아는 것이나 모르는 것이나 다 모른다고 잡아떼는 것.’을 뜻한다.

3. 매체로 보는 세상

(1) 매체의 표현과 그 의도

본문 34~41쪽



핵심 체크

01 (1) ○ (2) ○

02 사진, 대구

03 (1) 그래프 (2) 그림

04 (1) 블로그 (2) 청소년
(또는 젊은 세대)



문제 맞보기

01 ③

02 ③

03 ④



내공 확인 문제

01 ③

02 ④

03 ④

04 ⑤

05 ⑤

06 ⑤

07 ⑤



내공 심화 문제

01 ⑤

02 ③

03 ④

04 ①

05 이 카드 뉴스의 예상 독자는 젊은 층으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젊은 층이 뉴스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카드 뉴스 형태로 제작한 것이다.



어휘 문제

01 ㉠

02 ㉡

03 ㉢

04 자각

05 한창

06 노화

07 일격

08 유포하여

09 ②

10 ③

핵심 체크

01 (1) 매체란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물체, 또는 그런 수단을 가리키는 말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가리킨다. 매체에는 인쇄 매체, 라디오·텔레비전 매체(방송 매체), 인터넷 매체 등이 있다. (2) 매체에서 전달하는 정보를 수용할 때에는 매체에 사용된 표현 방법과 그 의도를 파악하면서 매체에서 전달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02 제시된 광고문은 스마트폰과 사람이 서로를 잡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잡고 있습니까? 잡혀 있습니까?’와 같이 대구 형식으로 된 비슷한 형태의 두 의문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광고문을 보는 이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줌으로써, 스마트폰을 과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03 (1) 블로그 글의 글쓴이는 세대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대한 통계 자료를 그래프로 제시하여, 청소년이 스마트폰 노안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2) 블로그 글의 글쓴이는 처음 부분에 스마트폰을 과하게 사용하여 눈이 나빠진 사람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이 글을 읽는 이가 글의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04 (1) 블로그는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칼럼, 일기, 취재 기사 따위를 올리는 웹 사이트를 가리킨다.

(2) 「스마트폰 노안이란 무엇인가」의 글쓴이가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블로그에 글을 쓴 점, 청소년이 스마트폰 노안에 취약할 수 있음을 강조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소년을 예상 독자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 맞보기

01 인터넷 매체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과 주고받을 수 있지만,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와 같은 매체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만 할 뿐 수신자와 정보를 주고받기 어렵다.

02 제시된 광고문은 강한 인상을 주는 사진과 광고 문구를 활용하여 스마트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태도를 경고하고 있다.

03 「스마트폰 노안이란 무엇인가」의 글쓴이는 ‘노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그림, 그래프, 동영상 등을 활용하고 있을 뿐, 효과음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

내공 확인 문제

01 이 광고문은 구조가 비슷한 두 의문문을 대구 형식으로 제시하여 보는 이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한편, 의문문 아래 줄글로 자세하게 설명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유명한 사람의 말을 인용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잡고 있습니까?’, ‘잡혀 있습니까?’와 같이 구조가 비슷한 두 의문문을 대구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잡고, 잡혀’의 굵기를 강조하여 핵심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④ ‘혹시 당신도 하루 종일 …… 가족의 손을 잡아 보세요.’와 같이 줄글을 제시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다.

⑤ 사람과 스마트폰이 서로 잡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02 (가)에서 ‘스마트폰 노안’이 청소년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스마트폰 노안’으로부터 중학생이 안전한 편이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중학생의 말을 인용한 부분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노안’은 노화 현상의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

② (가)에서 글쓴이는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스마트폰을 자주, 오래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세대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을 나타낸 그래프를 통해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③ (가)에서 글쓴이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신종 노안’을 겪는 사람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 (나)의 점검표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글쓴이는 스마트폰 노안을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03 그래프에서 여러 세대의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을 함께 드러낸 것은, 청소년층이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이 글에서는 독자 스스로 스마트폰 노안을 점검해 보도록 점검표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스마트폰 노안에 걸린 사람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을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② (가)의 두 번째 문단에서 ‘노안’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③ (가)에서 중학생의 말을 인용하여 ‘노안’이 나이 들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에서 대상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대한 통계 그래프를 제시하여, 청소년이 ‘스마트폰 노안’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04 이 글의 글쓴이는 스마트폰 노안은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A]의 점검표를 제시하여 스스로 점검해 보도록 권유하고 있다.

05 이 글에서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스마트폰 노안에 걸릴 수 있음을 경고하였지만, 스마트폰 노안을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언급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건강에 해롭다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아야겠다고 한 ‘효주’의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06 이 글의 글쓴이는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를 제시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사이버 불링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는 있지만, 이 통계 자료를 통해 사이버 불링의 변화 양상을 보여 준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4번 카드’에서 ‘사이버 불링’이 ‘가상 공간에서 특정인을 괴롭히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② 카드 뉴스 전체에서 사진과 그림을 제시하여 문제 상황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③ ‘1, 2번 카드’에서 이탈리아의 십 대 모델인 ‘키아라 나스티’의 사례를 제시하여 독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④ ‘10번 카드’에서 “예의를 지키며 스스로를 닦으세요.”라는 문구의 글자 모양과 굵기에 변화를 주어 핵심 문장을 강조하고 있다.

07 이 글의 글쓴이는 사이버 불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인터넷 공간에서도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내공 심화 문제

01 이 광고문은 스마트폰과 사람이 서로를 잡고 있는 듯한 모습의 사진과, 비슷한 형태의 두 의문문을 대구 형식으로 제시하여, 스마트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태도를 경고하고 있다.

02 이 글의 글쓴이는 젊은 세대가 눈 건강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 노안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여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 노안 증세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 그 증세를 치료하기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최근에는 노안 증상을 겪는 젊은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② (가)에 제시된 대상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그래프를 통해 청소년의 스마트폰 노안 증세를 겪을 가능성이 성인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 ④ (가)에서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스마트폰을 자주, 오래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⑤ (나)에서 스마트폰 노안의 합병증으로 거북목 증후군에 걸릴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03 ㉠은 전문 기관에서 발표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대한 통계 자료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노안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뒷받침해 준다. ㉡은 전문가와의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을 과하게 사용할 때 발생하는 여러 증상과 그 원인을 보여 주는 동영상 자료로, '스마트폰 노안의 위험성'을 뒷받침해 준다.

04 '10번 카드'에서 "예의를 지키며 스스로를 닦으세요."라는 문구의 글자 모양과 굵기 등에 변화를 주어 이 카드 뉴스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ㄱ). 또한 '8번 카드'에서 사진과 그림(사람들의 얼굴을 상자로 가리고 있는 모습)을 사용하여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 공간의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ㄴ).

오답 풀이 ㄷ. 이 카드 뉴스에서는 경찰청의 통계를 인용하고는 있지만, 해당 분야에서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

ㄹ. 또한 경찰청의 통계 수치만을 인용하고 있을 뿐 관련 그래프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05 서술형 최근 젊은 세대는 신문이나 텔레비전과 같은 매체를 이용하기보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 글은 이러한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쉽고 편리하게 뉴스를 볼 수 있도록 이동 통신 맞춤형 뉴스인 카드 뉴스 형태로 뉴스를 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카드 스택(Card Stack)

국내의 카드 뉴스는 미국의 언론사 '복스(Vox)'가 처음 시도한 '카드 스택(Card Stack)'에서 유래한 것이다. '카드 스택'은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된 카드 형태로 '해설형 저널리즘'을 구현한다. 복잡한 내용을 정리하고 설명해 주는 '카드 스택'은 꾸준히 최신 정보로 바꿀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기사는 일회성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카드 뉴스를 계속 추가·수정하면서 끊임없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어휘 문제

- 01** '매체'는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물체, 또는 그런 수단.'을 뜻하는 말로, '인쇄 매체', '방송 매체'와 같이 쓰인다.
- 02** '악화'는 '일의 형세가 나쁜 쪽으로 바뀐다.'를 뜻하는 말로, '두 나라의 관계가 악화 일로에 있다.'와 같이 쓰인다.
- 03** '신상'은 '한 사람의 몸이나 처신, 또는 그의 주변에 관한 일이나 형편.'을 뜻하는 말로, '신상 기록 카드', '신상에 위협을 느끼다.'와 같이 쓰인다.

04 '현실을 판단하여 자기의 입장이나 능력 따위를 스스로 깨달음.'을 뜻하는 말은 '자각'이다. '자각'은 '알아서 깨달음, 또는 그런 능력.'을 뜻하는 말이다.

05 '어떤 일이 가장 활기 있고 왕성하게 일어나는 때, 또는 어떤 상태가 가장 무르익은 때.'를 뜻하는 말은 '한창'이다. '한참'은 '시간이 상당히 지나는 동안.'을 뜻하는 말이다.

06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체 구조와 기능이 쇠퇴하는 현상.'을 뜻하는 말은 '노화'이다. '노안'은 '늙어 시력이 나빠짐, 또는 그런 눈.'을 뜻하는 말이다.

07 제시된 문장은 그가 상대에게 온 힘을 다하여 무언가를 가하였다는 뜻이므로, '한 번 침, 또는 그런 공격.'을 뜻하는 '일격'이 적절하다. '충격'은 '슬픈 일이나 뜻밖의 사건 따위로 마음에 받은 심한 자극이나 영향.'을 뜻하는 말이다.

08 제시된 문장은 그 사람이 어떤 연예인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다는 뜻이므로, '세상에 널리 퍼뜨리다.'라는 뜻의 '유포하다'가 적절하다. '배급하다'는 '나누어 주다.'라는 뜻이다.

09 빈칸에는 '어떤 사항을 논제로 삼아 제기하거나 논의함.'을 뜻하는 '거론'이 들어가야 한다. '반론'은 '남의 논설이나 비난, 논평 따위에 대하여 반박함, 또는 그런 논설.'을, '추론'은 '미루어 생각하여 논함.'을, '개론'은 '내용을 대강 추려서 서술함, 또는 그런 것.'을 뜻한다.

10 문맥을 고려할 때, '노안(老眼)'은 '늙어 시력이 나빠짐, 또는 그런 눈.'을 뜻한다. '노쇠한 얼굴, 혹은 노인의 얼굴.'을 뜻하는 말은 '노안(老顏)'이다.

(2) 매체 자료의 효과

본문 42~49쪽

 핵심 체크	01 (1) 동영상 (2) 그림 (3) 그래프		02 (1) ×	
	(2) ○ (3) ○		03 지진, 해일, 피해	
 문제 맞보기	01 ③		02 ⑤	
	03 ④			
 내공 쌓기	01 ③		02 ⑤	
	05 ⑤		06 ⑤	
03 지진, 해일, 피해		03 ③		04 ③

내공 심화 문제

- 01 ⑤ 02 ④ 03 말이나 글로 설명하면
지진 피해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지만,
사진으로 보면 그 심각성을 실감 나게 느낄 수 있다.
04 ③ 05 ④ 06 ⑤

어휘 문제

- 01 ㉠ 02 ㉡ 03 ㉢ 04 양상
05 대처 06 여파 07 규제 08 사회 기
반 시설 09 ㉣

핵심 체크

01 (1)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황이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생생한 장면, 대상이 움직이는 모습 등을 담아낼 수 있는 매체 자료는 동영상이다.

(2) 대상의 모양이나 위치 등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매체 자료는 그림이다.

(3) 대상의 양상 및 변화 과정을 시각적으로 나타내어 전체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매체 자료는 그래프이다.

02 (1) 강연 '만약 지진이 일어난다면?'의 강연자는 청중에게 지진과 관련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 듣는 이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있지는 않다. 강연자가 청중에게 "여러분은 어떤가요?"라고 질문한 것은 청중이 강연에 집중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 청중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한 것은 아니다.

(2) 이 강연의 강연자는 '처음' 부분에서 자신이 딸과 함께 보았던 영화의 포스터를 제시함으로써, 듣는 이가 강연 주제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3) 이 강연의 강연자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세계의 지진대'가 표시된 지도를 제시하고 있다.

03 이 강연의 강연자는 지진으로 삶의 터전이 무너진 네팔의 어느 마을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거대한 해일이 마을을 덮치고 있는 일본 해안 마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제시하여, 듣는 이가 지진 피해의 심각성을 실감 나게 느끼도록 하였다.

문제 맛보기

01 그래프는 대상의 양상 및 변화 과정을 나타내어 전체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하는 데에 유용하다. 그래프를 제시한다고 하여 대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02 이 강연의 강연자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세계 지진대가 그려진 지도를 제시하고 있을 뿐, 지진 발생 횟수를 알 수 있는 그래프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03 매체 자료의 효과를 판단할 때에는, 매체 자료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뒷받침하는지, 적절한 부분에서 활용되었는지, 매체 자료를 맥락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내공 확인 문제

01 강연을 듣다가 궁금한 내용을 바로 물어보게 되면, 강연의 흐름이 끊기거나 다른 사람이 강연을 듣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강연자가 따로 질문할 시간을 마련해 주거나 강연이 끝났을 때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는 것이 적절하다.

02 이 강연자는 지진을 다른 영화 내용과 이를 본 강연자의 경험을 소개함으로써, 청중이 강연 주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짐작하게 하였다.

03 이 강연자는 동영상 자료를 강연 중에 제시하여 강연 분위기를 환기함으로써, 청중이 강연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ㄴ). 또한 설명한 내용을 동영상 자료로 보여 줌으로써, 청중이 강연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ㄷ).

【참고 자료】 발표 시 매체 자료 활용의 효과

- 청중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관심을 끌 수 있다.
- 발표 내용이 다양하고 풍부해진다.
-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청중이 발표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다.

04 이 강연자는 지진이 어느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을 뿐 지진 강도에 따라 피해 규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불의 고리'가 '한태평양 조산대'를 가리키며, 태평양을 중심으로 고리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여 그러한 이름이 붙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② (가)에 제시된 '세계의 지진대' 지도를 통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나)를 통해 건물 안에 있을 경우와 건물 밖에 있을 경우의 지진 대처법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의 두 번째 문단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지진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05 이 강연자가 제시한 지도에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표시되어 있다. 즉,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말로 설명하기보다 지도에 표시하여 보여 줌으로써 청중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시각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06 표는 대상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매체 자료이다. 이와 같은 표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고전 소설과 현대 소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다.

오답 풀이 ① 컴퓨터를 조립하는 방법은, 그림이나 사진,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② 학교를 찾아가는 길은, 약도와 같은 그림으로 보여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③ 세계의 기아 인구 분포 현황은 지도로 보여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④ 음악을 듣는 사람들의 다양한 표정은 사진이나 그림으로 보여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01 강의 주제와 관련된 흥미로운 자료는 청중의 관심을 끌어 청중이 강연에 집중하게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흥미를 끌 수 있는 자료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아무리 흥미롭다고 하더라도 자료가 너무 많이 제시되면 청중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02 ㉠은 동영상이므로 <보기>에서 동영상을 활용하여 설명하기에 적합한 내용을 골라야 한다. 요리하는 과정을 보여 주거나 순서에 따라 허리를 운동하는 모습을 동영상 자료로 보여 주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ㄱ. 과목별 시험 점수 분포는 그래프나 표로 보여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ㄴ. 제주도 등산 경로는 그림으로 보여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ㄹ. 연도별 국내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그래프나 표로 보여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내공 기르기

매체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매체 자료의 종류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나 그래프의 경우 대상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거나 대상의 양상 및 변화 과정을 나타내어 전체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해 준다. 그림이나 사진은 대상의 모양이나 위치 등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지. 동영상은 상황이나 사건, 대상의 움직임을 실감 나게 보여 줌. 따라서 어떤 내용을 설명하느냐에 따라 그에 적합한 매체 자료가 달라진다.

03 사진이나 그림은 대상의 모양이나 위치 등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기 때문에, 말이나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구체적이고 실감 나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할 수 있다.

04 지진 발생 시 승강기로 이동할 경우, 승강기 안에 갇히거나 승강기가 추락하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진이 발생하면 승강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여 밖으로 빠르게 대피하는 것이 적절하다.

05 ㉠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장소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정리한 표로, 장소별 행동 요령을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달리 <보기>는 장소별 대처 방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지진 발생 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06 발표에서 ‘끝’ 부분은 발표 내용을 요약정리하거나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표를 마무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진을 제시하여 청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계획은 적절하지 않다.

어휘 문제

01 ‘환기’는 ‘주의나 여론, 생각 따위를 불러일으킴.’을 뜻하는

말로, ‘당국은 새 정책에 대한 여론의 환기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 행사를 마련했다.’와 같이 쓰인다.

02 ‘해일’은 ‘해저의 지각 변동이나 기상 변화에 의하여 갑자기 바닷물이 크게 일어서 넘쳐 들어오는 것. 또는 그런 현상.’을 뜻하는 말로, ‘바닷가에 있던 작은 오두막집은 해일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와 같이 쓰인다.

03 ‘단층’은 ‘지각 변동으로 지층이 갈라져 어긋나는 현상. 또는 그런 지형.’을 뜻하는 말로, ‘과학 수업 시간에 우리는 고무찰흙을 사용하여 지각에 나타나는 단층을 모형으로 만들었다.’와 같이 쓰인다.

04 ‘사물이나 현상의 모양이나 상태.’를 뜻하는 말은 ‘양상’이다. ‘형편’은 ‘일이 되어 가는 상태나 경로 또는 결과.’를 뜻하는 말이다.

05 ‘어떤 정세나 사건에 대하여 알맞은 조치를 취함.’을 뜻하는 말은 ‘대처’이다. ‘대응’은 ‘어떤 일이나 사태에 맞추어 태도나 행동을 취함.’을 뜻하는 말이다.

06 제시된 문장은 여름철 폭염의 영향으로 채솟값이 폭등하였다는 뜻이므로, ‘어떤 일이 끝난 뒤에 남아 미치는 영향.’을 뜻하는 말인 ‘여파’가 빈칸에 들어가야 한다.

07 제시된 문장은 학자들이 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뜻이므로,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을 뜻하는 말인 ‘규제’가 빈칸에 들어가야 한다.

08 ‘터널, 중학교, 발전소, 하수도, 고속도로’ 등은 모두 공공 시설이므로, ‘사회 유지와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는 도로, 교량, 설비, 조정, 통신, 전력, 수도 따위의 공공시설.’을 뜻하는 ‘사회 기반 시설’이 제시된 단어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다.

09 제시된 글은 지호가 혼자서 발표 준비를 하느라 애썼다는 내용이므로, ‘남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힘에 벅찬 일을 잘해 나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고군분투’가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고진감래’는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② ‘일거양득’은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음을 뜻하는 말이다.

④ ‘타산지식’은 다른 산의 나쁜 돌이라도 자신의 산의 옥돌을 가는 데에 쓸 수 있다는 뜻으로, 본이 되지 않은 남의 말이나 행동도 자신의 지식과 인격을 수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4. 새롭게 보고, 다양하게 표현하고

(1) 문학 작품의 재구성

본문 50~57쪽

핵심 체크

- 01 ㉠ → ㉡ → ㉢ → ㉣ 02 변학도
(변 사또), 사랑 03 (1) × (2) ○ (3) ○
04 (1) 공감 (2) 재해석

문제 맞보기

- 01 ① 02 ①

내공 확인 문제

- 01 ⑤ 02 ③ 03 ④ 04 ⑤
05 ② 06 ③

내공 심화 문제

- 01 ② 02 내려오는 사또마다 빠짐없이 명관
이로구나! 03 ⑤ 04 ⑤ 05 ⑤

어휘 문제

- 01 ㉡ 02 ㉠ 03 ㉢
04 포악 05 통분하다 06 계계승승
07 백년해로 08 심산 09 ②
10 ③

핵심 체크

01 교과서에 수록된 「춘향전」의 내용은 크게 '생일잔치 장면' → '어사출두 장면' → '어사출두 이후 장면'으로 나눌 수 있다. ㉠, ㉡은 어사출두 이후 장면으로 ㉡은 결말에 해당한다. ㉢은 어사출두 장면, ㉣은 생일잔치 장면에 각각 해당한다. 따라서 사건의 전개 과정에 따라 나열하면 '㉣ → ㉡ → ㉠ → ㉢'이다.

02 「춘향전」은 등장인물 간의 외적 갈등 양상에 따라 여러 가지 주제가 드러난다. 그중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하는 '변학도'와 '몽룡'을 향한 절개를 지키려는 '춘향' 간의 외적 갈등을 통해 '몽룡을 향한 춘향의 지고지순한 사랑'이라는 주제가 형상화된 다.

03 (1) 암행어사가 출두할 것임을 예감한 '운봉'이 수하를 단속하는 장면을 자세히 서술한 원작과 달리 만화에서는 '운봉'이라는 특정 인물을 내세우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잔치 자리를 뜨는 장면으로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다.

(2) '춘향'과 '몽룡'의 재회 장면을 원작에서는 서술자의 말과 '춘향'의 대화를 통해 자세히 묘사한 반면, 만화에서는 대사보다는 그림에 중점을 두어 작품 속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3) 소설을 만화로 재구성하면 칸과 칸 사이에 생략된 내용을 유추해 보는 재미를 줄 수 있고, 생동감 있는 표현으로 읽는 이의 흥미를 끌 수 있다.

04 (1) 「춘향전」은 인간의 보편적 정서인 사랑을 소재로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한 공감을 불러일으켜 지금까지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2) 「춘향전」의 '춘향'은 관점에 따라 자신의 사랑을 지키고자 하는 지고지순한 여인, 자신의 신분을 뛰어넘기 위해 노력하는 욕망의 화신 등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렇기에 오늘날의 관점에서 '춘향'을 비롯한 여러 등장인물을 재해석하면서 만화나 드라마, 연극이나 영화 등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 맞보기

01 「춘향전」은 갈등 양상에 따라 작품의 주제 의식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중 암행어사인 '몽룡'이 탐관오리인 '변학도'를 벌하는 모습에서 '탐관오리에 대한 응징'이라는 작품의 주제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③ 신분제 사회에서 기생의 딸인 '춘향'과 지체 높은 양반의 아들인 '몽룡'이 부부의 연을 맺게 된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과, 평등한 사회에 대한 민중의 갈망을 엿볼 수 있지만, 제시된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④ '몽룡'이 과거 급제를 하여 어사또가 된 것이나, 훗날 탐관오리를 벌한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하게 된 것에서 유교에서 중요시하는 입신양명이라는 가치관을 엿볼 수 있지만, 제시된 내용과는 관계없다.

⑤ '변학도'가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하고, '춘향'은 절개를 지키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두 인물의 갈등을 통해 '몽룡'을 향한 '춘향'의 지고지순한 사랑과, 불의한 지배 계층에 대한 민중의 저항 의식을 엿볼 수 있지만, 제시된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02 만화에서 칸은 장면과 장면을 구분하거나, 시간과 공간을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칸을 이용하여 다양한 장면을 나타내기도 하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한다는 점에서 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말풍선은 등장인물의 대사를 표현하고, 그림만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등장인물의 생각이나 대화 내용을 보여 준다.

③ 그림은 등장인물의 표정과 행동, 이야기가 전개되는 시공간 등을 표현한다.

④ 만화에서는 말풍선의 모양을 달리하여 말의 느낌이나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기도 한다.

⑤ '어사또'의 말만 글씨체가 다른 이유는 '춘향'의 마음을 떠보려는 '어사또'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 자료】 만화에서 '칸'과 '말풍선'의 개념과 특징

칸	- 개념: 만화는 이야기가 있고, 의도된 순서로 나란히 놓은 그림과 글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형성하는 기본 단위임. - 특징: 시간과 공간을 자유자재로 구성할 수 있으며, '칸'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 여러 장면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말풍선	- 개념: 만화에서, 인물들이 주고받는 대사를 써넣은 풍선 모양의 그림을 가리킴. - 특징: 만화 속 인물의 행동이나 배경, 장소, 시간과 공간 등이 표현되는 '그림'과 함께 만화의 내용을 전개하는 기본 요소가 됨.

01 「춘향전」에는 고전 소설의 특징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지만, 현실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현실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을 뿐 전기적이면서 환상적인 요소는 나타나 있지 않다.

【참고 자료】 고전 소설의 특징

- **주제:** 대체로 유교적 질서를 추구하고, 권선징악을 강조한다.
- **구성:** 대체로 일대기적 구성 방식으로 주인공의 일생을 다룬다.
- **문체:** 관용구를 활용한 표현, 상투적 비유 표현이 많이 나타난다.
- **사건:** 인과 관계에 의존하지 않는 우연적 사건이 내용 전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 **인물:** 평면적이고 전형적인 인물이 등장한다.
- **배경:** 막연하고 비현실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달리 「춘향전」은 현실적이고 구체화된 공간을 배경으로 한다.)
- **결말:** 대체로 주인공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결말 구조를 따른다.

02 갑작스러운 암행어사 출두로 인해 ‘변학도’의 생일잔치 자리는 일순간에 탐관오리를 징계하는 장소로 변화된다. 즉 암행어사 출두는 사건의 극적인 반전을 일으키고 긴장감을 형성하며, 이완된 분위기를 긴박한 분위기로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오답 풀이 ㄴ. 「춘향전」은 현실적인 배경과 소재, 사건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작품이다. 따라서 암행어사 출두가 작품에 현실성을 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ㄷ. 암행어사 출두로 인해 탐관오리인 ‘변학도’가 벌을 받고 ‘춘향’이 옥중에서 풀려나 ‘몽룡’과 극적으로 재회하게 된다. 따라서 암행어사 출두는 등장인물이 화해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갈등(‘변학도’와 ‘몽룡’, ‘변학도’와 ‘춘향’의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볼 수 있다.

03 ‘몽룡’이 지은 한시는 본관 사포의 사치스러운 생일잔치와 백성들의 고통을 대비하여 탐관오리의 횡포와 가렴주구(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이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음.)를 질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허장성세(虛張聲勢)’는 ‘실속은 없으면서 큰 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림.’이라는 뜻의 한자 성어이다. ‘몽룡’이 지은 한시는 현실 상황에 대한 비판 의식을 형상화하고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을 예고하며 긴장감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04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어라.”라고 하는 ‘변 사포’의 말은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라. 목 마르다 물 들어라.’라는 문장에서 각 낱말의 위치를 바꾸어 표현한 언어유희에 해당한다.

내공 기르기

언어유희란 말이나 글자를 소재로 하는 놀이로 문학 작품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에 해당해. 언어유희에는 “개잘량이라는 ‘양’ 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 자를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와 같이 동음이의어를 활용하는 방법, “아, 이 양반이 허리 꺾어 절반인지, 개다리소반인지, 꾸레미전에 백반인지,”와 같이 비슷한 음운을 활용하는 방법, “아침, 말이 빠져서 이가 헛나갔군.”과 같이 말의 순서를 바꾸어 표현하는 방법, “네 서방인지 남방(南方)인지 걸인 하나 내려왔다.”와 같이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방법 등이 있어.

05 원작 소설과 달리 만화 「춘향전」에서는 ‘운봉’이라는 특정 인물을 내세우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잔치 자리를 뜨는 장면으로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어사또’의 정체를 눈치챈 ‘운봉’이 공형을 불러 단속하였다고 정리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6 (다)는 날카롭고 비죽비죽 튀어나온 형태의 말풍선을 활용하고 “암행어사 출두야!”라는 글씨의 크기를 키워 암행어사가 출두하는 장면에 긴박감을 더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말풍선 안의 느낌표를 사용해 ‘몽룡’의 시를 들은 사람들이 그가 심상치 않은 인물임을 짐작하고 놀란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② (나)에서는 ‘살금살금’, ‘쑥’과 같은 의태어와 ‘수근수근’과 같은 의성어를 활용해 걸인의 정체가 ‘어사또’임을 눈치챈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④ (라)에서 하늘만 그려 놓은 칸은 시간의 경과와 사건이 일단락되었음을 나타낸다. 암행어사 출두로 시끌벅적했던 상황을 정리하여 다음 사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한다.

⑤ (리)는 그림을 통해 ‘암행어사’가 입을 굳게 다물고 매섭게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을 강조해 엄숙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내공 기르기

지금까지 만화는 인쇄 매체를 활용했기 때문에, 인물이나 동물 등의 움직임을 정지된 화면으로만 표현할 수밖에 없었고 소리를 직접적으로 들려 줄 수도 없었어. 이런 단점을 보완하려고 작가들은 동작선을 그려 넣거나, 의성어나 의태어와 같은 음성 상징어를 활용했던 거야. 동작선이나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면 대상이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인지, 제시된 장면이 어떤 상황을 나타낸 것인지 구체화하여 작품에 생동감을 더할 수 있기 때문이지.

01 ‘몽룡’은 ‘춘향’을 가리켜 “저 계집은 무엇인고?”라고 말하며 짐짓 모르는 체하고 있다. ‘몽룡’이 이와 같이 행동한 까닭은, 모진 고통과 시련을 겪은 ‘춘향’이 마음을 바꾸지는 않았는지 시험해 보려고 일부러 모르는 척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몽룡’이 ‘춘향’을 떠보기 위해 수청을 강요한 것에, ‘춘향’은 ‘몽룡’을 알아보지 못한 채 ‘어사또’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말하고 있다.

③ 잔치 자리에 모인 수령들이 혼비백산하여 허둥지둥 도망치는 것은, 암행어사가 출두하자 이에 놀라 도망친 것인지 ‘어사또’를 환영하려는 것이 아니다.

④ ‘춘향’은 ‘어사또’의 부당함을 비판하면서 ‘몽룡’을 향한 절개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을 뿐,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⑤ ‘변 사포’가 관직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어사또’에게서 벌을 받았기 때문이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난 것이 아니다.

02 서술형 ‘춘향’이 “내려오는 사포마다 빠짐없이 명관이로구나!”라고 한 것은, 자신에게 수청을 강요하는 ‘어사또’를 ‘명관’이라며 칭송한 것이 아니라 ‘변 사포’와 마찬가지로 부정한 관리임을 비꼬아 말한 것이다. 즉, 반어 표현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반어의 개념과 효과

개념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말하는 이나 글쓰기가 자신의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하는 것
효과	•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보다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음. • 반어 표현 안에 담긴 진심을 강조할 수 있음. • 사용하는 맥락에 따라 대상을 비꼬거나 비판하는 뜻을 담을 수 있음.

03 ㉠은 ‘변 사또’의 횡포로 죽을 위기에 처하였던 ‘춘향’의 상황을 의미한다. ‘몽룡(어사또)’가 ‘춘향’에게 수청을 요구한 것은 ‘춘향’의 마음을 떠보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어사또’로 인해 죽을 위기에 처하였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당시에 양반은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 체면을 중시하였다. 그런데 암행어사 출두에 놀라 도망치는 모습은 체면을 중시하는 양반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탐관오리의 허위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② ‘어사또’가 탐관오리의 죄를 묻고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린다는 점에서 ‘탐관오리에 대한 응징’이라는 이 소설의 주제 의식이 드러난다.
 ③ ‘어사또’가 ‘춘향’에게 자신의 수청을 들라고 요구한 것은, ‘춘향’이 모진 고초를 겪으면서 마음이 변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떠보기 위한 것이다. 이는 ‘춘향’이 단번에 ‘어사또’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내 자신의 정체를 밝힌 것에서 ‘어사또’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④ ‘어사또’의 부당한 요구에 ‘어사또’를 명관이라며 반어적으로 비꼬면서, 절개를 깨끗하게 지키겠다고 말하는 ‘춘향’의 모습에서, ‘춘향’이 당차고 의지가 강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04 ‘와장창, 덜덜’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작품의 생동감을 더하고 있으며(ㄱ), 날카로운 모양의 말풍선을 활용하여 역줄들이 ‘암행어사 출두’를 외치는 함성의 느낌을 나타내고 있다(ㄷ). 또한 상황이 정리되고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몽룡’의 모습을 한 칸에 나타내어 엄숙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ㄷ).

[참고 자료] 만화의 기본 요소

그림	등장인물의 표정과 행동, 사건이 전개되는 시간간 등을 표현함.
말풍선	• 등장인물의 대사를 표현하고, 그림만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등장인물의 생각이나 대화 내용을 보여 줌. • 자체가 하나의 시각적 이미지로 작용하여 말풍선의 모양에 따라 그 말의 인상이 달라지는 효과를 줌.
줄글	•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함. • 등장인물의 심리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함.

05 하늘만 그려 놓은 칸은 암행어사 출두로 시끌벅적했던 상황이 일단락되었음을 나타내어, 다음 사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한다.

어휘 문제

01 ‘남루하다’는 ‘옷 파우가 낡아 해지고 차림새가 너저분하다.’라는 뜻으로, ‘남루한 옷차림’과 같이 쓰인다.

02 ‘천만당부’는 ‘간곡한 당부.’라는 뜻으로, ‘어머니는 나에게 그곳에 가지 말라고 천만당부를 하였다.’와 같이 쓰인다.

03 ‘산천초목’은 ‘산과 내와 풀과 나무.’라는 뜻으로, ‘자연’을 이르는 말이다. ‘극심한 가뭄으로 산천초목이 모두 말라 버렸다.’와 같이 쓰인다.

04 ‘사납고 악함.’을 뜻하는 낱말은 ‘포악’이다. ‘발악’은 ‘온갖 짓을 다 하며 마구 악을 씀.’을 뜻하는 말이다.

05 ‘원통하고 분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낱말은 ‘통분하다’이다. ‘통탄하다’는 ‘몹시 탄식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06 ‘선대에서 하던 일을 후대 사람이 내리 이어받음.’을 뜻하는 한자 성어는 ‘계계승승’이다. ‘만수무강’은 ‘아무런 탈 없이 아주 오래 삶.’을 뜻하는 한자 성어이다.

07 빈칸에 ‘백년해로’가 들어가야 한다. ‘백년해로’는 ‘부부가 되어 한평생을 사이좋게 지내고 즐겁게 함께 늙음.’을 뜻하는 한자 성어이다.

08 빈칸에 ‘심산’이 들어가야 한다. ‘심산’은 ‘마음속으로 하는 궁리나 계획.’을 뜻하는 말이다.

09 ‘어사나 감사가 못된 짓을 많이 한 고을의 원을 파면하고 관가의 창고를 봉하여 잠금. 또는 그런 일.’을 뜻하는 낱말은 ‘봉고파직’이다. ‘골육상쟁’은 ‘가까운 혈족끼리 서로 싸움.’을 뜻하는 말이며, ‘원화소복’은 ‘화를 물리치고 복을 불러들임.’을 뜻하는 말이다. ‘일취월장’은 ‘나날이 다달이 자라거나 발전함.’을 뜻하는 말이다.

10 문맥을 고려할 때 ‘용수’는 새 술을 거르는 도구를 의미한다. 따라서 ‘용수’는 ‘짜리나 대로 만들어 술을 거를 때 쓰는 둥근 통처럼 생긴 기구.’를 의미한다. ‘임금이 있는 궁전.’은 ‘어진’이며, ‘물려받아 내려옴. 또는 그렇게 전해짐.’은 ‘유전’이고, ‘벼슬 아치가 공무로 지방에 나갈 때 역마를 징발하는 증표로 쓰던 둥근 구리 패.’는 ‘마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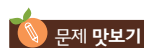
(2) 효과적인 표현을 담은 글

본문 58~65쪽



핵심 체크

- 01** (1) 지혜 (2) 간결 **02** (1) ㉠ (2) ㉡
03 (1) ○ (2) × (3) ○ **04** 속담



문제 맞보기

- 01** ② **02** ① **03** ③

내공 확인 문제

- 01 ③ 02 ⑤ 03 ② 04 ②
05 ③ 06 ④ 07 ② 08 ①
09 ③

내공 심화 문제

- 01 ④ 02 ④ 03 ③ 04 ③는 '가야 하는 길이 멀다.'라는 뜻이고, ⑥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뜻이다. ⑥와 같은 관용 표현은 둘 이상의 낱말이 한 덩어리처럼 굳어져 낱말의 원래 뜻과는 다른 특별한 뜻을 나타낸다.
05 ① 06 ① 07 속담 '아까다 똥 된다'를 활용해 속담의 원래 뜻과 상반되는 주제인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사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08 ④ 09 ③

어휘 문제

- 01 ㉠ 02 ㉡ 03 ㉢ 04 가랑비
05 지체하다 06 함축적 07 사리
08 인상적 09 ① 10 ④

핵심 체크

01 (1) 우리 생활에 널리 쓰이는 속담에는 까마득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터득해 온 삶의 지혜가 담겨 있고 우리말의 고유한 표현이 살아 있다.

(2) 상황에 맞게 속담을 활용하면 내용을 인상적으로 전할 수 있고 설명하기 복잡한 상황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재미를 더하여 상대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02 (1) '파김치가 되다'는 '몹시 지쳐서 기운이 아주 느슨하게 되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2) '머리를 굴리다'는 '머리를 써서 해결 방안을 생각해 내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03 (1) 격언은 오랜 생활 체험을 통하여 이루어진, 인생에 대한 교훈이나 경계 따위를 간결하게 표현한 짧은 글이다. 명언은 유명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 널리 알려진 말로 교훈이나 가르침을 준다.

(2) 처음 그 말을 한 사람이 분명한 것은 명언이다.

(3) 명언은 말 그대로 유명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 널리 알려진 말로, 사리에 맞는 훌륭한 말이다.

04 「아까다 똥 될지라도」에서는 물건을 너무 아끼기만 하다가는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인 '아까다 똥 된다'를 재구성하여, 아까다가 못 쓰게 되더라도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사는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 맞보기

01 '소 잃고 외양간 고치다'는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서야 빈 외양간의 허물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떠난다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이다.

오답 풀이 ① '울며 겨자 먹기'는 싫은 일을 억지로 마지못하여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장마에 오이 굶듯 한다'는 어떤 일이 연이어 계속 생기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황소 뒷걸음치다가 쥐 잡는다'는 어쩌다 우연히 이루거나 알아맞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기와 한 장 아끼다가 대들보 썩힌다'는 조그마한 것을 아끼려다가 오히려 큰 손해를 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02 관용 표현은 특정 사회나 언어 공동체에서 쓰이는 관습적인 언어 표현 방식으로, 둘 이상의 낱말이 결합하여 원래의 뜻과는 다른 특별한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귀가 아파서 이비인후과에 갔다'에서 '귀가 아파서'는 각 낱말의 기본적인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일반적인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② '눈을 붙이(다)'는 잠을 잔다는 뜻이다.

③ '배를 내밀고(다)'는 남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버틴다는 뜻이다.

④ '머리가 가법다'는 상쾌하여 마음이나 기분이 거뜨하다는 뜻이다.

⑤ '입을 막는(다)'은 시끄러운 소리나 자기에게 불리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03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루이다."라는 말은 소포클레스의 명언으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교훈을 담고 있다.

내공 확인 문제

01 속담은 처음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다. 처음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져 있는 것은 명언이다.

02 ㉠~㉣은 예로부터 전하여 오는 조상들의 지혜, 교훈이나 풍자가 담긴 말인 속담이다. 속담은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고 우리말의 고유한 표현이 잘 나타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게으른 사람이 일하기 싫어 한 번에 많이 해치우려 함을 빈정대어 이르는 말이다.

② ㉡은 아무리 큰 일도 작은 일로부터 비롯됨을 의미한다.

③ ㉢은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일을 끝마치기는 그리 어렵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은 우리 생활에 널리 쓰이는 속담이다.

03 '구르는 돌은 이끼가 안 낀다'는 부지런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침체되지 않고 계속 발전한다는 의미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속담이다. <보기>에서 친구는 '나'와 달리 꾸준히 노력하여 수영 실력이 몰라보게 발전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은 ②이다.

오답 풀이 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비에 젖어 질척거리던 흙도 마르면서 단단하게 굳어진다는 뜻으로 어떤 시련을 겪은 뒤에 더 강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가늘게 내리는 비는 조금씩 젖어 들기 때문에 여간해서도 옷이 젖는 줄을 깨닫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사소한 것

이라도 그것이 거듭되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벼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교양이 있고 수양을 쌓은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남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아무리 어려운 경우에 처하더라도 살아 나갈 방도가 생긴다는 말이다.

【참고 자료】 노력을 강조하는 속담

- 무쇠도 갈면 비늘이 된다. → 꾸준히 노력하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이룰 수 있다는 말이다.
- 낙숫물이 댕돌을 뚫는다. → 작은 힘이라도 꾸준히 계속하면 큰일을 이룰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 고인 물이 썩지 흐르는 물은 썩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사람은 언제나 일하고 공부하며 단련하여야 시대에 뒤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변질되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성공하게 만든다는 뜻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이 중요함을 이르는 말이다.

04 관용 표현은 둘 이상의 낱말이 결합하여 원래의 뜻과는 다른 특별한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므로 각 낱말의 사전적 의미를 안다고 그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05 '입이 쓰다'는 '어떤 일이나 말 따위가 못마땅하여 기분이 언짢다.'라는 뜻으로, '입을 모으다'는 '여러 사람이 같은 의견을 말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관용 표현이다.

【참고 자료】 '입'과 관련된 관용 표현

- 입을 맞추다 → 서로의 말이 일치하도록 하다.
- 입만 아프다 → 여러 번 말하여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말한 보람이 없다.
- 입만 살다 → 말에 따르는 행동은 없으면서 말만 그럴듯하게 잘하다.
- 입에 거미줄 치다 → 가난하여 먹지 못하고 오랫동안 굶다.
- 입에 달고 다니다 → 말이나 이야기 따위를 습관처럼 되풀이하거나 자주 사용하다.
- 입이 벌어지다 → 매우 놀라거나 좋아하다.

06 '발을 구르다'는 '매우 안타까워하거나 다급해하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몸을 움직일 수 없거나 활동할 수 없는 형편이 되다.'를 뜻하는 관용 표현은 '발이 묶이다'이다.

07 <보기>의 '여우'는 나무 위의 포도를 딸 수 없게 되자 핑계를 대며 쉽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여우'에게는 꿈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거나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언이 적절하다. 따라서 '여우'에게는 도전이나 노력에 관한 명언을 활용해 가르침을 주는 말을 건넬 수 있다.

오답 풀이 ①은 우정, ③은 행복, ④는 인생, ⑤는 용기에 관한 명언이다.

08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파스퇴르가 한 말로, 평소 노력하여 준비하는 사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 말이다.

오답 풀이 ② '이른 아침은 입에 황금을 물고 있다.'는 시간과 관련된 명언이다.

③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합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다.'는 사랑과 관련된 명언이다.

④ '친구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완전한 친구가 되는 것이다.'는 우정과 관련된 명언이다.

⑤ '사랑은 서로를 마주보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는 사랑과 관련된 명언이다.

09 <보기>의 '여우'는 토끼 고기를 지나치게 아끼다 먹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시된 이야기와 관계 깊은 표현은 물건을 너무 아끼기만 하다가는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인 '아끼다 똥 된다'이다.

오답 풀이 ① '몸을 아끼다'는 '힘껏 일하지 않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② '목숨을 아끼다'는 '죽을 상황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안전을 피하거나 더 오래 살려고 생각하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④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해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미리부터 다 된 일로 알고 행동한다.'라는 뜻의 속담이다. ⑤ '기와 한 장 아끼다가 대들보 썩힌다'는 '조그마한 것을 아끼려다가 오히려 큰 손해를 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이다.

내공 심화 문제

01 ㉠은 일반적인 표현이고, ㉡은 대상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리어 대상에 대하여 잘 알기 어렵다는 뜻을 지닌 속담이다. 속담은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과 같은 속담을 활용한다고 해서 낱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02 자그마한 행동을 반복하여 큰 손해를 입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속담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이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손해를 크게 볼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마땅치 아니한 것을 없애려고 그저 덩비기만 할 때 쓸 수 있는 속담이다.

03 '머리를 맞대다'는 '어떤 일을 의논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서로 마주 대하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머리를 써서 해결 방안을 생각해 내다.'라는 뜻을 지닌 관용 표현은 '머리를 굴리다'이다.

오답 풀이 ① '파김치가 되다'는 '몹시 지쳐서 기운이 아주 느슨하게 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몹시 지쳐서'와 바꾸어 쓰기에 적합하다. ② '손을 멈추다'는 '하던 동작을 잠깐 그만두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하던 동작을 그만두고'와 바꾸어 쓰기에 적합하다. ④ '귀에 익다'는 '들은 기억이 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들은 기억이 있는'과 바꾸어 쓰기에 적합하다. ⑤ '눈을 똑바로 뜨다'는 '정신을 차리고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정신을 차리고 주의를 기울여'와 바꾸어 쓰기에 적합하다.

04 **서술형** ㉠는 낱말의 기본적인 의미 그대로 '가야 하는 길이 멀다.'라는 뜻이지만 ㉡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뜻이다. 이를 통해 관용 표현은 둘 이상의 낱말이 한 덩

어리처럼 굳어져 낱말의 원래 뜻과는 다른 특별한 뜻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㉓와 ㉔의 의미를 올바르게 썼다.	☐
관용 표현의 특성을 바르게 파악하였다.	☐

05 금언(金言)이라고도 불리는 명언은 유명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 널리 알려진 말로, 사리에 맞는 훌륭한 말이기 때문에 교훈이나 가르침을 준다.

오답 풀이 ㄷ. 명언은 위인이나 유명 인사가 한 말로 주로 간결한 형식으로 표현된다.

ㄹ. 명언은 속담과 달리 대부분 처음 그 말을 한 사람이 분명하다.

ㄴ. 관용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06 ㉑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관용 표현은 ‘웃음을 참지 못하여 배를 움켜잡고 크게 웃다.’라는 뜻을 지닌 ‘배꼽을 쥐다’이다. ‘배를 내밀다’는 ‘남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버티다.’라는 뜻을 지닌 관용 표현이다. ‘몹시 바빠 진행되거나 어떤 일에 몰두하여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알지 못하다.’라는 뜻을 지닌 관용 표현은 ‘시간 가는 줄 모르다’이므로 ㉒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시간’이다. ㉓에 들어갈 관용 표현은 ‘음식 따위를 몹시 먹고 싶어 하다.’라는 뜻을 지닌 ‘(군)침을 삼키다’가 적합하다. ‘마른침을 삼키다’는 ‘몹시 긴장하거나 초조해하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므로 ㉔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다.

07 서술형 <보기>의 마지막 문장인 ‘함부로 구기지 말고 모든 걸 아끼면서, 귀하게 다독이면서 살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글의 글쓴이는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사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속담 ‘아끼다 똥 된다’는 물건을 너무 아끼기만 하다가는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글쓴이는 이 속담을 재구성하여 이 속담과 상반되는, 모든 것을 아끼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이 글의 주제를 올바르게 파악하였다.	☐
이 글의 제목과 주제의 관련성을 올바르게 파악하였다.	☐

08 ㉕의 ‘굴러온 돌’과 ㉖의 ‘굴러온 호박’은 ‘혜미’를, ㉗의 ‘박힌 돌’과 ㉘의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는 ‘나’를 가리킨다.

오답 풀이 ① ㉕, ㉖, ㉗은 모두 속담이다.

②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는 여럿이 모여 웃고 떠드는 가운데 혼자 묵묵히 앉아 있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 ‘개밥에 도토리’는 따돌림을 받아서 여럿의 축에 끼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의미상 차이가 있다.

③ ㉘은 문맥상 ‘친하려고 나서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⑤ ‘고장난명(孤掌難鳴)’은 외손뼉만으로는 소리가 울리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혼자 힘만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어려움을 이르는 한자 성어이고, ‘손발이 맞다’는 함께 일을 하는 데에 마음이나 의견, 행동 방식 따위가 서로 맞다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따라서 ‘손발이 맞다’와 ‘고장난명’의 의미가 비슷하다고 보기 어렵다.

09 제시된 명언은 친구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 말로, 친구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명언은 ‘우정’과 관련이 있다.

어휘 문제

01 ‘이삭’은 ‘벼, 보리 따위 곡식에서 꽃이 피고 꽃대의 끝에 열매가 더부룩하게 많이 열리는 부분.’을 뜻하는 말로, ‘벼 이삭’, ‘이삭을 거두다.’와 같이 쓰인다.

02 ‘풍자’는 ‘남의 결점을 다른 것에 빗대어 비웃으면서 폭로하고 공격함.’을 뜻하는 말로, ‘그의 소설은 풍자와 해학으로 우리 사회의 병폐를 표출했다.’와 같이 쓰인다.

03 ‘관용’은 ‘오랫동안 써서 굳어진 대로 늘 씀, 또는 그렇게 쓰는 것.’을 뜻하는 말로, ‘외국어를 공부할 때는 관용 표현을 익히는 것이 참 어렵다.’와 같이 쓰인다.

04 ‘가늘게 내리는 비.’를 뜻하는 낱말은 ‘가랑비’이다. ‘장대비’는 ‘장대처럼 굵고 거세게 쩍쩍 내리는 비.’를 뜻한다.

05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끌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낱말은 ‘지체하다’이다. ‘지각하다’는 ‘정해진 시각보다 늦게 출근하거나 등교하다.’라는 뜻이다.

06 ‘말이나 글이 어떤 뜻을 속에 담고 있는, 또는 그런 것.’을 뜻하는 낱말은 ‘함축적’이다. ‘사전적’은 ‘사전(辭典)에 근거한 것.’을 뜻한다.

07 ‘사리’가 들어가야 한다. ‘사리’는 ‘일의 이치.’라는 뜻이다.

08 ‘인상적’이 들어가야 한다. ‘인상적’은 ‘인상에 강하게 남는, 또는 그런 것.’이라는 뜻이다.

09 ‘절망에 빠져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보지 아니함.’을 뜻하는 한자 성어는 ‘자포자기’이다. 한편 ‘설상가상’은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이며, ‘측은지심’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뜻한다. ‘자린고비’는 ‘인색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10 ‘세 개를 한 세트’로 묶은 색 볼펜과 ‘그걸 가장 먼저 가진 사람’의 앞뒤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증정했는데(증정하다)’는 ‘어떤 물건 따위를 축하 인사로 주다.’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